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A Handbook for Urban Public Spaces in Daily Life

이상민 Lee, Sang Min  
엄운진 Um, Woon Jin

( a u r i

AURI-기본-2011-7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A Handbook for Urban Public Spaces in Daily Life

지은이: 이상민, 엄운진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2008-0005호

인쇄: 2011년 12월 28일, 발행: 2011년 12월 30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10,000원, ISBN: 978-89-93216-87-5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진

---

Ⅰ 연구책임	이상민 부연구위원
Ⅰ 연구진	엄운진 연구원
Ⅰ 연구보조원	김다슬, 박설미, 박호근, 서경덕, 유승호, 이재혁, 허윤선
Ⅰ 외부연구진	김대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손용훈 일본치바대학교 교수

---

Ⅰ 연구심의위원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배성호 국토해양부 사무관 양우현 중앙대학교 교수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정두용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Ⅰ 연구자문위원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 이유직 부산대학교 교수 이현선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무국장 조경진 서울대학교 교수 정수진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 최정민 순천대학교 교수





## 연구요약

### 제1장 서론

이 연구는 도시의 부족한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공공공간의 공급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담당 실무자나 공무원, 주민 등 관련 주체들이 사업추진시 쉽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특히 예산, 인력 등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디자인 품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소적 맥락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을 조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에 조성된 관련 사례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 연구를 기초로 만들어진 매뉴얼은 도시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공간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시 관련 주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업무지침의 일부로 활용가능할 것이며,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주민, 관련 실무자,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제도적 틀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애매한 도시 공간의 공공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이나 제도 개선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도시의 일상적 생활공간으로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유형 등을 검토하여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현 제도 안에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유형들의 조성실태를 파

악하기 위해 국내 주요도시(서울, 성남, 영주)를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실태를 조사, 현실의 문제점과 앞으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세 번째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도출을 위해 유형별로 국내외 관련 조성사례를 선정, 각각의 사례에 대해 조성방식과 조성체계, 공간적 특성, 기타 특이사항 등을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시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을 바탕으로 조성의 기본방향과 원칙, 조성과정별 주안점, 그리고 국내외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하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안)”을 작성하였다.

## 제2장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에 대한 이해

이 연구에서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을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이 위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 개념은 기존의 연구에서 살펴본 생활권 공공공간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나,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좀 더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공간이 형성되어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생활밀착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일반적인 도시의 공공공간이 가지는 가치들을 모두 갖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이상민외(2008)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도 일반적인 공공공간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교육적 가치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하지만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이 다섯 가지의 중요한 역할과 가치 이외에도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인구가 밀집되어 공공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형평성(equity)라는 중요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공간은 어느 정도 양적인 측면에서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기존 주거지의 경우 공공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지역적으로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 또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공공공간 공급에서 소외된 지역에 공공공간을 공급해준다는 형평성이라는 가치와 함께 일상적 가치라는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한편으로 생활주변의 작은 공간들의 활용은 일상적 가치를 환기시켜 지역 또는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결국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현재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마을만들기의 촉매 또는 공

간접 거점으로서 중요한 가치와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의 주민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은 소공원이나 쌈지공원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제도적인 틀 속에서 조성된 것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이용되는 것들도 많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구 분	유 형
도시기반시설 관련	생활권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공공공지, 하천주변 공간, 녹지(연결녹지, 경관녹지, 산책로 등), 공공시설 주변공간, 사회기반시설 하부공간
개별 건축물 관련	공개공지
기타 도시 유희공간	도시 자투리 유희공간, 도시 텃밭, 골목길, 기타(공공주택 조경시설, 보도 내 공지)

### 제3장 국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실태조사

3장에서는 국내 공공공간의 조성실태 및 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공공공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시 규모 및 위치에 따라서 대도시, 수도권, 지역 중소도시로 구분하고, 각각 서울, 성남, 영주를 사례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차원에서 공공공간의 공급과 배치 현황을 분석하여 평균보다 부족한 지역(서울시 신림동 일대, 성남시 수진2동 일대, 영주시 영주 1동 일대)을 도출하였다. 특히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GIS분석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유형별 조성실태와 향후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도시규모별 공공공간 공급현황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른 도시에 비하여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가 양호한 서울시는 공공공간의 불균형이 심각하지 않았으나, 도시규모가 작아질수록 공공공간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공간 조성시 도시 특성에 적합하도록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 공간시설의 현대화하거나 재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공공공간의

부지 및 주체가 다양해짐을 알 수 있었다.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공공공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에 대한 현대화사업은 양적인 공급에서 질적인 향상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공공간으로 활용가능한 대상부지로 기존의 폐철도 부지나 동네뒷산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 주민, 기업의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세 번째는 생활권 단위의 공공공간의 조성이 요구되어 있다. 도시차원에서는 균등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지역단위에서는 소외지역이 발생하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차원의 계획적 접근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실제 조성과정에도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 단위에서, 중소도시는 동단위에서 지역수요에 맞는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들은 지역단위 혹은 생활권 단위에서 개별적인 상황과 조건, 요구에 적합한 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확보 차원 이상의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공공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적 확대 요구된다. 현재 제도적 차원에서 공공공간은 1차적으로 공원 및 녹지에 한정되어 있으며, 좀 더 범위를 확장하면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가 포함된다. 그리고 더 확장하면 개념상 애매한 부분인 공간의 경계부분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사회기반시설 하부 및 인접 공간의 경우 도시계획으로는 ‘도로’로 결정되어 도로하부에 발생하는 유희공간은 대부분 주차장 및 불법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간은 새로운 공간을 찾기 어려운 현재의 도시 상황에서 좋은 공공공간으로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다.

## 제4장 국내외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사례 분석

4장에서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도출을 위해 유형별로 국내외 관련 조성사례를 선정, 각 사례에 대해 조성방식과 조성체계, 공간적 특성 등을 조사, 분석하여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공공공간 유형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시설을 지역의 여건 및 수요에 따라 리모델링하거나 용도를 변경시키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세대 밀집지역의 사잇공간을 공공공간으로 조성(안산시 석수골 마을정원 만들기)하거나 기존의

공공공간을 연계하여 새로운 선형의 공공공간 조성(북한산 둘레길 조성사업), 학교시설의 담장을 허물어 새로운 공공공간 조성(안산시 석수초교 담장가꾸기 사업), 교통 목적으로 설치된 철도교량 하부의 버려졌던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인천 동구 배다리 교량하부공간 개선사업) 등 사업내용들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공공공간은 국공유지에만 조성되기보다는 사유지를 공공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건축법에 의해서 조성되는 공개공지 외에도 주거밀집지역 내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하여 사유지를 활용하게 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골목을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들은 부지조성을 위하여 1차적으로 사유지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등에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다른 사례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조성되지만 향후 용도를 변경하여 지역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공공공지이다. 공공공지는 법규상으로 조성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유지관리의 어려움이나 제도자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실제 조성된 사례는 많지 않다. 하지만 판교에서는 사업초기단계인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공공지 조성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실행단계에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 공공공간 조성주체 관점에서 살펴보면, ‘관주도’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같이 법·제도적인 틀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지자체의 공공공간에 대한 정책 및 사업목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사업방식은 아직까지 최소한의 공급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획일화된 사업위주로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으나 지자체의 자체사업과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호시너지 효과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민+관 협력’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민, 관의 장단점을 적절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생활권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사업에 대한 기획능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제안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경우 기획 내용에 대해 관에서는 예산과 부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반대로 관에서도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을 위하여 많은 사업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관주도, 민간주도 사업이 각각 일방적인 공급, 예산부족으로 인해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민간주도’ 사업은 건축물 조성과정에서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개공지와 카페 등의 상업시설을 통하여 특색있는 가로의 공공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업들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민간주도 사업은 초기 사업 시작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추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향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공간 조성 추진방식 관점에서 살펴보면, 신도시 조성이나 대규모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비용이 마련된 경우에는 공공공간 조성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기존 시가지에서는 부지확보나 사업비 문제로 인하여 신규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개인 및 시민단체 등이 부지를 제공하거나 조성과정에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안산시 석수골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은 민간차원에서 다가구 건축물 사이의 사잇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공개공지 등은 민간이 공공공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업 추진시 관에서는 전문가 추천, 행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참여와 관련된 제도로 ‘녹지활용계약’, ‘경관협정’ 등이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공공간 조성 관련 사업방식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토해양부(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행정안전부(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문화체육관광부(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추진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중앙부처의 시범사업, 지자체 장의 공약이나 필요에 의하여 추진되는 일반사업 등이 서로 연계되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 제5장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을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사업방식, 다양한 주체 참여,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디자인전략 수립 등 다섯 가지로 제안하였다.

먼저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공공공간의 적극적인 활용과 도심 내 다양한 유휴공간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기반시설 관련 공간의 활용, 기존 공간의 리모델링 및 용도 변경,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 확대, 사유지의 공공공간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화 사업방식과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 국내외 다양한 사업과 제도를 검토하였는데, 국내외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은 공간 유형만큼이나 다양하며, 같은 유형이라도 주변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결국 적합한 사업방식을 고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조성주체

가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공공공간 조성에서 여러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관련 주체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제까지 제시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공간 조성 부지 확보, 다양한 사업방식과 제도의 활용, 여러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이외에 현 제도 안에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도적 차원에서 기반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 수립, 관련 법규 및 구체적인 설치기준,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 적극적인 민간참여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번째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디자인전략 수립을 제안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4가지의 조성방안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었다면, 이것은 공공공간의 만드는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시 지켜야할 10가지 실천방향과 좋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좋은 공공공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자 좋은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공공공간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장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 개발

6장에서는 지역에서 일상생활과 밀착된 공공공간을 조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안)을 작성하였다. 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은 핸드북에 가까우며, 공공에서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느슨한 가이드라인의 성격도 가질 수도 있다. 결국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은 장소만들기 매뉴얼과 디자인 매뉴얼의 성격을 모두 가지면서 지역에서 일상생활과 밀착된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주요 검토사항 및 주안점을 단계에 따라 제시하는 동시에, 다양한 관련 사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공간 유형별로 적절한 조성 방향을 결정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매뉴얼의 활용주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을 조성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공무원, 설계자, 지역 주민 등이다. 특히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은 사업대상지나 사업 자체의 특성상 공무원, 주민, 제3섹터(시민단체, 설계자) 등 각기 다른 이해당사

자들이 주체로서 참여해야 하므로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성공적인 참여가 곧 좋은 공간 조성과 직결된다.

매뉴얼 구성과 형식은 구체적인 디자인 어휘를 제시하기 보다는 공공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좋은 디자인을 유도하고, 국내외 다양한 사례에 대해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사업을 추진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안)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1. 먼저 읽어보기!

- 매뉴얼은 왜 필요한가?
- 매뉴얼은 누가,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가?
- 매뉴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2.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만들기!

-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이란 무엇인가?
-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특성은 무엇인가?
-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만들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조성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3. 국내외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알아보기!

- 관련 사례모음

## 제7장 연구요약 및 제언

이 연구는 도심에서 부족한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공공공간의 공급에서 소외된 지역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담당공무원이나 주민, 실무자 등 관련 주체들이 실제 사업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매뉴얼은 예산, 인력 등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디자인 품질을 확보하며, 장소적 맥락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을 조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향후 여러 가지 과제를 남기고 있다. 먼저 앞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조성방안을 구체화하여 좀 더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개선해야 할 법규 및 설치기준, 그리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



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결과의 일부로 개발된 매뉴얼은 실제 사업에 적용하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 좀 더 구체화하여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향후에는 조성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체크리스트나 업무지침, 유리·관리를 위한 매뉴얼 등에 대한 후속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 생활밀착, 공공공간, 일상생활, 매뉴얼**

## 차 례

<b>제1장 서론</b>	<b>1</b>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9
1) 공간적 범위	9
2) 내용적 범위	10
3) 연구의 흐름도	11
3. 관련 선행연구 검토	12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	12
2) 기타 관련 선행연구	14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15
<b>제2장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에 대한 이해</b>	<b>17</b>
1.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개념과 가치	17
1)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개념	17
2)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가치	19
3)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특성	23
2.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유형	26
1) 도시기반시설	27
2) 개별건축물 관련	35
3) 기타 도시 유휴공간	36

### 제3장 국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실태조사 .....39

1. 조사개요 .....	39
2. 대상지별 실태조사 결과 .....	41
1) 대도시_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1동 일대 .....	41
2) 수도권_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일대 .....	48
3) 지방 중소도시_영주시 영주1동 일대 .....	57
3. 실태조사 종합 및 시사점 .....	66

### 제4장 국내·외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사례 분석 .....69

1. 도시기반시설 관련 공공공간 .....	70
2. 개별건축물 관련 공공공간 .....	87
3. 기타 도시 유휴공간 .....	92
4. 사례분석 종합 및 시사점 .....	101
1) 공공공간 유형별 특성 .....	101
2) 공공공간 조성주체별 특성 .....	103
3) 공공공간 조성 추진방식별 특성 .....	103

### 제5장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107

1.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	108
1) 기존 공공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	108
2) 도심 내 다양한 유휴공간 발굴 .....	109
2. 다양한 사업방식과 제도의 활용 .....	111
1) 다양한 관련사업의 활용 .....	112
2)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	114
3. 여러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116
1) 다양한 주체참여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	116
2) 교육과 홍보를 통한 관련 주체의 인식 개선 .....	117
4.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123
1)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 수립 .....	123

2)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관련 법규 및 구체적인 설치기준 마련 .....	123
3) 전문인력 지원방안 마련 .....	124
4) 민간참여 방안 마련 .....	125
5.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디자인전략 수립 .....	126
1)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	126
2) 좋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설계기준 마련 .....	129
<b>제6장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 개발 .....</b>	<b>131</b>
1. 매뉴얼의 목적과 활용방향 .....	131
1) 매뉴얼의 개념 .....	131
2) 매뉴얼의 목적과 활용방향 .....	132
2.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안) .....	134
<b>제7장 연구요약 및 제언 .....</b>	<b>135</b>
참고문헌 .....	139
SUMMARY .....	143

## 표 차례

[표 1-1] 공공공간 관련 도시계획시설 년차별 집행비율 .....	3
[표 1-2] 공공공간의 범위 .....	9
[표 1-3] 연구의 흐름 .....	11
[표 1-4] AURI에서 진행한 공공공간 관련 연구현황 .....	13
[표 2-1]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유형 .....	26
[표 2-2] 생활권공원 세부유형 및 설치규정 .....	28
[표 2-3] 하천의 지구별 계획기준과 도입가능 공간 .....	32
[표 2-4] 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관련 조례 .....	37
[표 3-1] 현황조사 대상지 개요 .....	39
[표 3-2] 현황조사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 현황_서울특별시 .....	41
[표 3-3] 배치 및 공급 현황_서울특별시 .....	41
[표 3-4] 취약지역 위치 및 현황_서울특별시 .....	42
[표 3-5] 현황조사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 현황_성남시 .....	48
[표 3-6] 배치 및 공급 현황_성남시 .....	48
[표 3-7] 취약지역 위치 및 현황_성남시 .....	49
[표 3-8] 현황조사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 현황_영주시 .....	57
[표 3-9] 배치 및 공급 현황_영주시 .....	57
[표 3-10] 취약지역 위치 및 현황_영주시 .....	58
[표 4-1] 공공공간 조성사례 분석_도시기반시설 .....	70
[표 4-2] 한평공원 중 주요사례 .....	75
[표 4-3] 공공공간 조성사례 분석_개별건축물 관련 공공공간 .....	87
[표 4-4] 공공공간 조성사례 분석_기타 도시 유희공간 .....	92

[표 4-5] 토지주택공사 생태아파트(마을)만들기 사업현황 .....	98
[표 4-6] 공공공간 유형별 특성 .....	102
[표 5-1] PPS Program 적용현황 .....	122
[표 5-2]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관련 법규 .....	124
[표 5-3] 좋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조건 및 세부속성 .....	129
[표 6-1] 활용주체별 활용방안 .....	133

## 그림차례

[그림 1-1] 1인당 도시공원면적 잉여와 부족	2
[그림 1-2] 서울특별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2
[그림 2-1]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유형	26
[그림 2-2] 대도시 생활권공원 면적현황	27
[그림 2-3] 대도시 생활권공원 1인당면적	27
[그림 3-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1동 일대 공공공간 전체 현황도	42
[그림 3-2]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일대 공공공간 전체 현황도	49
[그림 3-3] 골목 작은 텃밭 조성사례	56
[그림 3-4] 영주시 영주1동 일대 공공공간 전체 현황도	58
[그림 3-5] 공터를 활용하여 휴게공간 조성	65
[그림 4-1] 영주시 철탄아파트 뒤 소공원 현황	72
[그림 4-2] 삼육어린이공원 소공원 현황	74
[그림 4-3] 판교신도시 공공공지 현황	78
[그림 4-4] 판교신도시 저류지 현황	80
[그림 4-5] 안산시 석수초등학교 담장가꾸기 현황	82
[그림 4-6] 안산시 석수초등학교 담장가꾸기 사업주체별 역할	82
[그림 4-7] 주거지와 연결되어 있는 둘레길 진입구	84
[그림 4-8] 인천 동구 배다리 교량하부공간 개선사업	86
[그림 4-9] 서울특별시 중구일대 공개공지 현황	89
[그림 4-10] 서울특별시 공적공간 관리대장 양식	89
[그림 4-11] 안산시 석수골 마을정원 만들기 현황	91
[그림 4-12]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그린파크	96
[그림 4-16] 보정동 카페거리 일대	100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공공공간의 지역적 불균형

도시의 쾌적한 공공공간은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이것의 질적 향상이 곧 도시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공공공간은 항상 부족한 현실이다.

최근 발표한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대표적인 공공공간이라 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이 1인당 22.0㎡라고 한다.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공원 확보면적인 6㎡의 3.7배에 이르는 것으로,<sup>1)</sup> 수치로는 우리나라가 충분한 도시공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에서는 인구밀도가 달라 지역별로 도시공원 면적에 큰 편차를 보인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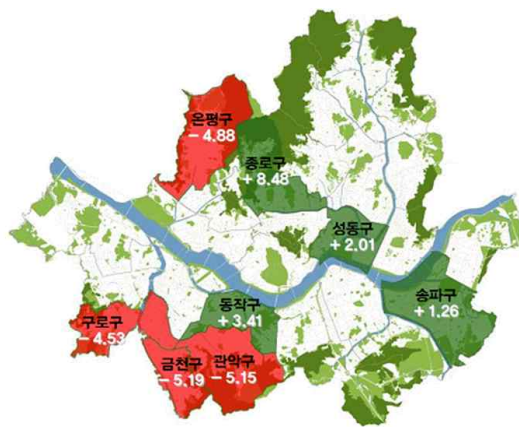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은 생활권 단위에서 살펴보면 더 심각하다. 지속적으로 도시공원의 공급과 유지·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서울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서울

1) 한국조경학회, 국토연구원(2011),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전략 정책연구」,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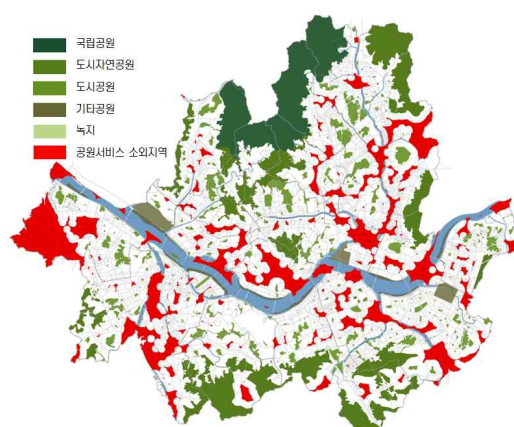
2)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울산시가 39.7㎡/인 으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가장 넓으며, 서울시 도시공원 면적은 11.0㎡/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1.0㎡이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생활권공원은 1인당 4.4㎡에 불과하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이 가장 큰 곳은 종로구로 그 면적이 15.3㎡/인 것에 비해, 가장 작은 곳은 금천구로 겨우 1인당 0.3㎡정도의 생활권공원이 확보된 상황이다.

결국 거시적 차원에서는 양적으로 어느 정도 도시공원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생활권에서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특히 지역적으로 공급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임을 알 수 있다.<sup>3)</sup> 서울시의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을 분석한 결과<sup>4)</sup>에서도 서울시 전체 면적의 12.62%인 76.49km<sup>2</sup>가 공원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나타났다.<sup>5)</sup>



[그림 1-1] 1인당 도시공원면적 잉여와 부족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1-2] 서울특별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이는 이제까지 도시공원의 대부분이 자연공원이거나 주로 도시외곽에 분포하여 실제 생활과 밀착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동시에 도시적 차원에서 법적 설치기준에 의해 획일적으로 공급, 조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sup>6)</sup> 따라서 도시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공공공간을 공급하고는 있으나 실제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전히 공공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3) 국토해양부(2011), p.20.

4)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도시공원은 반경 500m기준으로 소공원, 마을마당은 반경 250m기준으로 분석하였다.

5) 서울시 내부자료, 202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2008) 참조.

6) 이상민외(2008), 「도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p.4.

## 2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 □ 도시 내 공공공간 공급의 어려움

그러나 공공에서 현재와 같이 지가가 높고 확보된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도시 내 공공공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국토해양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 년 사이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공공공간과 관련된 시설의 집행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아래 표에서 2006년과 2010년 대표적인 도시 공공공간인 공원이나 녹지, 공공공지 등의 집행면적과 집행비율을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sup>7)</sup>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공공에서 공급하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2020년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49.2%의 도시공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sup>8)</sup>

[표 1-1] 공공공간 관련 도시계획시설 년차별 집행비율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공원	결정면적(㎡)	1,141,429,326	1,189,615,224	1,035,194,230	892,525,947	832,877,477
	집행면적(㎡)	292,177,266	328,579,878	211,463,319	149,078,488	128,256,241
	집행비율(%)	25.60	27.62	20.43	20.52	15.40
	추정사업비계 (백만원)	50,506,150	51,038,408	58,550,148	57,923,546	55,619,221
녹지	결정면적(㎡)	118,990,910	125,808,653	69,010,282	77,446,227	77,606,188
	집행면적(㎡)	65,485,999	67,366,206	8,894,460	8,788,101	8,538,047
	집행비율(%)	55.03	53.55	12.89	11.35	11.00
	추정사업비계 (백만원)	6,858,136	7,425,728	7,592,747	8,009,911	7,798,103
공공 공지	결정면적(㎡)	5,695,117	7,970,834	2,129,354	2,014,958	2,513,948
	집행면적(㎡)	4,862,456	6,451,805	118,677	144,657	134,113
	집행비율(%)	85.38	80.94	5.57	7.18	5.33
	추정사업비계 (백만원)	214,851	363,405	254,903	336,370	430,136

※ 출처: 국토부 통계자료 참조(2010년12월 기준)

7) 추정사업비는 반대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공공간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8) 전국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면적의 52.1%가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이 중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하면 도시공원 면적의 49.2%가 미집행 도시공원이다.(국토해양부, 2011)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쾌적한 삶의 질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공공공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그나마 신도시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주거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공공공간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접근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시가지나 단독주거지 밀집지역에서 공공공간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열악하여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 □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최근 국내외의 다양한 시도

그동안 공공공간에 대한 정책은 전체적으로 단기간에 도시 공간환경의 기본적인 양과 질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주민의 일상적 생활과 밀접한 주거지 주변의 공간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대신 각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단기간에 비교적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랜드마크적인 공공공간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현대도시에는 도시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아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랜드마크적인 공공공간과 함께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생활공간이자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일상적인 공공공간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들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공급방식이 아닌 조금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최근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도시 내 녹지 확보와 함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관심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례이다.

##### 충남도 "4년간 282개 소공원 새로 조성"

충남도내 농어촌지역의 마을 공터와 도로변, 하천변 등 282곳이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소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충남도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602억원을 들여 마을 공터와 도로변 및 하천변 공한지 등 282곳을 공원으로 만드는 '행복한 삶의 공원 가꾸기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사업별로는 ▲생활주변 공원 조성 42곳 ▲도로변 공한지 소공원 조성 60곳 ▲수변공원 15곳 ▲애향공원 58곳 ▲담 허물기 사업 통한 공원 조성 107곳 등이다. 또 이 기간 이미 조성된 소공원 280곳도 시대흐름에 맞게 새로 단장된다. (연합뉴스 /2011.01.18)

##### 성남시, 소공원 확대로 '이웃 소통장' 마련

경기 성남시가 지역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자투리땅에 소공원인 썸지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주변의 사유지에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19개의 썸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수정구와 중원구 등에 3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썸지공원 3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도도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썸지공원 16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썸지공원 조성은 지난해 8월 생활권 주변 소공원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화됐다.

#### 4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시는 당초 1999년 IMF 당시 공공근로사업 첫 시작과 함께 자투리 시유지에 원두막을 세우는 등 지역민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게 진행되면서 본래 목적과는 달리 도심의 흉물로 자리잡아, 정비 계획을 추진하면서 소공원 조성으로 전환했다. 이후 정비 계획과 함께 소공원화 사업이 추진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재정비 및 신규 조성을 통해 24곳의 소공원을 조성했다. 시는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시스/2011.05.11.)

#### 서울시민 발굴 자투리땅, 스스로 7만㎡ 녹화

서울시는 시민 5390명이 시민공모를 통해 발굴된 자투리땅 189개소 7만2446㎡를 녹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공모를 통하여 발굴된 자투리땅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푸른서울 가꾸기’ 사업을 통해 지난 6월말까지 총 189개소 7만2446㎡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했다. 이를 위해 지역단체를 비롯해 시민 5390명이 참여했으며, 시에서는 나무 15만5000주, 자생화 3만3000본, 부엽토 5천포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3월 시민공모를 실시했으며, 주민들은 동네골목길, 집짓고 남은 땅, 도로변 및 담장주변 공지, 생활타리 등 다양한 자투리땅에 대한 녹화를 제안했다. 면적은 최소 2㎡에서 최대 2만1802㎡까지였으며, 신청자들도 1명에서 50명(송과부녀회 및 주민자치위원회)까지 다양했다. 시와 구는 자투리땅들을 녹화하기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무와 꽃, 부엽토 등을 구매해 전달했으며, 신청자를 비롯해 지역단체에서 직접 나무와 꽃을 심어 가꾸는데 참여했다. (한국조경신문/2011.07.20.)

뉴욕시도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공원녹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10분 내에 오픈스페이스에 도달할 수 있도록 “Ensure all New Yorkers live within a 10-minute walk of a park”라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sup>9)</sup> 이러한 노력을 통해 뉴욕시는 지속적으로 뉴욕시민들에게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공원과 공공공간을 제공하고, 기존 공원과 공공공간의 질적 향상 또한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정형화된 공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공원과 공공공간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원의 담장을 없애고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녹도를 만들어 서로 다른 위계의 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연결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생물종 다양성 확보 및 생태계를 보존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과의 연결방법을 제시하여 커뮤니티를 증진시킴으로써 현재의 공원과 공공공간이

9) 이 정책은 공원과 공공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증대에 따라 그것에 맞는 공간과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존 공원의 이용 확대 방안과 도심 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공간을 발굴해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뉴욕시 홈페이지 참고)

1. 공원을 이용한 커뮤니티 증진 : 공원과 공공공간 인식 증대를 위한 도구 개발, 잘 사용되지 않았던 놀이터나 일시적인 공공공간으로 개방, 도심 텃밭과 커뮤니티 정원 설치, 기존 공간의 사용시간 확대
2. 모든 여가생활의 종착점으로 사용 : 주력 공원을 만들고 향상시킴, 기존 매립지 지역을 공공공간과 공원화, 수공간을 기반으로 한 여가 기획의 확대
3. 공공영역의 재생산 : 거리 풍경의 활성화, 시, 주, 연방정부의 협업, 녹도 네트워크 생성
4. 자연 보호와 홍보 : 백만 나무 심기, 천연 지역의 보존, 생태적 연결성을 위한 지원
5. 공공공간과 공원의 장기간 활용 보장 : 정신(Stewardship)에 대한 함양과 지원, 디자인과 유지 관리를 통한 공공공간의 지속가능성 추구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뉴욕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180여개 달하는 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수업 시간이후에 폐쇄되었던 운동장을 주말과 저녁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2010년에는 17개의 일시적인 공공공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2011년에는 약 20개의 공공공간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1950년대 말부터 고도의 경제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이와 함께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2010년 사단법인 일본공원녹지협회 통계에 따르면, 이 당시 일본 전역에 96,634개소, 면적 약 11만4천 ha의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1인당 공원면적이 9.53㎡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구가 정체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도시공원의 존재가치 또한 변화하고 있다.

공원 조성주체인 행정 입장에서는 과거 건설사업과 발을 맞추어 도시공원이 다수 조성되던 시대와 비교해서 현재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감소되어 민간의 힘을 빌려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누릴 수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한다. 공원 이용자인 주민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조성된 도시공원을 수동적으로 이용하였지만, 현재는 개인의 가치관, 선호, 여가활동 형태 등이 다양해지면서 도시공원에 대한 요구도 달라지고, 공공에 개방된 농지, 수림지 등 도시공원이 아닌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한 자연체험형 여가 활동에 대한 선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근 일본 지자체에서는 법정 도시공원이 아닌 수림지, 농지, 공지 등을 활용하여 도시공원을 보조하는 공공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사유지인 도시 수림지, 농지, 공지는 행정이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적절히 중개하거나 때때로 제3의 관리단체를 이용하여 도시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sup>10)</sup>

이처럼 국내외 여러 도시들은 공공에서 도시 공공공간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존 공간들을 활용하여 그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

---

10) 이 내용은 외부연구진인 치바대학교 손용훈 교수의 원고내용 일부이다.

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도시 내 일상적인 생활공간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버려진 공공공간을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도시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우리 주변의 공공공간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현행 제도적 틀 안에 속하지 않거나 구분하는 것이 애매한 것들이 많고 다양해서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공공의 접근방식으로의 공급이 어렵다. 조성된다 하여도 유지·관리적 측면에서도 많은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도시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공공공간의 조성은 기존의 공공공간 조성방식과 다른 해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 제도의 개선과 함께 다양하고 유연한 접근방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심지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공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방식은 지가가 비싼 도심지 안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례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에는 무엇보다도 참여주체의 다양화가 전제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 관련 주체들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특히 공간의 성격이나 유형이 현황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매번 새로운 시도이고 새로운 사업이 될 것이므로 관련 주체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동의 참고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활과 밀착된 다양한 공공공간의 조성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과정에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참고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한다.

일상생활과 밀착된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방식은 관주도보다는 주민주도적이고,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만들기 보다는 가꾸기로 전환하고 있는 최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도시의 부족한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공공공간 공급의 불균형으로 공공공간이 열악한 지역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담당 실무자나 공무원, 주민 등 관련 주체들이 쉽게 이해하여 사업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예산, 인력 등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디자인 품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소적 맥락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에 조성된 관련 사례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일상적 생활공간으로서 도시 공공공간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좋은 공공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이 연구를 기초로 만들어진 매뉴얼은 도시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공간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시 관련 주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업무지침의 일부로 활용가능할 것이며,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주민, 관련 실무자,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제도적 틀에서 제외되어 관리되지 못하는 애매한 도시 공간의 공공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이나 제도 개선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1) 공간적 범위

#### □ 공공공간의 개념과 범위

공공공간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건축기본법 제3조3항에 “공공공간”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 제시되어 있다.

서울시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을 관점에 따라 좁게는 공공이 소유(public-owned)한 공간으로, 광의로는 공공적으로 이용되는(public-used or communal) 공간을 정의하고,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서울특별시내에 있는 “공공적으로 이용”되는 공간 중 외부공간 및 준외부공간(필로티 하부 등)에 조성되었거나 조성될 공간으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공공공간의 기능에 따라 총 22가지로 나누었다.<sup>11)</sup>

[표 1-2] 공공공간의 범위

범위	구체적인 대상
도로	보행가로, 자전거 도로, 자동차 도로
광장	교차점 광장, 역전 광장, 중심 대광장, 근린광장, 경관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친수공간	하천, 도시 내 수경공간
도시공원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대공원, 선형공원, 기타공원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옥외주차장	
도시구조물 주변공간	
공개공지	
기타 공공공간	디지털 영상매체

※출처: 서울특별시(2008),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p.18.

김세용(1997)은 공공공간의 범위를 “공공에게 24시간 개방되고, 자유롭게 출입이 허용되며, 공공에 의해서 공급되지 않았더라도 공공을 위해서 시설된 개방공간”으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는 공간의 소유 형태나 공급 방식보다는 이상민외(2007)에서 제시한 것처럼,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이 도시공간에서 서로 이질적인 부분들을 기능적, 시각적으로 연결시키고, 건축물들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개방공간으로서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전파하는 매개공간으로서, 그리고 도시문화의 가치를 상징하는 역동공간으로서 특성을 갖고 있음에 주목하고, “공공공간은 공공에게 개방되어 열려있고(개방성), 공공에

11) <http://design.seoul.go.kr/dscontent/designseoul.php?MenuID=491&pgID=30>

게 편익과 이익을 제공하며(공공성)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촉발시키는(매개성, 역동성) 공간”이라는 개념적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 □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개념과 범위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주요 연구대상인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시의 공공공간’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거나 경계나 소유를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공공에게 개방되어 이용되는 도시 속의 애매한 공간(ambiguous public space)들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2) 내용적 범위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조성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이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도시의 일상적 생활공간으로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유형 등을 검토하여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국내 현 제도 속에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유형들의 조성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주요도시(서울, 성남, 영주)를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실태를 조사, 현실적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현실과 문제점을 명확히 한다.

세 번째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도출을 위해 유형별로 국내외 관련 조성 사례를 선정, 각각의 사례에 대해 조성방식과 조성체계, 공간적 특성, 기타 특이사항 등을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조성을 위한 관련 대상지 및 자원 확보, 조성 주체의 다양화,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시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을 바탕으로 조성의 기본방향과 원칙, 조성과정별 주안점, 그리고 국내외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하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안)”을 작성한다.

### 3) 연구의 흐름도

[표 1-3] 연구의 흐름

목차	연구내용	연구방법
1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방향	
<b>[이론적 배경]</b> 2장.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에 대한 이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개념과 가치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유형	문헌조사 / 전문가 면담조사
<b>[실태조사]</b> 3장. 국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실태조사	·대상지별 실태조사 대도시(서울시)      수도권(성남시)      지방도시(영주시) ·현황 및 문제점 도출	현장조사/ 사례분석
<b>[조성사례분석]</b> 4장. 국내·외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사례 분석	유형별 국내외 주요사례 분석 도시기반시설관련      개별건축물 관련      기타 도시 유희공간 시사점 도출 유형별      조성주체별      조성 추진방식별	현장조사/ 문헌조사/ 전문가 원고의뢰
<b>[조성방안]</b> 5장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대상지      공공공간 부지 확보 사업방식      사업방식과 제도의 다양화 조성주체      여러 주체의 참여 유도 기타      공공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디자인전략 수립	디자인 워크숍
<b>[매뉴얼 개발]</b> 6장.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 개발	·매뉴얼의 목적과 활용방안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안)	사례분석 /디자인 워크숍
7장. 결 론	·연구요약 및 제언	

### 3.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

2007년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된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의 방향은 공공공간에 대한 기초연구(개념정립, 현황조사), 공공공간과 관련한 제도개선 연구(마스터플랜, 통합계획), 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공공공간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연구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이상민 외, 2007)는 도시 공공공간에 대해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과제로, 관련 용어를 비롯하여 법제도 및 조성현황 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간환경디자인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이상민 외, 2008)는 1차년도 연구를 바탕으로 기초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자료 작성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기성시까지 공공공간 현황진단모형 개발」(임유경 외, 2009)은 다양한 공공공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각 지역적 특성 및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초현황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보화하여 공공공간의 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 □ 공공공간과 관련한 제도개선 연구

「도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이상민 외, 2008)에서는 공공공간의 조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조성되는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중소도시의 도심 활성화 전략으로써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연구」(차주영 외, 2009)는 중소도시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써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관리수단 및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 도시 활성화 수단으로써 공공공간 활용방안 연구

「공공공간을 매개로 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서수정 외, 2008)는 공공공간에 대한 가치와 지자체가 공공공간을 매개로 장소만들기 차원의 도심 활성화 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방안」(차주영 외, 2011)에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건축물 및 공간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 1-4] AURI에서 진행한 공공공간 관련 연구현황

구 분		과제명	07	08	09	10	11
기초 연구	공공공간에 대한 이해	·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조사 연구	○				
		· 공간환경디자인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			
	기성시가지 공공공간 현황진단 모형	· 기성시가지 공공공간 현황진단모형 개발			○		
제도 개선	통합적 계획	· 도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 중소도시의 도심 활성화 전략으로써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연구			○		
공공 공간 활용 방안	원도심 활성화	· 공공공간을 매개로 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			
	중소도시재생	·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방안					○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및 매뉴얼 개발		·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 일상생활과 밀착된 공공공간 조성방안 제시 - 조성과정에서 관련 주체들이 활용가능한 매뉴얼 제작					

## 2) 기타 관련 선행연구

### □ 공공공간과 관련한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살고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경관 건축디자인 설정방안 연구(서수정, 2008)」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성단계에서 지켜야할 기본방향 및 실천방향을 담은 건축디자인기준을 5개 유형별(공공건축물, 주거건축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공공공간, 기반시설물)로 제시하였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공통항목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건축디자인 업무처리 지침’으로 고시되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공간 디자인 체크리스트에 관한 연구(백승경, 2009)」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구환경위기에 대응하여 도시의 공공공간 영역에 대한 디자인 체크리스트를 구축하였다.

또한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고재웅, 2009)」는 해외 도시의 좋은 공공공간 평가를 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특성을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의 이해(사용하기 쉬운 가이드라인 수립), 연계와 접근(통일된 원칙 적용), 안전성과 융통성(디자인 규정의 유연한 적용), 특성과 이미지(디자인 요소별 정보 제공), 이용과 활용(현황분석 기준 마련), 유지관리(공간 유지관리 규정 제시)라는 6가지의 준거 틀을 마련하였다.

### □ 다양한 공공공간의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 소공원의 확보 및 조성방안(박문호외, 1996)」은 도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의 소규모 공원녹지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도시소공원을 확보·조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법제도의 개정, 재원확보, 시책사업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유휴도로 공간을 활용한 녹지확충방안 및 보행환경개선방안(김광중, 1997)」은 그동안 공학적으로 수행된 서울시 도로의 신설과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유휴공간의 분포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유휴공간을 활용·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기업과 함께하는 가로경관과 도시문화 향상을 위한 건물전면 공간활용 방안 연구(김도년외, 2006)」는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기성도시에서 기존 건물의 전면공간을 활용하여 공공공간을 확보방안 제시하고 있으며, 「생활권 공공공간에서의 여가

활동 활성화 방안(윤주, 2009)」은 생활권 공공공간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여 일상생활과 밀착된 여가공간을 확대 및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이제까지 공공에서 주도한 물량 위주의 공공공간 공급정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공공공간의 수요파악 및 조성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민과 관이 협력적으로 공공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으로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상생활과 밀착된 공공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도시의 공공공간 조성에 참여해 왔던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실제 조성과정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조성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공간 유형이나 특성에 따른 전략과 세부적인 실천방향 등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제2장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에 대한 이해

1.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개념과 가치
2.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유형

### 1.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개념과 가치

#### 1)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개념

##### □ 유사 개념 검토

생활권 공원녹지, 생활권 옥외 여가공간, 생활권 공공공간 등 생활밀착형 공공공간과 유사한 개념들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다루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생활권’이란 행정구획에 구애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범위로, 일반적으로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일련의 행동권역을 의미한다. 생활권은 보통 인구규모 및 공간 크기에 따라 도별로 이동가능한 기초생활권(소생활권, 근린생활권), 몇 개의 기초생활권이 합쳐진 지역생활권(중생활권), 그리고 몇 개의 지역생활권이 합쳐진 도시생활권(대생활권)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근린생활권은 페리의 근린주구이론에서 언급한 근린주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근린주구는 초등학교 하나가 유지되는 반경 300~400m정도이며, 규모가 큰 상가와 유치원이 배치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은 도시생활권의 기반녹지로서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를 생활권 공원녹지라고 정의하였다. 즉, 이용자들이 근린생활권에서 실제로 접근하기 용이하고 자주 이용하는 녹지를 포함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 그 대상은 공유지로서 생활권 공원, 광장, 공공공지, 사유지로서 조경녹지, 공개공지, 특수 공간녹화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문화광관연구원(2007)은 생활권 거주지역 내에서 일상적으로 접근하여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옥외여가공간을 생활권 옥외 여가공간으로 정의하였는데, 이 개념은 공간의 성격상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에서 조성, 관리하는 공적인 공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광관연구원(2009)은 생활권 공공공간을 생활권 공원녹지나 생활권 옥외여가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근린생활권 내에 위치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목적으로 하며, 24시간 공공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6)은 도시소공원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인 도시공원과 달리 규모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소규모 공원, 수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공원, 공원의 용도가 이용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쓰임을 가진 공원, 누구나 시간 제약없이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간, 도시 내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유병림(1996)은 소공원을 한정된 도시 공간 속에서 지가가 높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생한 공원의 한 형태로 정의하였다. 즉, 도시소공원은 시민의 수요충족과 녹지의 확보(혹은 쾌적성 제고)라는 공원의 원래 개념에 효율적 토지이용이라는 경제적 개념이 혼합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경제적 공간”이라고 보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공원의 변화가 가능하고, 돈이 적게 들어 조성이 용이하며, 면적이 좁아 공간의 주제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공간으로 설명하였다.

#### □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개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사 개념들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을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이 위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기존의 연구에서 살펴본 생활권 공공공간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며, 공간의 특성은 유병림이 제시한 소공원과도 유사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좀 더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활밀착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 2)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가치

### □ 공공공간의 가치

좋은 공공공간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영국 CABE는 *The Value of Public Space*(2004)를 발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공간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sup>12)</sup>

먼저 도시 재개발시 높은 수준의 공공공간이 포함되어 있는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동시에 투자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비만은 식습관 못지않게 운동 부족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육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공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에서 머물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또 다른 가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하여 인간관계, 사회성, 도덕성, 인지능력 등을 배울 수 있다. 급격한 도시화는 과거에 비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외부학습 기회를 축소시켰는데, 마을과 학교에 놀이 및 스포츠 활동을 위한 공공공간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큰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되는 공공공간은 항상 사람들을 머물게 하므로 결국 이것은 자연스럽게 범죄를 감시하는 효과를 낳아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 다음은 사회적 통합의 기능으로,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의 경우 공공공간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은 물론이고 운동, 놀이, 축제 등을 통하여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좋은 공공공간은 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여 차량 이용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가치로, 녹지를 가진 공공공간은 도시 내 환경적 부조화를 해결하며, 동시에 야생동물과 곤충의 서식처 역할을 함으로써 생태계 복원에 큰 역할을 한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의 PPS는 도시에서 공공장소(public place)의 중요한 역할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sup>13)</sup>

---

12) 이상민 외(2008), 「도시 공공공간의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정립 및 현황조사 연구」, pp.25-26.

13) PPS(2000), *How to Turn a Place Around : A Handbook for Creating Successful Public Spaces*,

먼저 공공장소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름답고 유명한 도시들은 반드시 멋진 공공장소를 가지고 있다. 뉴욕의 록펠러 센터, 파리의 에펠탑, 상젤리제 거리, 베니스의 산 마르코광장, 뉴욕의 센트럴 파크, 산 안토니오의 마이애미 해변 등이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장소들이다. 이러한 장소들은 그 도시의 정체성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다음은 장소의 경제적인 측면이다. 예를 들어 공원은 도시의 지가에 많은 영향을 준다. 브라이언트 파크, 센트럴 파크, 프로스펙트 파크, 리버사이드 파크 주변의 부동산은 뉴욕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또한 사람들이 걷고 모이고 쇼핑할 수 있는 가로를 조성하는 것은 도시나 마을에서 장소만들기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된다. 좋은 장소는 환경적으로도 유익하다. 공공장소는 자동차 이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수변공간, 어느 정도 양호한 녹지는 자연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여주고 다양한 생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좋은 장소는 문화적 활동의 배경이 된다. 공공장소는 종종 사람들에게 무료로 예술을 접하거나 색다른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영국 CABI Space는 *Making the Invisible Visible : The Real Value of Park Assets*(2009)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도시공원과 녹지공간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로 측정하였다.<sup>14)</sup> 먼저 경제적 가치는 좋은 도심녹지공간은 관광객과 고객, 고용인 투자를 끌어들이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진하고 지역에 긍정적인 경제적 이윤을 제공한다. 특히 CABI Space의 보고서 *Does Money Grow on Trees*는 잘 계획되고 관리된 공원과 광장인 인근 부동산 가치 상승에 34%까지 상승효과를 마치고 평균적으로 5%의 상승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관리가 잘 된 좋은 도심녹지공간의 접근은 신체활동과 긍정적인 정신적인 행복, 건강한 아동기발달의 촉진, 좋은 녹지공간은 보다 나은 수준의 커뮤니티 응집력과 이웃과의 연대감, 소속감을 배양한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적 가치는 녹지공간 네트워크는 복합적인 환경적 혜택을 제공하고 도시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고 이를 경감하는데 도움을 주며, 결국 이것은 생물 종 다양성을 지지하고 지표수를 흡수하고 관리하며 도심열섬화를 완화하고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고 하였다.

---

pp.13-15.

14) Nicole Collomb(2010), *Value of Urban Park*, pp.38-45.

이러한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상민외(2008)는 좋은 공간환경을 만듦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교육적 측면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좋은 공간환경을 통해 도시는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여 도시의 경쟁력이 향상됨은 물론이고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도시의 경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둘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좋은 공간환경은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사회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으며, 범죄감소 및 예방, 시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통해 도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문화적인 측면에서 좋은 공간환경은 도시 또는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도시에서 역사·문화 거점으로서 공간을 형성하고 여가와 축제의 장소를 제공하여 사람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시 내 건강한 녹지를 확충하여 도시의 공기 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이용 감소와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증가로 대기오염과 소음도 줄일 수 있으며, 도심 생태계 또한 복원할 수 있다.

마지막 교육적 측면에서 좋은 공간환경을 통해 공공성을 증진시키고 시민의식을 향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간환경을 역사·문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좋은 공간환경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 □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가치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도시의 공공공간이 가지는 가치들을 모두 갖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이상민외(2008)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도 일반적인 공공공간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교육적 가치를 기본적으로 갖음을 전제로 한다.

이 다섯 가지의 중요한 역할과 가치 이외에도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인구가 밀집되어 공공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형평성(equity)라는 중요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공간은 어느 정도 양적인 측면에서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기존 주거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지역적으로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 따라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도시에서 이용되지 않거나 버려진 공간들을 활용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공간의 이용 기회와 혜택을 줄 수 있다.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공공공간의 공급에서 소외된 지역에 공간을 공급하는 형평성이라는 가치와 함께 일상적 가치라는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항상 주변 가까이에 있어서 그 가치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많은 가치와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 생활주변의 작은 공간들의 활용도 이러한 일상적 가치를 환기시켜 지역 또는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특히 현대 도시에서 공공공간의 역할은 도시공간에서 서로 이질적인 부분들을 기능적, 시각적으로 연결시키고, 건축물들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개방공간으로서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전파하는 매개공간으로서, 그리고 도시문화의 가치를 상징하는 역동공간으로서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공공공간의 개념적 정의에서도 “공공에게 개방되어 열려있는 개방성, 공공에게 편익과 이익을 제공하는 공공성,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촉발시키는 매개성”<sup>15)</sup>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공공공간이 갖는 개방성과 공공성, 매개성이라는 속성은 결국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이 갖고 있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마을만들기의 촉매 또는 공간 거점으로서의 가치와 가능성을 설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설명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교육적 가치와 형평성이나 일상적 가치, 마을만들기의 공간 거점으로서의 가치 등은 결국 좋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조성이라는 것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치들은 서로 분리되어 성립될 수 없다.

---

15) 이상민 외(2007), p.33.

### 3)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특성

CABE Space에서 발간한 *It's Our Space*(2007)는 공공공간을 향상시키기 위해 커뮤니티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북으로, 잘 만들어진 공공공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정리하고 있다.<sup>16)</sup>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반대되는 다양한 변화에도 견디고 오래도록 유지되고 지속되는 공간
- 특성과 차별성(character and distinctiveness) : 독특한 개성과 차별성 있는 공간
- 명료함과 위요감(definition and enclosure) : 경계가 분명하고 위요감 있는 공간
- 연속성과 접근성(connectivity and accessibility) : 주변과 연계가 잘 되어 있고 접근성이 좋은 공간
- 식별성(legibility) : 쉽게 인지되고 이해되는 장소
- 적응성과 견고성(adaptability and robustness) :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견고한 공간
- 포괄성(inclusiveness) : 다양한 사람과 기능 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장소
- 생물의 다양성(biodiversity) :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

또한 미국 PPS는 *How to Turn Place Around*(2000)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좋은 장소를 만드는지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좋은 장소를 조성하기 위한 기준이며, 곧 장소의 '성능평가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sup>17)</sup>

PPS에서 제시하고 있는 좋은 장소의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접근과 연계(access & linkages)이다. 좋은 장소에서 접근성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장소와 관련된 요소가 시각적, 물리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가로와 건물이 맞닿는 경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두 번째 안락함과 이미지(comfort & image)이다.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는 그 자체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안락함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앓을 공간이 많아 사람들에게 활발히 이용될 때 만들어진다. 특히 안락한 장소에는 여성과 아이들이 이용이

---

16) CABE Space(2007), p.16.

17) PPS 공식홈페이지 [http://www.pps.org/info/bulletin/what\\_is\\_placemaking](http://www.pps.org/info/bulletin/what_is_placemaking)

많으므로 안락함과 이미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아이들의 이용률을 측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는 이용과 활동(uses & activities)으로, 사람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건물 용도와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데, 좋은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은 사람들이 공간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반대로 건물의 기능과 용도가 공간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활동은 사라지고 공간의 활력도 없어지게 되므로 건물의 용도와 기능은 장소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네 번째 사회성(sociability)이다. 좋은 장소에서는 사람들의 북적임, 친구와 이웃과의 만남 등 적극적인 활동들이 나타난다. 사람들의 교류와 활동은 장소가 갖는 특성을 강화시키고, 장소성은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상민외(2008)은 좋은 공간환경이 갖는 특성 또는 좋은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열린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access & linkage)이다. 이러한 공간은 인지하기 쉬운 공간(readability),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accessibility & convenience), 가까이 있어 쉽게 접근가능한 공간(proximity),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continuity & connectedness)의 특성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안전성과 편안함(safe & comfort)이다. 이것은 친근한 공간(friendliness),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sittability & relaxation), 걷고 싶고 걷기 편한 공간(walkability), 장애인·노약자 등의 이용을 배려한 공간(universality)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이용과 활동(use & activities)으로, 도시 여가활동의 무대가 되는 공간(urban recreation), 흥미를 유발시키는 공간(attractiveness & enjoyment),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가능하며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diversity)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정체성있는 이미지(identity & image)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history & education), 문화적 자산으로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pride), 이야기 거리가 있는 공간(story telling), 아름다운 외관으로 예술적 가치를 지닌 공간(beauty & charm), 품격높은 디자인으로 계획되고 시공된 공간(design & detail)이 주요한 속성들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ownership & management)이다. 조성 및 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애착이 있는 공간(participation), 경제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간(affordability & maintenance), 오래도록 지속가능한 공간(sustainability)이야말로 좋은 공공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민외(2008)의 후속연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연구에서는 좋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이 갖추어야 할 특성을 앞서와 같이 열린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안전함과 편안함, 다양한 이용과 활동, 정체성이 있는 이미지,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2.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유형

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이 위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의 주민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소공원이나 쌈지공원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제도적인 틀 속에서 조성된 공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이용되는 공간들도 많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2-1]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유형

구 분	유 형
도시기반시설 관련	생활권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공공공지, 하천주변 공간, 녹지(연결녹지, 경관녹지, 산책로 등), 공공시설 주변공간, 사회기반시설 하부공간
개별건축물 관련	공개공지
기타 도시 유희공간	도시 자투리 유희공간, 도시 텃밭, 골목길, 기타(공공주택 조경시설, 보도 내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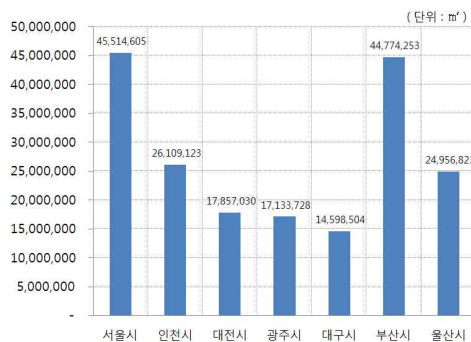
[그림 2-1]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유형

## 1) 도시기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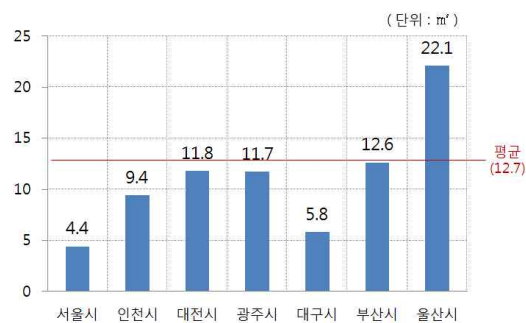
### ① 생활권공원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공공공간은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에 속한다. 특히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서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생활권공원은 다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구분된다. 이 시설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들이기 때문에 주로 공공에서 조성하나 최근에는 일부 민간이 참여하여 기존 공간을 개보수하는 등의 사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2010년말 현재 전국에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17,311개소(1,102,920,713㎡)이며, 이 가운데 생활권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16,431개소로, 전체 도시공원의 94.9%, 면적은 637,075,664㎡로 전체 도시공원의 57.8%에 해당한다.<sup>18)</sup> 또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의 생활권공원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생활권공원 면적은 서울과 부산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인구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은 서울시가 4.4㎡, 대구시가 5.8㎡, 인천시 9.4㎡ 등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가 전국 평균인 12.71㎡에도 못 미치고 있다.<sup>19)</sup> 생활권공원은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도보 10분)에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공원으로, 지역 생활환경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공간이므로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가 타 지역에 비해 도시공원의 서비스 또는 실제 지역 생활환경의 질이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을 전체 생활권공원 면적은 가장 넓으면서도 인구 밀도가 높아 1인당 면적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대도시 생활권공원 면적현황  
출처: 국토해양부(2011)



[그림 2-3] 대도시 생활권공원 1인당면적  
출처: 국토해양부(2011)

18) 국토해양부(2011), 제1과제, p.9.

19) 국토해양부(2011), 제1과제 p.12.

생활권공원의 구체적인 세부유형과 설치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2-2] 생활권공원 세부유형 및 설치규정

구분			특징		설치기준	위치 및 규모
소 공 원	근 린 소 공 원	도시형 근린 소공원	근린생활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공유되는 정 원 개념의 소규모 휴식공간	주거지역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터, 나대지 또는 녹지대 등을 활용한 공원	·제한없음 ·보호수, 정자목을 활용하거나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터 등의 소규모 토지도 소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설치규모 : 제한없음 ·근린공원의 설치 규모를 감안하여 1만㎡ 미만으로 할 수 있음
		전원형 근린 소공원		기존 도시지역 외곽지역 혹은 군단위 지역에 조성되는 공원으로써 마을 보호수나 정자목과 같은 마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도 심 소 공 원	광장형 도심 소공원	고밀도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지역에 거주자 이외에 그 주변지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공간 또는 녹지공간	고층 건물 주변의 자연공간으로서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며, 주로 간선 도로변의 고층 건물군 사이에 조성되는 것으로 시설중심의 공원		
		녹지형 도심 소공원	이용의 측면보다 녹지로서 보는 측면이 강조되는 소공원으로서 화초류 또는 보행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수경시설 위주로 조성되는 공원			
어린이공원			근린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공간		제한없음	·유치거리 : 250m 이하 ·설치규모 : 1,500㎡ 이상
근 린 공 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주로 인근(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제한없음	·유치거리 : 500m 이하 ·설치규모 : 1만㎡ 이상
	도보권 근린공원		주로 도보권 안(반경 1,000m 이내)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제한없음	·유치거리 : 1,000m 이하 ·설치규모 : 3만㎡ 이상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	·유치거리 : 제한없음 ·설치규모 : 10만㎡ 이상
	광역권 근린공원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	·유치거리 : 제한없음 ·설치규모 : 100만㎡ 이상

※출처 : 건설교통부(2007.1)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발췌 정리

### 홍대 주차장 거리공원

위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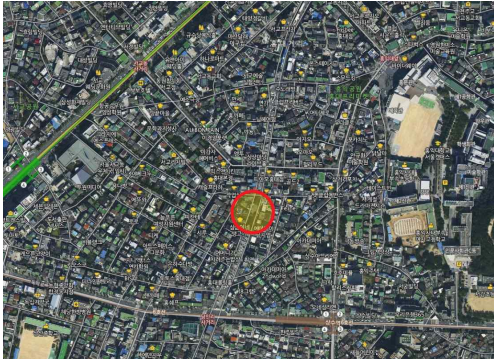
면적: 약 10,000m<sup>2</sup>

시설, 용도 : 정자벤치, 화장실, 컨테이너박스, 쓰레기통, 체육기구

부지특성

- 홍대주차장거리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 공원
- 체육기구, 정자벤치, 화장실 등이 배치 조성되어있지만 관리는 잘 되지 않음
- 상업거리 사이에 놓여있어 심터로는 잘 활용되나 쓰레기 등 경관저해요소 많음

기타특성 : 수목정리가 잘 안되어 있어 인지는 어려우나, 접근은 용이한 편



### 관악구 보래매동 삼육어린이 한평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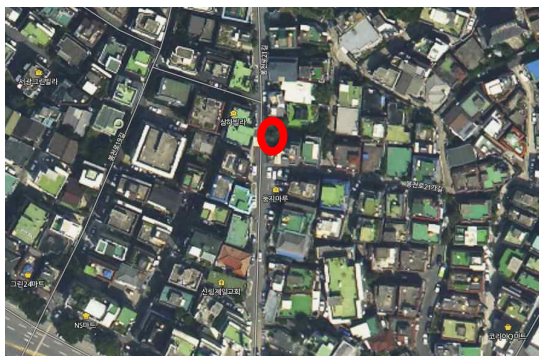
위치: 국사봉 기슭에 형성된 다세대 및 빌라형 주거지 내 위치한 어린이공원

시설, 용도 : 어린이공원이지만 시설은 없으며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음

부지특성 : 건물사이의 작은 공간으로 규모가 작아 어린이를 위한 별도시설은 없음

담당자 :

- 도시연대 02-735-6046 <http://www.dosi.or.kr>
- 한평공원 카페 : <http://cafe.naver.com/intopark>



## ② 공공공지

공공공지는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으며(제59조), 공공공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다.(제61조)

최근 서울시는 도심과 주택가 인근에 숨어 있는 공공공지를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 및 녹지공간 변경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일시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공공공지 57개소 14만1000m<sup>2</sup>(서울숲 면적의 3분의 2 규모)를 찾아 먼저 공원과 녹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2009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공공공지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실질적으로 공원이나 녹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공원·녹지 관리대상에서 누락돼 왔고, 구체적 관리 기준도 없어 용도 변경되거나 폐지 후 개발되기 일쑤였다. 이에 서울시는 전체 공공공지 691개소 66만1000m<sup>2</sup> 중 공원·녹지 기능을 하는 공공공지를 찾아, 시민들의 영구적 휴식 및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공원이나 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sup>20)</sup>

공공공지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공공공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1996년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공공공지의 조성 기준 및 점용허가와 유지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용도도 관련계획 및 주변 현황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관형 공공공지, 이용형 공공공지, 생태형 공공공지, 환경·완충형 공공공지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남시를 제외하고는 공공공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 ③ 하천주변 공간

국내 도시 대부분이 하천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하천주변의 공간들은 중요한 도심 공공공간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하천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방재시설에 해당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

20) 2009년 12월 16일자 한국주택신문



법적으로 하천이라고 하면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는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하천의 주변지역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지만 이 지역은 관련된 법과 규정이 엄격하고 복잡하다. 먼저 「하천법」에서는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해 보전지구<sup>21)</sup>, 복원지구<sup>22)</sup>, 친수지구<sup>23)</sup>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sup>24)</sup>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생태하천조성계획·설계요령」(2009. 5.12제정,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을 제정하여 하천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환경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시설계획의 기본방향과 세부 시설의 설계요령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하천의 유형별로 하천 전체의 연속성과 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각 지구를 자연생태공간, 학습공간, 운동공간, 위락공간, 휴게공간 등으로 구분하여<sup>25)</sup> 지구별 도입가능한 공간을 규정하였다.

21)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없이 보전과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지구

22)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 역사, 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해 복원이 필요한 지구로, 현재는 하천구역이 아니나 과거에 하천이었던 폐천, 구하도 및 강변습지(배후습지) 등도 포함

23) 인구 밀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지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천의 고유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필요한 지구

24) 하천법 제44조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에 관한 조항

25) 설계요령 제10조에서는 각각의 공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자연생태 공간 : 원칙적으로 사람의 간섭을 배제하고, 이용보다는 자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공간으로 인간에 의한 훼손이 없는 구간, 생태적으로 중요한 습지, 여울과 웅덩이가 발달한 자연하천을 포함한다.
- 학습공간 : 하천공간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교육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학습 내용은, 주로 생태계를 통한 자연학습과 문화재를 통한 역사문화학습을 포함하며, 다양한 야생식물보다는 야생초를, 외래식물 대신에 향토식물을, 인공연못 대신에 자연연못을, 인공포장보다는 식물로 피복된 작은 길 등을 이용하여 자연미를 극대화시키도록 한다.
- 운동공간 : 이용자들의 체력증진과 건강보건과 운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유치거리에 따라 광역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와 인근마을의 근린공원처럼 이용되는 경우로 구분하며, 일정규모 식생이 제거된 평탄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인근 배후지에 운동공간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 위락공간 : 하천의 본격적인 수상위락 및 수변위락 활동을 통하여 친수성을 증대시키는 공간으로, 수상위락공간과 수변위락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 휴게공간 : 이용자들의 하천에 대한 정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하천에 대한 위락적·정서적 만족감을 고취시키도록 계획한다.
- 놀이공간 : 여러 명 단위의 모임이나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회성이 높은 공간으로 계획한다.

[표 2-3] 하천의 지구별 계획기준과 도입가능 공간

구분	계획기준	도입가능공간 ●허용/○선택적 허용
보전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호안으로 변경(또는 조성), 야생동물 서식지 등의 조성, 수질정화 및 야생동물 서식처 기능을 갖는 수변식생대 등의 조성, 수리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친환경 공법을 적용한 시설의 조성, 모래톱, 강변 습지 등 미소서식처의 조성 복원 등의 범위 내에서 계획</li> <li>전지구에 미치는 외부의 환경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완충지구를 설정하여 자연하천의 고유 특성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시설과 하천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시설의 도입 검토</li> </ul>	자연생태공간 ● 학습공간 ○
복원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도 내 수리구조, 지형(구하도와 강변습지 등 원지형), 수환경(자정 능력), 생태(생태건전성, 종다양성, 서식처, 생태통로), 미관, 역사, 문화, 선착장 등이 복원 대상</li> <li>복원계획 수립 시 과거의 상태와 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 생태, 이·치수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li> </ul>	자연생태공간 ● 학습공간 ○
친수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천의 환경기능의 보존 및 회복, 하천과 인간생활의 바람직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li> <li>친수경관지구 : 주민정서 함양, 교육, 체험기능을 고려하여 생태 관찰시설, 야생초지, 생태수로, 천변 습지 등을 우선 계획</li> <li>친수이용지구 : 하천환경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력단련시설로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과 자전거 도로 보트장 등 여가시설 검토</li> </ul>	중 소 도 시 자연생태공간, 학습공간, 위락공간 ● 운동공간, 휴게공간, 놀이공간 ○
		대 도 시 자연생태공간, 학습공간, 위락공간, 운동공간, 휴게공간, 놀이공간 ●

※출처 : 이상민(2009) “4대강 살리기에 따른 하천경관 조성방향”, 『국토』, 8월호,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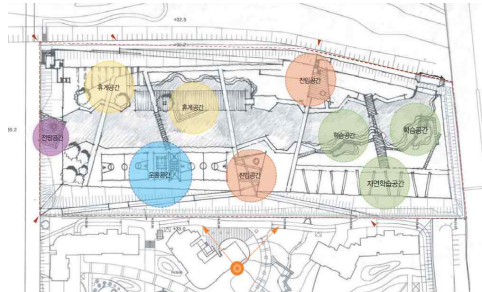
#### 판교 저류지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은하저류지), 삼평동(뫼들저류지), 운중동(운중저류지)  
시설, 용도: 자연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휴식공간 제공  
계획특성 :

- 운중천과 인접하여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연계하,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보행교와 수변 조망공간 조성
- 포장부에 녹지를 최대한 인입하여 저류지와 조화되는 자연형의 경관을 연출

#### 기타특성

- 설계 완료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및 지자체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설계자와 시공자 사이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함





#### ④ 녹지 관련

녹지란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에서는 녹지의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하고 있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이고,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연결녹지는 도시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설치기준은 각 녹지유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완충녹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통행이나 이용의 기능이 없으나 경관녹지나 연결녹지는 사람의 통행이나 휴게공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세 가지 녹지 유형 중 공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경관녹지와 연결녹지이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녹지활용계약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시민이 이용가능한 공원녹지 확충을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고, 시는 해당 토지의 유지와 활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강동 그린웨이

위치: 서울시 강동구

길이: 25km (사하남 IC입구~일자산~명일방죽삼거리~근로공원~고덕산~한강방~류자구~성내천~강동대로~사하남 IC입구)

시설, 용도:산책로, 휴식공간, 보도, 조경시설, 자전거도로, 벤치

부지특성: 도심환상형 그린웨이 구축, 생활주변에서 산책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함

기타특성 : 강동구에 있는 주요 공원 및 녹지를 연결하여 자연생태계를 네트워크화하고자 함



## ⑤ 공공시설 주변 공간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옥외 공간 및 주변공간은 일상적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많으므로 공공공간으로 활용가능성이 높다.

### 석수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위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1042 / 면적: 약 2,000㎡

시설, 용도 : 주민의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 어린이들의 놀이 및 교육 공간

부지특성 :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함. 학교 담을 허물고 공공공간으로 이용

기타특성 : 휴식 또는 녹지공간을 마련하기 힘든 주택 밀집지역에서 학교 담장허물기를 통해 공간을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



## ⑥ 사회기반시설 하부공간

고가도로나 교량 같은 사회기반시설 하부공간은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기 쉬운 대표적인 유허공간이다.

### 외왕 고가교 하부공간

위치: 의왕시 내손동 계원대 사거리 일대 / 면적: 약 12,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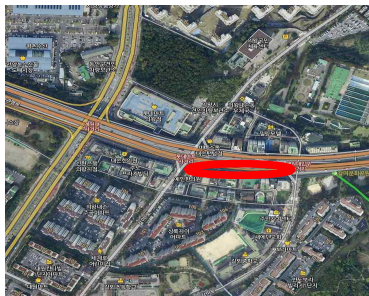
시설, 용도 : 보도, 소규모 조경시설, 자전거도로, 벤치

부지특성 :

- 고가도로 아래에 조성된 보행가로, 계원디자인예술대학과 연계한 예술의 거리가 볼거리를 제공함

- 공원, 주차장, 아파트 단지내부와 연결되는 육교들이 설치되어 있음

- 계원대학 건물, 계원대학 학생 작업 공간 등과 의왕시에서 만든 예술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어 보행자들에게 넓은 보행공간과 휴식공간 등을 제공함



## 2) 개별건축물 관련

### ① 공개공지

공개공지는 사유지 내의 외부공간 중 일반시민의 보행과 휴식을 위해 개방된 공간으로, 「건축법」 제43조에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空地: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공지는 건축법 및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개별건축물 신축에 따라 건축주체가 조성하고 이에 대한 사항은 건축심의시 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신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건축물에는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하면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며, 서울시는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대지 내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5,000㎡, 10,000㎡, 30,000㎡에 따라 차등화된 공개공지의 필요조건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공개공지는 주로 도심·부도심·지역지구중심·역세권·주요간선도로변에 분포하며 그 전체면적이 약584,500㎡이다.<sup>26)</sup> 수치로는 크지 않지만 입지를 고려해 볼 때 보행이 집중되는 가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중요한 공공공간이라 할 수 있다.

#### 흥국생명 신문로 빌딩 공개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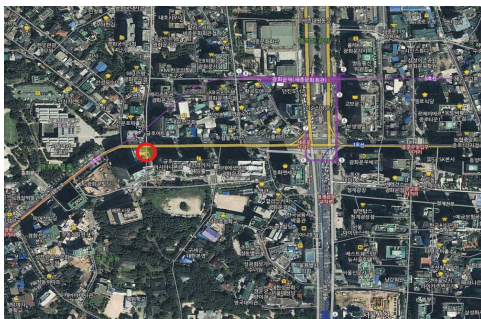
위치: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 면적: 약 1,700㎡

시설, 용도 : 예술작품, 벤치, 버스정류장

부지특성 :

- 새문안로의 업무빌딩 중 흥국생명빌딩 앞의 공공예술작품과 공공디자인 벤치가 조화를 이룸
- 접근이 용이하여 이용도가 높으며 미적경관도 뛰어남.
- 공간의 시각적 개방감도 좋음

기타특성 : 조나단 브로프스키의 예술작품(망치질하는 사람)과 벤치 공공디자인이 유명함



26) 여혜진 외(2009), 「도시 준공공공간의 보행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17.



### 3) 기타 도시 유희공간

#### ① 도시 자투리 공간

도시에는 이용되지 않거나 이용하기 애매한 자투리 공간이 많으므로 지역주민의 요구 등을 수용하여 이러한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울곡경로당 한평공원

위치: 서울 관악구 신림6동 321-12 / 면적: 약 40m<sup>2</sup>

시설, 용도 :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동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부지특성:

- 울곡경로당은 오래된 단독주택지 내에 있으며 곧 재개발될 지역으로 구청에서 제대로 된 유지·보수 및 필요한 공간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건물 옆과 앞의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한평공원을 조성함

기타 : 경로당 건물 앞과 옆의 자투리공간을 이용하여 조성



#### ② 도시텃밭

최근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텃밭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 이를 위한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도시농업과 도시텃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 주로 도시 유희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도시농업 및 텃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도시텃밭은 향후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주거공간의 구성원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공동주택’을 목표로, 앞으로 공동주택 등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시켜 내 집

앞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sup>27)</sup>

현행 주택건설 기준 규정에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서울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조경기준」 등에 의한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할 수 있도록 2011년 7월 중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sup>28)</sup> 대신 법령 개정 전까지는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시 법정 의무면적<sup>29)</sup>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에 공동텃밭을 도입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표 2-4] 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관련 조례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일	소관부서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04.15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서울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1.04.01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서울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09.28	주민자치국 행정지원과
서울 금천구	서울특별시금천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 조례	2011.04.18	
서울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0.12.30	맑은환경과
서울 강동구	서울특별시강동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 관한 조례	2010.11.10	기획재정국 기획경영과
광주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	2011.03.02	경제산업정책실 생명농업과
광주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2011.09.26	복지지원국 경제과

27) 서울시 보도자료, 2011, 6.29(수)

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2항 “조경시설·옹벽·축대·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조경시설(텃밭을 포함 한다)·옹벽·축대·주택단지안의 도로”로 개정하고 조경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5호(2009.9.21)】 제3조 3항 조경시설의 정의 부분에 ‘텃밭’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다.

29) 현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의무 조경시설 면적은 대지면적의 5~15%이상이며, 주택법 등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의무 조경시설 면적이 대지면적의 30% 이상이다.

### 강동구 도시 텃밭

위치: 서울 강동구 일원 (둔촌동, 암사동, 고덕동, 강일동 일대)

시설, 용도 : 도심 내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텃밭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방식

부지특성 :

- 강동구 내 친환경 자연자원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조성
- 강동구 내 무단 점유된 국, 공유지를 개간해서 사용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하고, 이후에 공공시설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는 방안도 마련됨

기타 : 도심 내 유휴공간과 자투리공간을 이용하여 조성



### ③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시설

공동주택단지와 관련된 공공공간으로는 단지계획시 조성되는 조경시설이 있다. 그러나 단지 내 공간으로 사적 영역에 속해 단지 외부에 사는 주민들의 접근이나 이용이 어려운 곳들도 많다.

### 안산 네오빌아파트 진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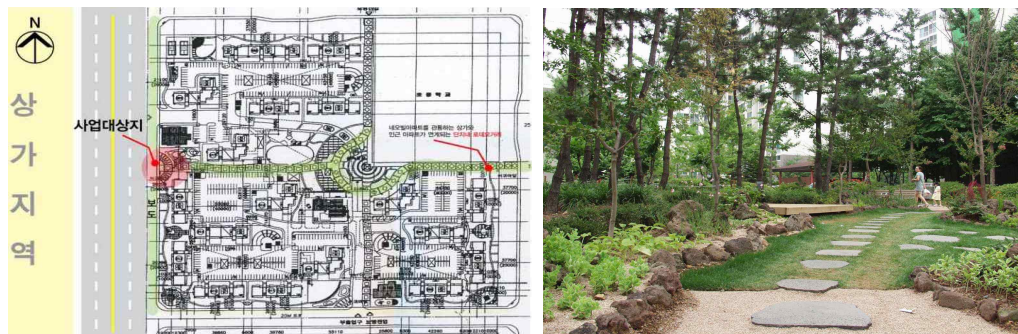
위치: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7번지

시설, 용도 : 주민의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

부지특성

- 단지 입구의 담을 허물고 조경시설과 함께 공공공간을 조성함
- 아파트를 관통하는 상가와 인근 아파트가 연계되도록 단지 내 보도를 설계

기타특성 : 전형적인 아파트 단지 구조에서 담을 허물고 조경시설을 도입하여 아파트가 갖고 있는 폐쇄성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심리적, 사회적 벽을 해소한 사례로 평가됨



## 제3장 국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실태조사

1. 조사개요
2. 대상지별 실태조사 결과
3. 실태조사 종합 및 시사점

### 1. 조사개요

#### □ 조사대상 및 방법

공공공간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도시, 수도권, 지역 중소도시에 따라서 각각 공공공간의 조성실태(수요, 공급) 및 현황(사업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규모별로 각각 서울특별시, 성남시, 영주시를 선정하였는데, 먼저 공급현황 파악을 위하여 구단위(혹은 동단위)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을 산술 계산하여 평균보다 과도하게 부족한 지역을 도출하고, 현행 법 상 공공공간의 범위로 관리되고 있는 공원 및 녹지로 대상을 한정하여 공원의 최소공급단위인 어린이공원 유치거리(250m) 범위 안에서 공공공간 소외지역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급 및 배치에 따른 도시차원의 분석을 통하여 소외지역으로 도출된 지구 및 지역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조사하여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표 3-1] 현황조사 대상지 개요

구분	대도시	수도권	지역 중소도시
도시권역	서울특별시	성남시	영주시
동단위 지역	신림동 일대	수진2동 일대	영주1동 일대 (혹은 휴천동)

\*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현황조사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진행됨

#### □ 조사범위 : 도시권역과 지역권역으로 구분

‘도시권역’은 도시 규모에 따라서 시사점 도출하기 위하여 대도시, 수도권, 지역 중소도시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각각 서울, 성남, 영주를 사례지로 선정하였다. ‘지역권역’은 도시 규모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특히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단위에서 공급 및 배치가 부족한 곳으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 □ 조사내용

지역현황분석은 2장에서 검토하였던 공공공간의 유형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관련 공간에 대한 현황조사와 개별건축물 관련 공간에 대한 현황조사, 기타 도시 유희공간에 대한 현황조사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조사된 결과는 맵핑작업과 현장사진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GIS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고, 개별건축물 관련 사항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 2. 대상지별 실태조사 결과

### 1) 대도시\_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1동 일대

#### ① 조성현황

##### □ 공간시설 현황

공원은 총 2,130개소로, 대부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주재공원도 일부 조성되고 있다. 녹지는 970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표 3-2] 현황조사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 현황\_서울특별시

공원		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2,130개소 (도시자연공원 20 근린공원 498 어린이공원 1,226 묘지공원 4, 체육공원 4, 소공원 327, 역사공원 8, 문화공원 32, 수변공원 10, 조례가정하는공원 1)	148,485,476m <sup>2</sup>	970개소 (완충녹지 523, 경관녹지 338, 연결녹지 109)	5,991,231m <sup>2</sup>

※출처: 도시계획현황 중 공원 및 녹지(2010)

##### □ 배치 및 공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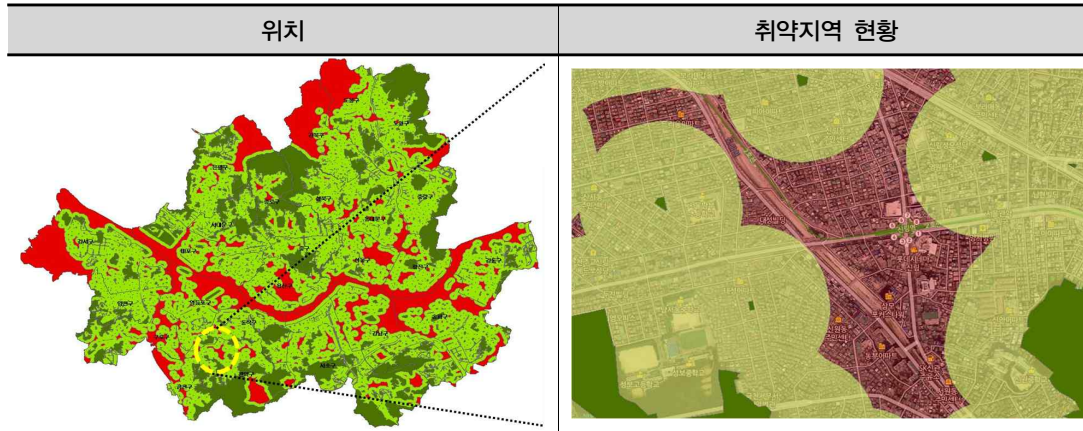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의 공원 및 녹지는 배치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고 있으나, 1인당 도시공원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관악구, 영등포구 등이 평균보다 부족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3-3] 배치 및 공급현황\_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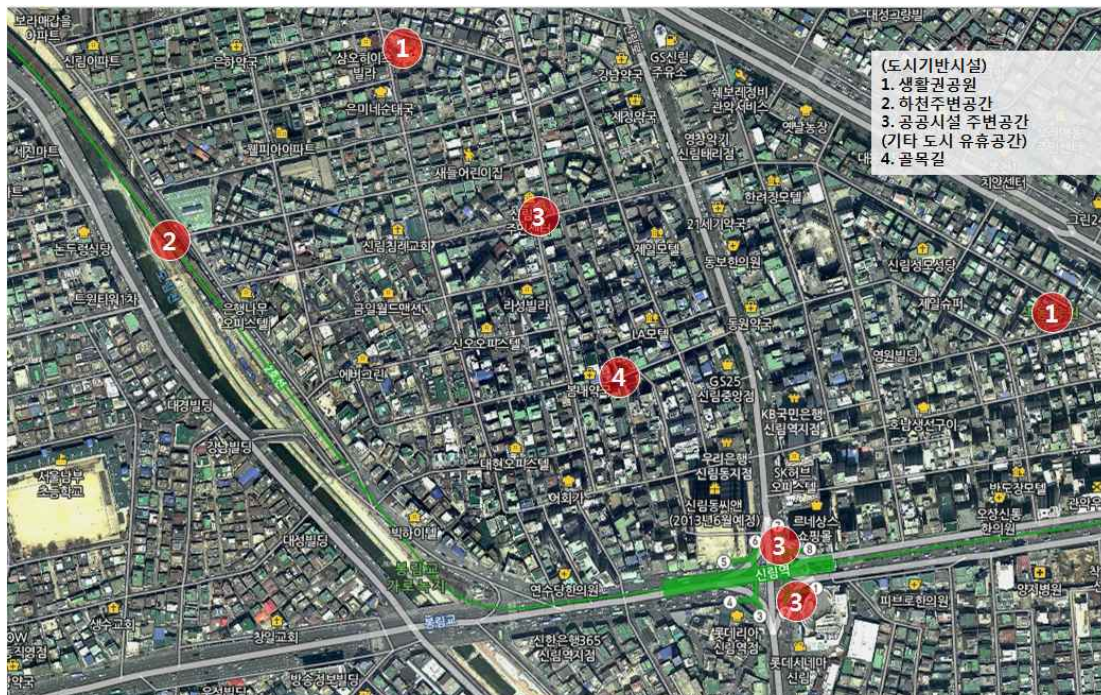
공원 및 녹지 배치	1인당 도시공원 공급 현황

## □ 취약지역 위치 및 현황

[표 3-4] 취약지역 위치 및 현황\_서울특별시



## ② 공공공간 유형별 조성실태



[그림 3-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1동 일대 공공공간 전체 현황도



도시기반시설 : 생활권공원

조성 및 관리주체 : 관 주도

사업방식 : 지자체 일반사업

① 생활권공원



공공공간 특성 평가		* O : 양호, △ : 중간, X : 불량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O	인지하기 쉬운 공간	열려있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공간	쉽게 접근가능한 공간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
안전성과 편안함	O	친근한 공간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걸고 싶고 걷기 편한 공간	장애자,노약자의 이용을 배려한 공간
다양한 이용과 활동	△	도시여가활동의 무대	흥미를 유발시키는 공간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정체성있는 이미지	X	역사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	문화적 자산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	이야기꺼리가 있는 공간	아름다운 외곽으로 예술적가치를 지닌 공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	조성 및 관리과정에 참여	경제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	지속가능한 공간	

종합분석	생활권공원은 일반적으로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안전성과 편리함을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이용을 위한 활동보다는 간단한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정도가 마련되어 있다.
------	--

도시기반시설 : 하천주변공간

조성 및 관리 주체 : 관 주도

사업방식 : 국가·지자체 사업

## ② 하천주변공간



### 공공공간 특성 평가

\* O : 양호, △ : 중간, X : 불량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O	인지하기 쉬운 공간	열려있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공간	쉽게 접근가능한 공간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
안전성과 편안함	O	친근한 공간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검고 싶고 걷기 편한 공간	장애자,노약자의 이용을 배려한 공간
다양한 이용과 활동	X	도시여가활동의 무대	흥미를 유발시키는 공간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정체성있는 이미지	X	역사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	문화적 자산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	이야기꺼리가 있는 공간	아름다운 외곽으로 예술적가치를 지닌 공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O	조성 및 관리과정에 참여	경제적으로 유자관리가 가능	지속가능한 공간	

### 종합분석

하천주변 공간은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인지도가 높고,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범람 등의 위험이 없는 경우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행이나 운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 지역주민의 참여가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운영은 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기반시설 : 공공시설 주변공간

조성 및 관리 주체 : 관+민간

사업방식 : -

### ③ 공공시설 주변공간



공공공간 특성 평가		* O : 양호, △ : 중간, X : 불량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O	인지하기 쉬운 공간	열려있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공간	쉽게 접근가능한 공간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
안전성과 편안함	X	친근한 공간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걸고 싶고 걷기 편한 공간	장애자,노약자의 이용을 배려한 공간
다양한 이용과 활동	△	도시여가활동의 무대	흥미를 유발시키는 공간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정체성있는 이미지	△	역사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	문화적 자산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	이야기꺼리가 있는 공간	아름다운 외곽으로 예술적가치를 지닌 공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	조성 및 관리과정에 참여	경제적으로 유자관리가 가능	지속가능한 공간	

종합분석	<p>공공시설(지하철역) 주변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시설 주변으로 자전거 등이 방치되어 안전성과 편안함은 부족하다.</p> <p>주변지역으로 대규모 상업시설들이 입지하면서 다양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조형물 등을 통하여 예술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p> <p>공공시설(동주민센터) 뒤편에는 김장 등 많은 인원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동단위의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p>
------	---

기타 도시 유희공간 : 골목길

조성 및 관리 주체 : 민간

사업방식 : -

④ 골목길



공공공간 특성 평가		* O : 양호, △ : 중간, X : 불량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O	인지하기 쉬운 공간	열려있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공간	쉽게 접근가능한 공간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
안전성과 편안함	X	친근한 공간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걸고 싶고 걷기 편한 공간	장애자·노약자의 이용을 배려한 공간
다양한 이용과 활동	△	도시여가활동의 무대	흥미를 유발시키는 공간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정체성있는 이미지	X	역사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	문화적 자산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	이야기꺼리가 있는 공간	아름다운 외곽으로 예술적가치를 지닌 공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X	조성 및 관리과정에 참여	경제적으로 유자관리가 가능	지속가능한 공간	
종합분석	<p>골목길은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이 가능하지만, 주택지의 특성상 주차공간으로 대부분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상업지역에는 일부 건축물 사잇공간에 공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유 주체가 매매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p> <p>조사지역 내에는 재래시장이 골목길과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지역이다.</p>				

### ③ 신림1동 일대 공공공간 실태조사 종합

신림1동 일대는 대로변에 면하여 상업시설과 지하철역(신림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림천이 인접하여 지나가고 있다. 도로 이면으로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서 생활권공원, 공공시설 주변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하천주변을 중심으로 녹지, 사회 기반시설 하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도시계획시설인 생활권공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여름에 분수대를 조성하거나 체육시설을 관찰 구청에서 설치하여 장년층들이 활용하도록 하여 ‘다양한 이용과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에 조성된 하천주변에는 1차적인 공간확보로서의 의미는 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타 유휴공간으로는 골목길의 동네슈퍼나 미장원 앞 공간들로,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되며 소극적이지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시설(지하철역) 주변에는 대규모 상업시설이 입지하여 보행자와 이용자를 위한 공공공간을 조성하였다. ‘안전성과 편안함’이 부족하므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동주민센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생활권 공공공간 중에는 향후 이러한 지역차원에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주거지에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은 골목길과 관련한 공간이다. 이들 공간은 길이라는 특성상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길을 따라 다양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주로 상업시설에 의해 행위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현재 주거지에서는 단순한 주차용도로만 활용되어 지역주민들 간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

개별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물 전면공간을 활용하여 녹지를 조성하거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등의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들을 공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2) 수도권\_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일대

### ① 일반현황

#### □ 공간시설 현황

공원은 총 260개소로, 대부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및 소공원이 구성되어 있고, 녹지는 92개소가 구성되어 있다.

[표 3-5] 현황조사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 현황\_성남시

공원		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260개소 (도시자연공원 5, 근린공원 53, 어린이공원 184, 묘지공원 1, 체육공원 3, 소공원 13, 역사공원 0, 문화공원 0, 수변공원 1, 조례가정하는공원 0)	21,823,312 m <sup>2</sup>	92개소 (완충녹지 57, 경관녹지 34, 연결녹지 1)	2,216,530 m <sup>2</sup>

※출처: 도시계획현황 중 공원 및 녹지(2010)

#### □ 배치 및 공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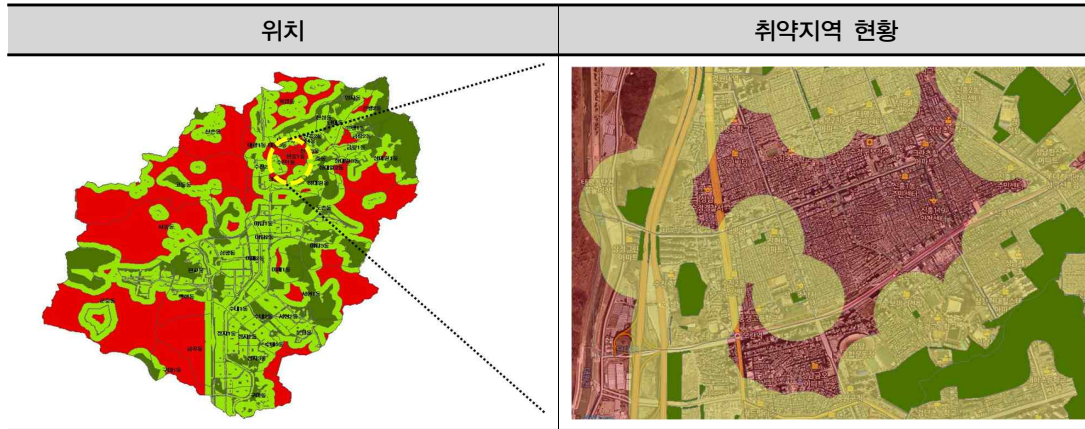
[표 3-6] 배치 및 공급 현황\_성남시

공원 및 녹지 배치	1인당 도시공원 공급 현황



□ 취약지역 위치 및 현황

[표 3-7] 취약지역 위치 및 현황\_성남시



② 공공공간 유형별 조성실태



[그림 3-2]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일대 공공공간 전체 현황도

도시기반시설 : 생활권공원

조성 및 관리 주체 : 관 주도

사업방식 : 지자체 일반사업

# ① 생활권공원



공공공간 특성 평가		* O : 양호, Δ : 중간, X : 불량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O	인지하기 쉬운 공간	열려있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공간	쉽게 접근가능한 공간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
안전성과 편안함	Δ	친근한 공간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검고 싶고 걷기 편한 공간	장애자, 노약자의 이용을 배려한 공간
다양한 이용과 활동	O	도시여가활동의 무대	흥미를 유발시키는 공간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정체성있는 이미지	X	역사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	문화적 자산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	이야기꺼리가 있는 공간	아름다운 외곽으로 예술적가치를 지닌 공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Δ	조성 및 관리과정에 참여	경제적으로 유자관리가 가능	지속가능한 공간	
종합분석	<p>성남시에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0여개소의 물놀이장을 조성하였다. 이들 물놀이장은 탄천주변과 기존의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에 조성하였다. 조성 이후에도 매년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p>				



도시기반시설 : 녹지

조성 및 관리 주체 : 관 주도

사업방식 : 지자체 일반사업

② 녹지



공공공간 특성 평가		* O : 양호, △ : 중간, X : 불량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X	인지하기 쉬운 공간	열려있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공간	쉽게 접근가능한 공간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
안전성과 편안함	X	친근한 공간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걷고 싶고 걷기 편한 공간	장애자,노약자의 이용을 배려한 공간
다양한 이용과 활동	△	도시여가활동의 무대	흥미를 유발시키는 공간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정체성있는 이미지	X	역사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	문화적 자산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	이야기꺼리가 있는 공간	아름다운 외곽으로 예술적가치를 지닌 공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	조성 및 관리과정에 참여	경제적으로 유자관리가 가능	지속가능한 공간	
종합분석	분석 대상지역에 인접한 남쪽 도로인 산성대로와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대가 조성되어 있다. 주거지와는 지형의 고저차가 크고, 인접지역의 골프연습장, 주차장 등으로 인하여 공간적인 연결에는 제한이 있지만, 통과차량의 교통흐름도 활발하지 않은 곳으로 지역의 공공공간으로서 활용가능성이 있다.				

도시기반시설 : 공공시설 주변공간

조성 및 관리 주체 : 관 주도

사업방식 : 지자체 일반사업

### ③ 공공시설 주변공간



공공공간 특성 평가			* O : 양호, △ : 중간, X : 불량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O	인지하기 쉬운 공간	열려있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공간	쉽게 접근가능한 공간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
안전성과 편안함	△	친근한 공간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걷고 싶고 걷기 편한 공간	장애자,노약자의 이용을 배려한 공간
다양한 이용과 활동	O	도시여가활동의 무대	흥미를 유발시키는 공간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정체성있는 이미지	X	역사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	문화적 자산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	이야기꺼리가 있는 공간	아름다운 외곽으로 예술적가치를 지닌 공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	조성 및 관리과정에 참여	경제적으로 유자관리가 가능	지속가능한 공간	
종합분석	주거지 내부에는 공간 확보가 어려워 주변의 학교(풍생고등학교, 성남수정초등학교), 공공건축물(동사무소, 소방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공공시설 주변은 지하철 모란역과 성남 풍생중고등학교 앞 넓은 보행가로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모란역 사거리에서 풍생중고등학교 쪽의 넓은 보도공간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주변을 소규모 광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시기반시설 : 공공시설 주변공간

조성 및 관리 주체 : 민간주도

사업방식 : -

#### ④ 공공시설 주변공간



공공공간 특성 평가		* O : 양호, △ : 중간, X : 불량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X	인지하기 쉬운 공간	열려있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공간	쉽게 접근가능한 공간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
안전성과 편안함	X	친근한 공간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걸고 싶고 걷기 편한 공간	장애자,노약자의 이용을 배려한 공간
다양한 이용과 활동	X	도시여가활동의 무대	흥미를 유발시키는 공간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정체성있는 이미지	X	역사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	문화적 자산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	이야기꺼리가 있는 공간	아름다운 외곽으로 예술적가치를 지닌 공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	조성 및 관리과정에 참여	경제적으로 유자관리가 가능	지속가능한 공간	
종합분석	<p>학교시설과 인접하여 넓은 부지의 주차장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주차장 주변으로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인적이 드물어 각종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공공공간으로 활용되지는 않지만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새로운 공공공간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p>				

기타 도시 유희공간 : 골목길  
 조성 및 관리 주체 : 민간+공공  
 사업방식 : -

⑤ 골목길



공공공간 특성 평가		* O : 양호, △ : 중간, X : 불량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	인지하기 쉬운 공간	열려있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공간	쉽게 접근가능한 공간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
안전성과 편안함	△	친근한 공간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검고 싶고 걷기 편한 공간	장애자,노약자의 이용을 배려한 공간
다양한 이용과 활동	△	도시여가활동의 무대	흥미를 유발시키는 공간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정체성있는 이미지	△	역사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	문화적 자산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	이야기꺼리가 있는 공간	아름다운 외곽으로 예술적가치를 지닌 공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O	조성 및 관리과정에 참여	경제적으로 유자관리가 가능	지속가능한 공간	
종합분석	<p>오래 전부터 주거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계획초기 단계부터 공공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은 곳이다. 주차공간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어서 주변도로 및 공터가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기에다 부족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공공간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p>				



기타 도시 유희공간 : 기타(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 주체 : 민간주도

사업방식 : 공동주택 건설사업시 조성

⑥ 기타(공동주택)



공공공간 특성 평가		* O : 양호, △ : 중간, X : 불량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	인지하기 쉬운 공간	열려있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공간	쉽게 접근가능한 공간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
안전성과 편안함	△	친근한 공간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검고 싶고 걸기 편한 공간	장애자,노약자의 이용을 배려한 공간
다양한 이용과 활동	△	도시여가활동의 무대	흥미를 유발시키는 공간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정체성있는 이미지	X	역사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	문화적 자산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	이야기꺼리가 있는 공간	아름다운 외곽으로 예술적가치를 지닌 공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	조성 및 관리과정에 참여	경제적으로 유자관리가 가능	지속가능한 공간	
종합분석	아파트 조성과정에서 단지 내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나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차단하여 거주민 및 상가시설 이용객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되고 있다.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이러한 공간들을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③ 수진2동 일대 공공공간 실태조사 종합

공공공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기반시설은 생활권공원과 공공시설 주변공간이 주로 나타났다. 생활권공원은 지자체 장의 의지에 의하여 물놀이공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주변은 오래된 주거 밀집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통한 시설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의 내부공간이나 인접한 지역에 공공공간이 확보되고 있다.

기타 도시 유희공간의 경우, 골목길 및 기타유형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부의 놀이터를 살펴볼 수 있다. 골목길은 좋은 공공공간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으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공간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 내부의 놀이터는 과밀한 지역의 특징과는 차별화되어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나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되어 공공적인 성격은 다소 미흡하다. 이들 지역은 향후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들은 담장 앞, 대문 위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3-3] 골목 작은 텃밭 조성사례



### 3) 지방 중소도시\_영주시 영주1동 일대

#### ① 조성현황

##### □ 공간시설 현황

공원은 총 52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등이다. 녹지는 90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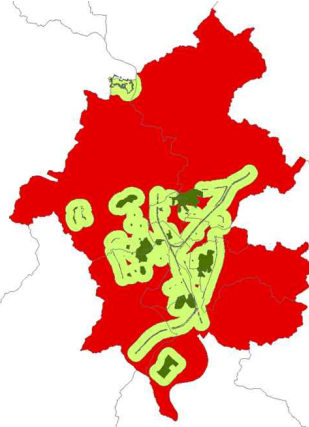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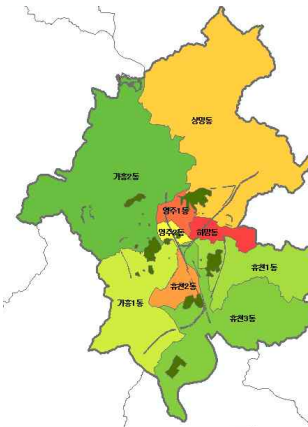
[표 3-8] 현황조사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 현황\_영주시

공원		녹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52개소 (도시자연공원 1, 근린공원 17, 어린이공원 26, 묘지공원 0, 체육공원 0, 소공원 4, 역사공원 1, 문화공원 3, 수변공원 0, 조례가정하는공원 0)	2,842,743m <sup>2</sup>	90개소 (완충녹지 88, 경관녹지 2, 연결녹지 0)	409,685m <sup>2</sup>

※출처 : 도시계획현황 중 공원 및 녹지(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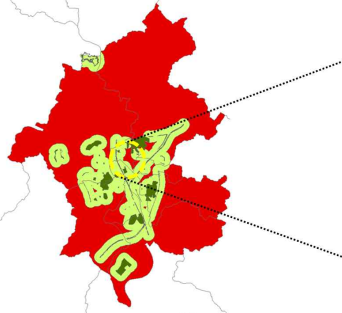

##### □ 배치 및 공급 현황

[표 3-9] 배치 및 공급 현황\_영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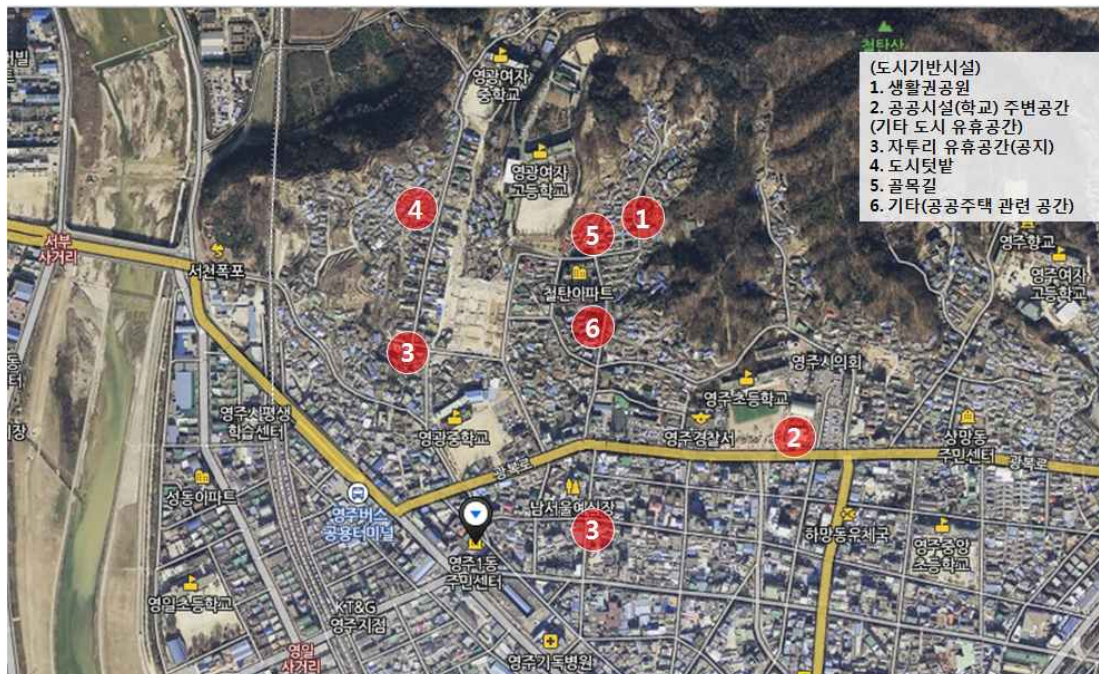
공원 및 녹지 배치	1인당 도시공원 공급 현황
	

## □ 취약지역 위치 및 현황

[표 3-10] 취약지역 위치 및 현황\_영주시

위치	취약지역 현황
	

## ② 공공공간 유형별 조성실태



[그림 3-4] 영주시 영주1동 일대 공공공간 전체 현황도

도시기반시설 : 생활권공원(+주차장)

조성 및 관리 주체 : 관 주도

사업방식 : 지자체 일반사업

# ① 생활권공원(+주차장)



## 공공공간 특성 평가

\* O : 양호, △ : 중간, X : 불량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O	인지하기 쉬운 공간	열려있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공간	쉽게 접근가능한 공간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
안전성과 편안함	O	친근한 공간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걷고 싶고 걷기 편한 공간	장애자,노약자의 이용을 배려한 공간
다양한 이용과 활동	△	도시여가활동의 무대	흥미를 유발시키는 공간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정체성있는 이미지	X	역사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	문화적 자산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	이야기꺼리가 있는 공간	아름다운 외곽으로 예술적가치를 지닌 공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	조성 및 관리과정에 참여	경제적으로 유자관리가 가능	지속가능한 공간	

## 종합분석

영주시에서는 노후주거지정비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들 사업은 개인주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공터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주차장을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도시기반시설 : 공공시설 주변(학교)

조성 및 관리 주체 : 관 주도

사업방식 : 지자체+중앙정부 사업

② 공공시설 주변(학교)



공공공간 특성 평가		* O : 양호, △ : 중간, X : 불량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O	인지하기 쉬운 공간	열려있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공간	쉽게 접근가능한 공간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
안전성과 편안함	O	친근한 공간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검고 싶고 걷기 편한 공간	장애자,노약자의 이용을 배려한 공간
다양한 이용과 활동	△	도시여가활동의 무대	흥미를 유발시키는 공간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정체성있는 이미지	X	역사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	문화적 자산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	이야기꺼리가 있는 공간	아름다운 외곽으로 예술적가치를 지닌 공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	조성 및 관리과정에 참여	경제적으로 유자관리가 가능	지속가능한 공간	
종합분석	<p>영주시 의회 및 주요 관공서가 위치한 가로 주변으로 노후된 공공시설물 중 일부를 개보수하면서 건축물 전면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단일 공간이 아닌 연결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p> <p>공공공간은 개선되었지만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도입되지 않아 이용자가 활발하게 찾고 있지 않다.</p>				

기타 도시 유희공간 : 자투리 유희공간

조성 및 관리 주체 : 민간주도(개인)

사업방식 : -

### ③ 자투리 유희공간



공공공간 특성 평가		* O : 양호, △ : 중간, X : 불량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O	인지하기 쉬운 공간	열려있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공간	쉽게 접근가능한 공간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
안전성과 편안함	O	친근한 공간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걸고 싶고 걷기 편한 공간	장애자,노약자의 이용을 배려한 공간
다양한 이용과 활동	X	도시여가활동의 무대	흥미를 유발시키는 공간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정체성있는 이미지	△	역사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	문화적 자산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	이야기꺼리가 있는 공간	아름다운 외곽으로 예술적가치를 지닌 공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O	조성 및 관리과정에 참여	경제적으로 유자관리가 가능	지속가능한 공간	

종합분석	<p>개인의 집 앞이나 소규모 소매점, 미용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앞에는 의자나 평상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상업시설로 인해 사람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작은 시설물(의자) 설치를 통하여 사람들을 유도하기도 한다.</p>
------	--

기타 도시 유희공간 :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주체 : 민간주도(개인)

사업방식 : -

④ 도시텃밭



공공공간 특성 평가			* O : 양호, △ : 중간, X : 불량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X	인지하기 쉬운 공간	열려있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공간	쉽게 접근가능한 공간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
안전성과 편안함	△	친근한 공간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걸고 싶고 걷기 편한 공간	장애자,노약자의 이용을 배려한 공간
다양한 이용과 활동	△	도시여가활동의 무대	흥미를 유발시키는 공간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정체성있는 이미지	X	역사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	문화적 자산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	이야기꺼리가 있는 공간	아름다운 외곽으로 예술적가치를 지닌 공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	조성 및 관리과정에 참여	경제적으로 유자관리가 가능	지속가능한 공간	
종합분석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도시텃밭의 개념과 달리 이곳에서는 주거지 내 공터를 활용하거나 폐가로 일시적으로 비워진 공간들을 활용하고 있다.				



기타 도시 유희공간 : 골목길

조성 및 관리 주체 : 민간주도(개인)

사업방식 : -

⑤ 골목길



공공공간 특성 평가		* O : 양호, △ : 중간, X : 불량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O	인지하기 쉬운 공간	열려있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공간	쉽게 접근가능한 공간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
안전성과 편안함	△	친근한 공간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걸고 싶고 걷기 편한 공간	장애자,노약자의 이용을 배려한 공간
다양한 이용과 활동	△	도시여가활동의 무대	흥미를 유발시키는 공간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정체성있는 이미지	△	역사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	문화적 자산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	이야기꺼리가 있는 공간	아름다운 외곽으로 예술적가치를 지닌 공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	조성 및 관리과정에 참여	경제적으로 유자관리가 가능	지속가능한 공간	
종합분석	<p>골목길은 일반적으로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개인적으로 자신의 담장에 수목을 식재하여 가꾸고 있다. 일정규모가 없더라도 작은 공간을 가꾸는 작업을 통하여 전체적인 공간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최근 벽화작업 등을 통하여 마을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p>				

기타 도시 유희공간 : 기타(공공주택)

조성 및 관리 주체 : 민간주도(공동주택)

사업방식 : -

⑥ 기타(공공주택)



공공공간 특성 평가		* O : 양호, △ : 중간, X : 불량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O	인지하기 쉬운 공간	열려있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공간	쉽게 접근가능한 공간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
안전성과 편안함	O	친근한 공간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걸고 싶고 걷기 편한 공간	장애자,노약자의 이용을 배려한 공간
다양한 이용과 활동	△	도시여가활동의 무대	흥미를 유발시키는 공간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정체성있는 이미지	X	역사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	문화적 자산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	이야기꺼리가 있는 공간	아름다운 외곽으로 예술적가치를 지닌 공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	조성 및 관리과정에 참여	경제적으로 유자관리가 가능	지속가능한 공간	
종합분석	<p>공동주택 조성시에 확보되는 공공공간은 주차장과 놀이터 정도이다. 하지만 초기에 계획되었던 공간들이 텃밭이나 휴식공간 등으로 변형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형의 사례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의해 공간을 스스로 가꾸어나가는 1차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에서 더 나은 공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p>				



### ③ 영주1동 일대 공공공간 실태조사 종합

앞서 살펴보았던 대도시 및 수도권 지역과는 다르게 지방중소도시시는 고밀로 개발되지 않아서 비교적 확보가능한 공공공간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조사대상지역은 노후주거지에 대한 개선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공공공간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지역이다. 주로 공공에서 쉽게 확보가능한 주차장, 공원, 도로확충 등이 주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공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생활권공원 및 공공시설 주변공간이 주로 나타났다. 여러 곳의 생활권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여 주는 공간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공원, 텃밭 등으로 단일화된 공간보다는 주차장과 공원이 같이 조성되어 있거나, 휴식공간과 텃밭이 인접하여 조성되는 형태로 제공되어 ‘다양한 이용과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었다.

기타 도시 유휴공간의 경우, 자투리 유휴공간으로 상업시설 앞 공간들이 주로 활용되며, 그 외에는 개인주택 앞에 의자나 시설물을 내어놓고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도시텃밭도 발견되었는데 대도시나 수도권의 텃밭개념과 달리, 개인주택 내부의 공간을 활용하였다. 골목길은 구릉지에 위치한 탓에 골목의 입구부분에 대한 강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내부에서는 초기에 계획되었던 공간들을 이용자의 수요에 맞게 변형시켜 이용하는 사례들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림 3-5] 공터를 활용하여 휴게공간 조성

### 3. 실태조사 종합 및 시사점

#### □ 도시규모별 공공공간 공급에 대한 차이가 발생

공공에서 공급하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도시적 규모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 양적 공급이 이루어진다. 도시규모 차원에서는 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확보에 따라 공공공간 공급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다른 도시에 비하여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가 양호한 서울시의 경우 공공공간의 불균형이 심각하지 않다. 반면에 중소도시로 내려갈수록 공공공간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공공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특성에 맞게 양적인 공급과 질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필요하다.

#### □ 기존시설의 현대화 사업과 부지 및 주체의 다양화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공공공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에 대한 현대화사업은 양적인 공급정책에서 질적인 공급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공공공간으로 활용가능한 대상부지로 기존의 폐철도부지나 동네뒷산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 주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 □ 생활권 단위의 공공공간 조성전략 필요

도시차원에서는 균등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지역단위에서는 소외지역이 발생하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차원의 계획적 접근에 많은 한계가 있다. 실제 조성과정에도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 단위에서, 중소도시는 동단위에서 지역수요에 맞는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들은 지역단위 혹은 생활권 단위에서 개별적인 상황과 조건, 요구에 적합한 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단순한 예산차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다양한 공공공간 조성을 위해서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적 확대 요구

공공공간은 현재의 개념은 1차적으로는 공원 및 녹지에 한정되어 있으며 좀 더 범위를 확장하면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가 포함된다. 그리고 더 확장하면 개념상 애매한 부분인 공간의 경계부분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기반시설 하부 및 인접공간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상으로는 ‘도로’로 결정되어 있으나 도로하부에 유희공간이 발생하며, 이러한 공간은 대부분 주차장 및 불법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다. 이들 공간은 도시 내 새로운 공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건에 따라 좋은 공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제4장 국내·외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사례 분석

1. 도시기반시설 관련 공공공간
2. 개별건축물 관련 공공공간
3. 기타 도시 유희공간
4. 사례분석 종합 및 시사점

3장에서는 서울, 성남, 영주 3개 지역의 공공공간 조성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제시될 조성방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외의 공공공간 조성사례는 ‘도시기반시설 관련 공공공간’, ‘개별건축물 관련 공공공간’, ‘기타 도시 유희공간’으로 1차적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2장에서 제시하였던 공공공간의 유형을 기본틀로 분석한 것이며, 2차적으로는 5장에서 제시할 공공공간 조성방안의 큰 틀인 유형, 추진사업, 조성주체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조성사례 대상 선정은 대상지 분석과정에서 도출되었거나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언급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 사례들은 1차적인 구분의 기준인 대상지 특성을 중심으로 각 유형별로 검토하고, 2차적으로 사업관련 주체, 사업방식과 각 조성과정상의 특징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공공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각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답사 및 조성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및 공무원 면담조사, 전문가 원고의뢰 등을 진행하고, 일본, 미국,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 1. 도시기반시설 관련 공공공간

도시기반시설에 속하는 소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공공공지, 하천 주변공간, 공공시설 주변공간, 녹지, 사회기반시설 등 중 대상지 확보와 관련된 사례들을 발굴하여 정리하였다.

[표 4-1] 공공공간 조성사례 분석\_도시기반시설

구 분			사 례
도시기반 시설 관련	생활권공원	소공원	영주시 철탄아파트 뒤 소공원 삼육어린이공원 (한평공원)
		근린공원	포이동 근린공원
	공공공지		판교신도시_공공공지
	하천 주변공간		판교신도시_판교저류지
	녹지		북한산 둘레길 조성사업
	공공시설 주변공간		안산시 석수초교 담장가꾸기
	사회기반시설		인천 동구 배다리 교량하부공간 개선사업
개별 건축물 관련	공개공지		종로구 일대
	다가구 건축물 사잇공간		안산시 석수골 마을정원 만들기
기타 도시 유희 공간	도시 자투리 유희 공간	보호수주변	광진구 화양동 보호수 개선사업
		공공시설 (산림청 사택)	명일동 우리 동네숲 조성사업
	골목길	개인부지	그린파킹 울산 남구 옥동 일대
		공용공간	이문동 고치며 살자 프로젝트
		상업공간	보정동 카페거리 (죽전 카페거리, 단대문화의 거리)

①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동단위의 대상지 찾기 : 영주시 철탄아파트 뒤 소공원

개요	
구 모	사업비 5천6백만원(부지매입비 포함), 87㎡
사업주체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영주1동 주민센터
사업기간	2008년~2009년 년차별로 2단계로 진행됨 (2008년 1차 조성, 2009년 2차 확대조성)
위 치	영주시 영주1동 54-16번지
관련주체 연 락 처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063-639-6312)
배경 및 특성	
<p>영주시 민선5기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디자인이 아름다운 녹색환경도시, 대한민국 녹색성장 대표도시 조성”을 추진</p> <p>– “걸어서 5분 안에 푸른 공원이 있는 녹색도시”로 조성</p> <p>– 주요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학교 공원화사업, 녹색 쌈지공원, 읍면동별 소공원 및 도시 숲 조성 등 추진</p>	
위치	
	





[그림 4-1] 영주시 철탄아파트 뒤 소공원 현황

사례지는 공공공간 조성 현황조사 대상지로 조사한 영주시의 소공원이다. 이 지역은 노후주거지정비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주거지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지역에는 일정 개소에 대하여 조성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해당 지자체 장의 정책기조로 인하여 관주도의 공공공간이 다수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공원의 경우, 광역시에서는 해당 구청단위에서, 중소도시는 시 단위에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영주시 철탄아파트 뒤 소공원의 경우 사업주체인 시가 일방적으로 공급하지 않았다. 기초생활권인 영주1동에서 필요한 지역을 영주시에 의뢰하여 조성하게 되었다. 영주1동은 해당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한 상황을 시차원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시 사점을 제공한다. 대도시인 서울에서도 구청단위로 행정업무 차원에서 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조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초생활권 단위인 동단위에서 수요나 시급성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하여 제안함으로써 기존방식을 보완할 수 있다.

본 사례는 이동이 많은 곳에 인접하여 설치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지가 쉬운 공간이다. 다만 다양한 이용과 활용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인접지역 근처에 자연녹지가 잘 마련되어 있고,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늘을 제공하는 시설이 없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② 기존 소공원을 시민단체와 함께한 리노베이션 : 삼육어린이공원(한평공원사업)

개요	
구 모	사업비 5천6백만원(부지매입비 포함), 87㎡
사업주체	주민, 도시연대 커뮤니티디자인센터 + 보라매동팀,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
사업기간	2010. 7. 30 ~ 2010. 12. 11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동 661-118 공지
관련주체 연 락 처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063-639-6312)
배경 및 특성	
<p>보라매동(봉천 1동)은 90년대 서울의 전형적인 주거환경을 지니고 있다. 당시에는 절대적인 주거공간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주로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형태였다. (사)가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커뮤니티 디자인센터는 한평공원 사업 공모를 통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p>	
위치	
	



[그림 4-2] 삼육어린이공원 소공원 현황

휴식공간, 자연공간, 커뮤니티 공간은 부족한 주거지 밀집지역에서 삼육어린이공원은 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삼육어린이공원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지만 위낙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삼육어린이공원은 도시연대의 한평공원 만들기사업을 통해 편리하고 정겨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한평공원은 토지 이용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한 평같이 작은 땅’이라도 찾아내어 ‘공원 같은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특히 최근 도시공원은 일상과 고립된 녹색의 섬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민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기존의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지구공원 등으로 거리에 따라 조성되나 한평공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유도하는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삼육어린이공원의 경우 기존의 소공원을 도시연대의 한평공원 사업을 통하여 리노베이션 작업이 진행된 사례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소공원에 대한 보수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시설을 개선하여 나갈 수 있다는 장점과 지역에 기반한 작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4-2] 한평공원 주요사례

대상지	공원명	조성과정		
		대상지선정	대상지요구	조성특징
단독 주택지	종로구 원서동 빨래골 쉼터	지역주민 (통장) 제안	방법초소를 쉼터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호 한평공원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에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이 적게들고 관리가 용이한 곳</li> </ul> </li> <li>· 조성전과정에 주민참여 및 관심 필요</li> </ul>
	성동구 금호동 한평공원	성동구청 공동추진 제안 (금호동 동사무소 제안)	자동차와 나눠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지내 유일한 공공공간의 다양한 활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휴게공간, 장터, 놀이터 등</li> </ul> </li> <li>· 아이들을 통한 지역분석하기</li> <li>· 민관 파트너십의 어려움</li> </ul>
	수색동 한평공원	지역주민 (문방구아저씨) 제안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통행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안내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라 차온다” 안내판 설치</li> </ul> </li> <li>·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한평공원은 참여프로그램의 지속성, 단계별 연계성이 중요</li> </ul>
아파트 단지	서울 중계9단지 한평공원	-	영구임대아 파트 계층을 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대상지 선정</li> <li>· 지역현안에 대한 동네 전시회</li> <li>· 놀이터에 대한 시설교체 (대학졸업작품 전시물 기증을 통한 조형물 설치)</li> </ul>
	서울 둔촌동 한평공원	-	아파트 상가 외부의 화단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상가 방문을 통한 수요조사</li> <li>· 상가에 입주한 신한은행과 연결</li> </ul>
공공 시설 내	서울 창동 노인복지 센터 한평공원	복지센터 제안	건축물주변 방치공간의 이용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센터 이용자 대상 수요 설문조사</li> <li>* 텃밭, 공동작업장 보다는 휴식공간</li> <li>· 일일차집</li> <li>· 디자인안 공유 및 조성 후 홍보활동</li> </ul>
	서울시립대 복지관 한평공원	복지관 제안	건축물주변 방치공간의 이용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단계 수요자 파악을 위한 인터뷰 및 야외놀이 관찰조사</li> <li>· 바자회를 통한 사업비마련 및 주민홍보</li> </ul>
상업지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한평공원	상인회제안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점상이 사라진 공간에 대한 개선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자전거 보관소, 화단, 조명</li> </ul> </li> </ul>
도로변	부천 원종동 한평공원	마을만들기 조직과 경험	마을만들기 새로운 돌파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참여주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li> <li>· 시공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 개최</li> <li>· 친환경 디자인</li> </ul>

※ 출처: 김은희외(2007)

### ③ 계획단계에 창의적 공공공간 확보 : 포이동 근린공원

개요	
구 모	—
사업주체	—
사업기간	2010. 7. 30 ~ 2010. 12. 11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 일대
관련주체 연 락 처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 02-2104(이용규)
배경 및 특성	
<p>1982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1988년 조성되었다. 주거밀집지역 내 생활권 공공공간으로 주변의 거주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공공간이다. 인근의 양재천과 달터공원을 연결함과 동시에 단독주거지 밀집지역 내부에 보행자가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길을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하였다.</p>	
위치	
 	

근린공원에 대한 배치계획은 그동안 사각형의 틀로서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근린공원은 계획단계에 다양한 형태로 고민이 가능하다. 그 예가 포이동 근린공원의 사례이다. 이곳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 인접한 양재천을 향하 가로축을 형성하였고, 주거지 밀집지역 내 보기 드물게 보행로를 조성하고 주변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숲길과 같은 효과를 주었다. 이러한 공간이 가능하였던 것은 도시계획단계에서 근린공원 배치 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해 두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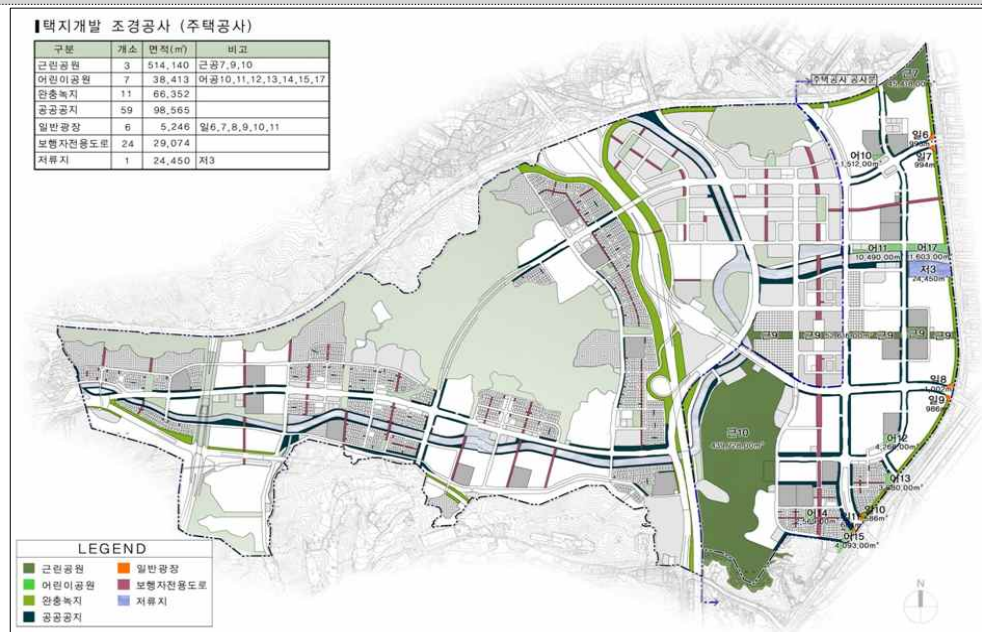
#### ④ 지역여건 및 현황에 대응한 공공공지 활용 : 판교신도시 공공공지

개요	
규 모	총79,688억원(성남시 15,920억원) 87,789인/29,263세대 73개소, 104,350㎡
사업주체	경기도, 성남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사업기간	2003 ~ 2009년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하산운동, 삼평동 일원
관련주체 연 락 처	성남시 택지개발과(판교 택지개발·실시계획 관련업무): 김기상(031-729-4502) 성남시 녹지과(녹지시설물 인수업무, 도시녹화사업): 김진욱(031-729-4282) 성남시 공원과(판교지구 공원 인수): 강호섭(031-729-4383)

#### 배경 및 특성

공공공지는 초기 계획단계시 확보된 공간으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개방하여 놓고 있다. 성남시에는 별도의 공공공지 활용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위치





[그림 4-3] 판교신도시 공공공지 현황

공공공지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시 용도를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고 향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취지로 인하여 방지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하지만, 판교신도시의 경우 이러한 공공공지의 활용가능성을 초기 계획단계부터 세밀하게 기획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였다. 각 공공공지는 주변현황 및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공공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공공간에 대한 점용과 관련한 허가대상 및 기준, 기간, 관리에 대한 사항과 점용료 산정기준 및 납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⑤ 하천공간 주변의 새로운 공공공간 저류지 활용가능성 : 판교신도시 저류지

개요	
규 모	저류지 면적: 24,422㎡(7,388평) ※ 판교신도시 총사업면적 : 9,294,000㎡
사업주체	경기도, 성남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사업기간	2003 ~ 2009년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하산운동, 삼평동 일원
관련주체 연 락 처	성남시 택지개발과(판교 택지개발·실시계획 관련업무): 김기상(031-729-4502) 성남시 녹지과(녹지시설물 인수업무, 도시녹화사업): 김진욱(031-729-4282) 성남시 공원과(판교지구 공원 인수): 강호섭(031-729-4383)
배경 및 특성	
<p>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운중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러한 하천의 범람 가능성을 고려하여 저류지를 조성하였다. 이는 하천주변을 이용하여 부족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로 의미가 있다.</p>	
공간구상	



[그림 4-4] 판교신도시 저류지 현황

저류지는 신도시 조성시 방재시설로 계획된 곳이다. 그동안 생활권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경우가 많았다. 판교택지개발사업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생활권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저류지의 경우 운중천과 인접하여 하천 내에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와 연계하였으며, 기존의 지형을 고려하여 브릿지와 수변 조망공간을 조성하였다. 즉 하천범람을 대비한 안전대책을 위해 조성되었으나 평상시에는 운동 및 휴게시설로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시설특성상 택지개발초기 단계에는 사업주체인(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이후 관할 지자체에 운영, 관리를 인계하게 되었다. LH에서는 공공공간을 포함한 조경시설과 관련하여 설계 완료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및 지자체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환류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설계환류 전담조직을 구축·운영하고, 설계자와 시공사 사이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며, 현장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도 또한 판교 택지개발지구의 특징이다.

⑥ 학교 경계부분을 활용한 공공공간 조성 : 안산시 석수초등학교 담장가꾸기

개요	
구 모	안산시 석수초등학교 담장 중 총 66m구간
사업주체	경기도, 성남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사업기간	2009년
위 치	안산시 선부2동 석수초등학교 후문 인근
관련주체 연 락 처	석수초교 학교가꾸기단 031-487-4493 선부2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031-481-6609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031-409-7960
배경 및 특성	
<p>학생들이 주로 이동하는 보행공간과 인접한 담장을 개방하여 머무름이 있는 쉼터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학교는 학교담장 주변공간을 마을에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p>	
위치	
 	





[그림 4-5] 안산시 석수초등학교 담장가꾸기 현황  
출처: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학생들이 주로 이동하는 보행공간과 인접한 담장을 없애고 주민들의 쉼터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이 사업은 학교가 일종의 공간 기부를 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학교담장을 허무는 사업은 다수 있었으나 학생들의 안전문제 등으로 개방보다는 다시 폐쇄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단일사업의 성격으로 ‘담장허물기’에 머물지 않고,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담장을 조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장소를 만들어 그곳에 사람들이 머물면서 새로운 형태의 담장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사업추진과정에는 석수초등학교 학교가꾸기단이 구성되었고, 총괄지원(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전문가(안산시건축사회, 한양대학교), 지역단체(석수골도서관, 석수골주민위원회, 선부2동 주민자치위원회), 행정조직(안산시, 선부2동주민센터)가 협력하였다. 지원센터에서는 전체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을 담당하고 지역단체는 주로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학교가꾸기단은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림 4-6] 안산시 석수초등학교 담장가꾸기 사업주체별 역할  
출처: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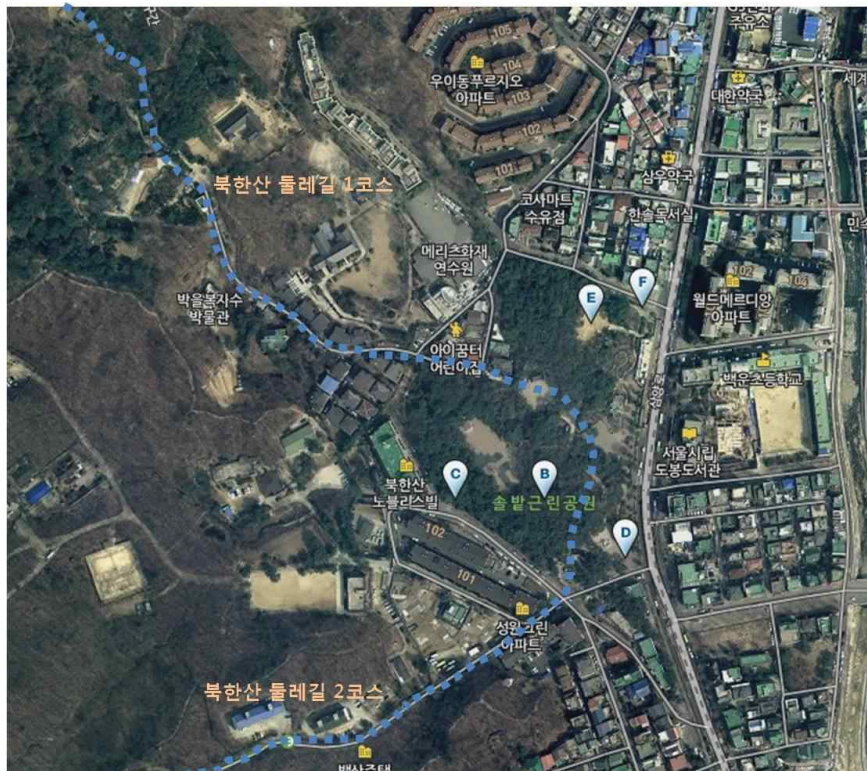
⑦ 기존의 공공공간과 연계하여 새로운 공공공간 조성 : 북한산 둘레길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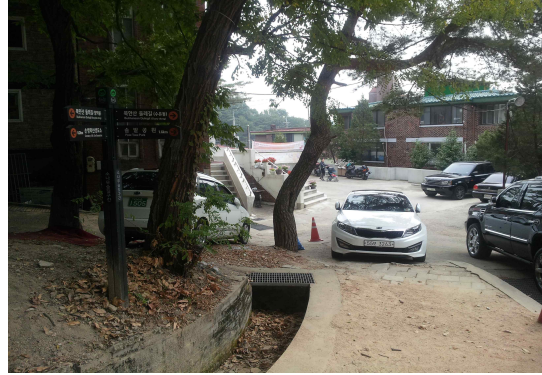
개요	
구 모	전체 70Km, 서울 도심의 명소로 물길, 흙길, 숲길과 마을길, 산책로의 형태를 테마로 구성
사업주체	국립공원 관리공단
사업기간	2010년 9월 7일 44km를 개통하고, 2011년 6월 30일 나머지 26km구간을 개통함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1-1
관련주체 연 락 처	북한산 둘레길 탐방안내센터 - 운영단(정릉) 02)900-8085 - 센터(수유) 02)900-8086

배경 및 특성

북한산 주변에 주거지가 늘어남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탐방객을 분산하여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노약자와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도 쉽게 북한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둘레길을 조성하였다.

위치





[그림 4-7] 주거지와 연결되어 있는 둘레길 진입구

최근 보도여행 및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인하여 산발적으로 조성되어 있던 공간들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들 간의 연계는 선형의 새로운 공공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개별적인 공간의 활용과 동시에 새로운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공간들은 새롭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공간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⑧ 철도하부공간을 활용한 도심심터 조성 : 인천 동구 배다리 교량하부공간 개선사업

개요	
규 모	경인선 철도교량 하부
사업주체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동구청
사업기간	2009. 8 ~ 2010. 7
위 치	인천광역시 동구 배다리철교(경인북복선 철교)
관련주체 연 락 처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기획팀 031-770-6181
배경 및 특성	
<p>철도시설 하부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디자인개선 및 공공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p> <p>대상부지 이외에 인천광역시 내 65개소의 교량의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 교량경관 조성사업 기본계획(2006)」을 수립하였다.</p>	
위치	
	



[그림 4-8] 인천 동구 배다리 교량하부공간 개선사업  
출처: 정수진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철도 및 도로의 일부를 고가도로로 조성하면서 하부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러한 공간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데 그치고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시 전역의 65개소 교량의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 교량경관조성사업 기본계획(2006)」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경인북복선 고가(배다리)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척되어 있던 지역이어서 시의 예산이 아닌 구의 자치예산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보다 나은 공간으로 디자인하기 위해 시의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여 디자인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였다.

특히 기존의 교각이나 교대에 슈퍼그래픽을 입히거나 과도한 디자인으로 부담스러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 관리주체인 철도시설관리공단, 사업주체인 동구청과 인천광역시의 전문가 및 경관위원회의 전문적인 의견 등을 더하여 기능과 디자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상호 협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추진하면서 교량하부공간 조성의 모범적인 사례로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배다리 하부공간을 주요 사례로 벤치마킹하는 일이 늘어났으며, 이후 수립한 인천광역시 교량하부공간 조성 가이드라인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배다리 지역의 문화운동이 활성화되어 배다리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모임이 발족되고 배다리 에코파크가 조성되는 등 지역의 공공공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2. 개별건축물 관련 공공공간

개별건축물 관련한 공공공간의 경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존재하는 사유지 부분을 활용하는 사례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안산시 석수골 마을정원 만들기를 살펴보았다. 상업, 업무지구의 건축물과 관련하여서는 공개공지가 대표적인 사례로, 종로의 공개공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표 4-3] 공공공간 조성사례 분석\_개별건축물 관련 공공공간

구 분			사 례
도시기반 시설 관련	생활권공원	소공원	영주시 철탄아파트 뒤 소공원 삼육어린이공원 (한평공원)
		근린공원	포이동 근린공원
	공공공지		판교신도시_공공공지
	하천 주변공간		판교신도시_판교저류지
	녹지		북한산 둘레길 조성사업
	공공시설 주변공간		안산시 석수초교 담장가꾸기
	사회기반시설		인천 동구 배다리 교량하부공간 개선사업
개별 건축물 관련	공개공지		종로구 일대
	다가구 건축물 사잇공간		안산시 석수골 마을정원 만들기
기타 도시 유희 공간	도시 자투리 유희 공간	보호수주변	광진구 화양동 보호수 개선사업
		공공시설 (산림청 사택)	명일동 우리 동네숲 조성사업
	골목길	개인부지	그린파킹 울산 남구 옥동 일대
		공용공간	이문동 고치며 살자 프로젝트
		상업공간	보정동 카페거리 (죽전 카페거리, 단대문화의 거리)

① 도심 공공공간으로 공개공지 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 중구일대 공개공지

개요

구 모	구분	유형	지구명(건물명)	사업규모		
				시행면적	층수 (최고/최저)	주용도
	1	스트리트형	장교 6지구 (시그니쳐 타워)	8,460.6	17/6	업무
	2	플라자형	을지로 2-12지구 (미래에셋 센터원)	5,101.9	28/6	업무
	3	로비+공개 공지형	회현 2-1지구 (스테이트 타워 남산)	8,784.6	24/6	업무
사업주체	민간부문의 각 건축주 (*관할 구청에서 별도로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기간	-					
위 치	서울특별시 중구일대					
관련주체 연 락 처	서울 중구 도시관리과 김기현 주무관 02-3396-5956					

배경 및 특성

서울특별시 중구는 업무와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다. 공개공지가 본래의 제도적 목적에 부합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중구청에서는 별도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공개공지에 대한 종합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위치

1. 스테이트 타워 남산 (회현 2-1지구)  
2.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을지로 2-12지구)  
3. 시그니쳐 타워 (장교6지구)





[그림 4-9] 서울특별시 중구일대 공개공지 현황

고유번호	01081001		공적공간 관리대장				장번호	1 -	
대지위치	순화동		지 번	151	명칭 및 번 호		특 이 사 항		
대지면적	5885.8 m <sup>2</sup>	연면적	70,08 5,48m <sup>2</sup>	지 역	일반상업	지 구	미관,방화	구 역	
건축면적	2973.9 2m <sup>2</sup>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47665 .57m <sup>2</sup>	구 조	철근콘크 리트조	주용도	공동주택	층 수	지하: 5층 지상: 27층
건 폐 율	50.53 %	용적률	809.8 4%	높 이	90.3m	허가일자	03.09.20	사용승인일	07.05.25
공적공간	유형	공개공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축선후퇴 <input type="checkbox"/> 공공보행통로 <input type="checkbox"/> 쌈지공원 <input type="checkbox"/> 기 타 <input type="checkbox"/>		전 체면적		건축기준 완화내용			
구 분		면 적		시 설 내 역			비 고		
공개공지 1		230.00		조 경 , 미 술 장 식 품 , 의 자					
공개공지 2									
건축선후퇴 1									
쌈지공원 1									

※ 고유번호 01(구청고유번호)08(년도)1(유형1~5)001(연번)

유형 1 : 공개공지, 유형 2 : 건축선후퇴, 유형 3 : 공공보행통로, 유형 4 : 쌈지공원, 유형 5 : 기타

[그림 4-10] 서울특별시 공적공간 관리대장 양식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시설 밀집지역인 중구일대에 최근 새롭게 건축물이 다수 조성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시설에는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도심 속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공개공지는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조성할 경우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율, 건축물 높이에 제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구는 다양하게 조성되는 이들 공개공지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개공지의 유형 설정과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공개공지의 조성현황을 관리함으로써 조성취지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② 다가구 밀집지역 내 건물과 건물 사이공간 활용 : 안산시 석수골 마을정원 만들기

개요	
구 모	총 19개의 마을정원, 10개의 미니화단, 4개의 벽화
사업주체	민관학 협력 [주민] 석수골 주민위원회 [민간] 석수골 작은도서관,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안산YMCA [전문가]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건축학부 김용승 교수 연구실 [행정] 선부2동 주민센터, 안산시 자치행정과 [시공] 하영건설, 새집으로
사업기간	2007년 - 2009년, 3년간
위 치	안산시 선부2동 1043-1052번지 일대, 4층 규모의 다가구 밀집지역
관련주체 연 락 처	석수골 작은도서관 031-439-2707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031-409-7960 한양대학교 김용승 교수 연구실 031-400-5137
배경 및 특성	
건물과 건물사이 담장을 허물고, 각각의 사적공간을 마을 공유의 공적공간인 마을정원으로 탈바꿈하였다. 마을정원을 가꾸는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새로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위치	
	





[그림 4-11] 안산시 석수골 마을정원 만들기 현황  
출처: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다가구 밀집지역에서 주로 활용한 공간은 건축물 전면공간이다. 건물과 건물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은 통과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안산시 석수골 마을정원 만들기에서는 이들 공간에 꽃길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밀도가 높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작업은 지역 내 공간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웃집과 협의를 통하여 공동의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조성된 공간은 건물관계자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시민단체인 안산YMCA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석수골에 들어가 작은도서관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석수골 작은도서관이 3년간 토지공사의 기금을 받아 마을정원 만들기를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운동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석수골 작은 도서관은 석수골에 사는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마을정원 만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마을주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후 활동이 널리 소개되면서 선부2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협력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작은 도서관은 한양대학교에 협력을 요청하였고, 무료봉사로 시작하였던 한양대학교 디자인컨설팅 활동은 문화관광부기금을 받게 되었으며, 2008년 개소한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석수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보다 안정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 3. 기타 도시 유희공간

기타 도시 유희공간은 먼저 도시 자투리 유희공간으로 보호수주변 공간,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공간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개인, 공용, 사업적 용도에 따라 골목길에 조성된 공공공간을 살펴보았다.

[표 4-4] 공공공간 조성사례 분석\_기타 도시 유희공간

구 분			사 례
도시기반 시설 관련	생활권공원	소공원	영주시 철탄아파트 뒤 소공원 삼육어린이공원 (한평공원)
		근린공원	포이동 근린공원
	공공공지		판교신도시_공공공지
	하천 주변공간		판교신도시_판교저류지
	녹지		북한산 둘레길 조성사업
	공공시설 주변공간		안산시 석수초교 담장가꾸기
	사회기반시설		인천 동구 배다리 교량하부공간 개선사업
개별 건축물 관련	공개공지		종로구 일대
	다가구 건축물 사잇공간		안산시 석수골 마을정원 만들기
기타 도시 유희 공간	도시 자투리 유희 공간	보호수주변	광진구 화양동 보호수 개선사업
		공공시설 (산림청 사택)	명일동 우리 동네숲 조성사업
	골목길	개인부지	그린파킹 울산 남구 옥동 일대
		공용공간	이문동 고치며 살자 프로젝트
		상업공간	보정동 카페거리 (죽전 카페거리, 단대문화의 거리)

① 보호수주변 공공공간화\_광진구 화양동 보호수 개선사업

개요	
규 모	보호수 주변일대 100㎡
사업주체	민간단체 아름지기 주최, KT&G 협찬
사업기간	2004년 11월 ~ 2005년 5월
위 치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31번지
관련주체 연 락 처	아름지기재단 : <a href="http://www.arumjigi.org/">www.arumjigi.org/</a> 사무국 02-741-8387
배경 및 특성	
<p>광진구 화양동 느티나무는 다세대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언덕 위에 있으며, 취객이 머물거나 쓰레기가 방치된 공간이었다. 아름지기 재단은 정자나무 주변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보호수와 주변 나무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주변 공간을 정비하여 도심 주택가에 휴식 및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냈다.</p>	
사업 시행 후 모습	
	

보호수는 오래된 마을에 하나 씩 존재하여 왔으며, 그 주변 공간은 마을의 주요한 중심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보호수 주변 공간의 역할이 점차 쇠퇴하고, 보호수는 말 그대로 보호를 위한 대상으로 관리되어져 왔다. 그리고 그 중요성과 관심이 다른 사업에 비하여 적어지면서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은 적어지고 있다.

## ② 공공시설(산림청사택) 활용 : 명일동 우리동네숲 조성사업

개요	
규 모	506m <sup>2</sup>
사업주체	민간부문 (서울그린트러스트-우리동네숲 조성사업) 기본설계 : 서울시립대 조경과 김아연 교수팀 실시설계 : 디자인 로직 후원 : 한국씨티은행
사업기간	2008 . 3 ~ 2008 . 12
위 치	강동구 명일동 312-254, 312-255번지( 면적 : 506m <sup>2</sup> )
관련주체 연 락 처	서울그린트러스트 : <a href="http://www.sgt.or.kr/intro.jsp">http://www.sgt.or.kr/intro.jsp</a> 02-498-7432
배경 및 특성	
산림청 사택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산림청 소유의 토지로, 수목을 심어 관리하던 중 나무가 크게 자라 그늘이 생기면서 주변 건물주들에 의한 민원과 불법쓰레기 투기 등 관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도시녹화를 위해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와 강동구청 간에 무상사용 허가 협의를 거쳐 우리동네숲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전후 모습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지 않던 공공기관인 산림청 소유의 토지에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제안으로 동네숲을 조성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을 공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복잡한 결정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 사례는 해당기관의 특성 과도 부합되고, 동네숲 조성의 여건에 적합한 나무가 이미 식재되어 있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 ③ 골목길 내 사유지의 공공공간화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그린파킹

개요	
규 모	5억 8백만원(구비, 설치비용의 50% 보조금 지원, 최고 2천만원), 29가구
사업주체	울산광역시 남구청, 지역주민
사업기간	2009년 5월 20일 ~ 2009년 9월 18일
위 치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91번지 일원
관련주체 연 락 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장문자 (052-226-5910), 이상희(052-226-5911), 동남종합건설(052-272-2565)
배경 및 특성	
<p>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각 세대마다 보유한 자동차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차장의 부족현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은 주차장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p> <p>사람들은 부족한 주거지 내에 이면도로나 골목길을 활용하여 주차를 하였으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복잡한 주거환경을 형성하였다. 또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 간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울산시 남구는 구비를 활용하여 녹색주차 사업을 추진하였다.</p>	
위치	
	





[그림 4-12]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그린파킹

다가구 밀집지역은 주차공간 확보의 문제로 도로에 면한 공공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각 지자체는 그린파킹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다. 개인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골목길에 공용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 확보되게 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대상지인 구슬마을 주민들은 그린파킹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담장허물기를 시행하는 민간업체의 작업 과정에서 지자체가 시공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는 사례로서도 의의가 있다. 담장허물기를 통해 사적인 공간인 마당과 공적인 공간인 골목길이 연결되면서 안전하고 넓은 거리를 조성함과 동시에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부족한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만들어졌다. 또한 공영주차장건설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해당 지방정부(남구청)에서 직접 시공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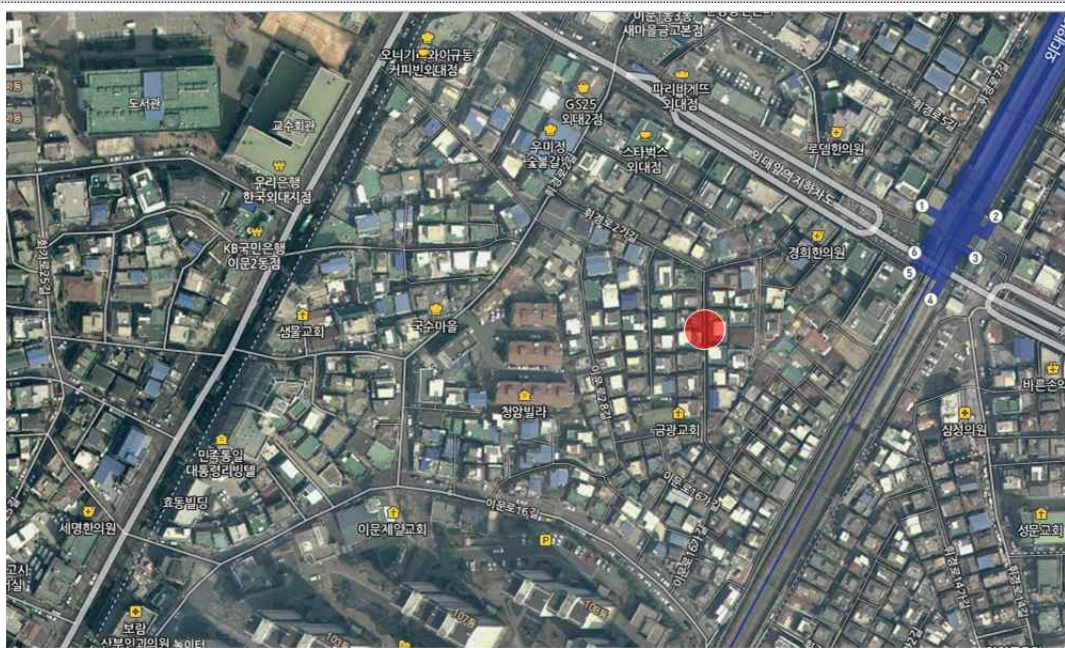
④ 골목길의 공공공간화 : 이문동 고치며 살자 프로젝트

개요	
규 모	이문동 16가길 시범사업 (약100m)
사업주체	내공사, 검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도시연대커뮤니티디자인센터(CDC), 경기대건축대학원 이영범 교수 스튜디오 어반플롯, 이문1동 지역주민
사업기간	2010년 12월~2011년 5월
위 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1동 노후주거골목길
관련주체 연 락 처	검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김은희 사무국장(02-735-6046)

## 배경 및 특성

도시연대에서는 기존의 마을만들기운동(서울시 은평구 한양주택, 대구광역시 삼덕동 등)이 재개발 압력에 의해서 사라지는 현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치며 살자’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 사례는 토지주택공사 사회공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친환경적 생태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생태아파트(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위치



골목길은 오랫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마주치는 주요한 공공공간이었다. 점차 개인의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마을단위의 공공적인 활동이 약화되면서 골목길은 낙후되어 왔다. 더욱이 개발사업이 기존 이웃 간의 공동체를 점차 파괴하는 현시점에서 낙후된 것들을 고치면서 가꾸어보자는 도시연대의 제안으로 골목길 주변의 공간들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공공공간으로서의 골목길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자 하였다. 노후주거지의 골목길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기존의 마을만들참여에 의한 단순 장소만 들기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제도적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사업방식은 토지주택공사의 사회공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친환경적 생태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생태아파트(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표 4-5] 토지주택공사 생태아파트(마을)만들기 사업현황

사업대상소재지	선정단체
서울 동대문구 이문1동 노후주거골목길	도시연대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주공4단지 아파트	아파트공동체센터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미진아파트	녹색사회연구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주공3단지아파트	울산생명의 숲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 진주동부아파트	공공미술 프리즘

조성과정에서는 골목을 대상으로 각 지점별 환경 및 주택소유자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피드백 과정을 거쳤다. 기존에는 ‘현장조사 - 홍보물 배포 - 주민간담회(인터뷰) - 대상지 선정 - 디자인 - 시공’으로 진행되었다면, 이 사업에서는 ‘(이문동) 조사 - 간담회 - 1차 홍보물 배포 - 간담회 - 대상지 선정 - 2차 홍보물 배포 - 간담회 - 시범대상지 선정 - 디자인 - 1차 시공 - 주민신청 - 3차 홍보물 배포 - 2차 시공 및 주민신청 - 개장식’의 프로세스로 진행하였다. 즉 골목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sup>30)</sup>

30) (사)건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2011) 「단독 다세대 주거지의 지속성을 위한 고치며 살자」



⑤ 상업공간의 활용 : 보정동 카페거리(죽전 카페거리, 단대문화의 거리)

개요	
규 모	8개 골목, 106개 점포, 약 22,000㎡
사업주체	상인회, 지자체(용인시 기흥구), 단국대학교, 단대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
사업기간	2000년~ 계속
위 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전택지개발지구(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주체 연 락 처	상인회 회장(카페 ‘일 빠아체레’ 사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87-2번지 (031-889-8326) 관련 인터넷 카페(보정동 카페거리의 사람들): <a href="http://cafe.naver.com/jjcafelove/">http://cafe.naver.com/jjcafelove/</a>

## 배경 및 특성

2000년대 중반부터 기흥구 보정동 탄천변에 죽전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면서 2008년 초 'Beans Beans'와 'TOMOTOME' 카페가 자리를 잡았다. 카페가 들어서기 전에는 공터로 남아 있는 이 지역에는 두 개의 카페를 시작으로 가로수길을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카페거리가 형성되었다. 2009년 다른 카페들이 비슷한 시기에 연이어 들어서면서 보정동 카페거리 또는 죽전 카페거리로 불렸다.

카페거리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2009년 12월에는 단국대학교와 보정동 단대문화의 거리 조성 협약을 맺고 보정동 단대문화의 거리로 명칭이 변경되어 불리고 있다.

## 위치





[그림 4-13] 보정동 카페거리 일대

최근 커피로 대표되는 차문화의 시작과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상업가로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카페거리를 공공공간으로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카페라는 상업시설은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보정동 카페거리는 주변지역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역이 주택가에 형성된 소규모 골목 카페들인 만큼 전용주차장으로는 1~2대 정도만 주차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굴다리 주차장(무료)과 주차빌딩(유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다. 추후에는 엑스파크 공원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용인시에서는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주변지역에 있는 카페거리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차별화를 가지고자 한다. 예를 들면, 보정동 카페거리 내 카페의 벽을 한평갤러리로 활용하여 단국대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공연과 축제(할로윈 파티)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2, 3층에 있는 주거공간도 상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테라스가 유럽풍 노천카페거리처럼 특색 있는 카페거리를 형성하고 지역 명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테라스 영업에 대한 불법 논란의 소지가 있고 영업 단속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카페거리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이 된 상태이다. 그러나 상점들의 노력에 의해 활성화된 보정동 카페거리는 점차 임대료가 증가하여 상점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건물주와의 갈등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4. 사례분석 종합 및 시사점

### 1) 공공공간 유형별 특성

#### □ 지역수요에 적합한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기존시설을 지역의 여건 및 수요에 따라 리모델링하거나 용도를 변경시키고 있는 사업이 파악되었다. 다세대 밀집지역의 사잇공간을 공공공간으로 조성(안산시 석수골 마을정원 만들기)하거나 기존의 공공공간을 연계하여 새로운 선형의 공공공간 조성(북한산 둘레길 조성사업), 학교시설의 담장을 허물어 새로운 공공공간을 제공(안산시 석수초교 담장가꾸기 사업), 교통 목적으로 설치된 철도교량 하부의 버려졌던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인천 동구 배다리 교량하부공간 개선사업)하는 등 사업내용들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 □ 사유지를 활용한 공공공간 조성

공공공간을 국공유지에만 조성되기 보다는 사유지를 공공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직접적인 사유지의 공공공간 조성은 건축법에 의해서 조성되는 공개공지가 대표적이지만, 주거밀집지역 내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하여 사유지를 활용하여 차량 주차를 가능하게 하면서 골목을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들은 부지조성을 위하여 1차적으로 사유지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 □ 도시의 변화와 성장을 고려한 공공공간 조성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용도를 확정하지 않고 향후에 지역상황에 따라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공지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공공공지는 법규상으로 조성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유지관리의 어려움이나 제도자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실제 조성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판교에서는 사업초기단계인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공공지 조성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실행단계에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성 이후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자체(성남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표 4-6] 공공공간 유형별 특성

구 분		사 례	특 징
도시기반시설 관련	소공원	영주시 철탄아파트 뒤 소공원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동단위의 대상지 찾기
		삼육어린이공원 (한평공원)	기존 소공원의 시민단체 참여를 통한 리노베이션
	근린공원	포이동 근린공원	계획단계에 창의적 공공공간 확보
	공공공지	판교 택지개발사업	지역여건 및 현황에 대응한 공공공지 활용
	하천 주변공간	판교 저류지	새로운 공공공간으로서 저류지 활용
	공공시설 주변공간	안산시 석수초교 담장가꾸기	학교 경계부분을 활용한 공공공간 조성
	녹지	북한산 둘레길 조성사업	기존 공공공간과 연계하여 새로운 공공공간 조성
	사회기반시설	인천 동구 배다리 교량하부공간 개선사업	사회기반시설(철도하부공간)을 활용한 휴게공간 조성
개별 건축물 관련	다가구 건축물 사잇공간	안산시 석수골 마을정원 만들기	다가구밀집지역 내 건물과 건물 사잇공간 활용
	공개공지	강남업무지구	상업·업무지구 내 법적인 공공공간 확보
		종로구 일대	공공공간으로서 공개공지의 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기타 도시 유희 공간	도시 자투리 유희공간	광진구 화양동 보호수주변 공간	보호수 주변공간 활용
		명일동 우리동네숲	공공시설 활용
	골목길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그린파킹	사유지의 공공공간화
		이문동 고치며살자 프로젝트	골목길의 공공공간화
		보정동 카페거리	상업공간의 활용

## 2) 공공공간 조성주체별 특성

### □ 관 주도 사업

‘관 주도’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같이 법·제도적인 틀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지자체의 공공공간에 대한 사업목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사업방식은 아직까지 최소한의 공급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획일화된 사업위주로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으나 지자체 자체사업과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질 필요가 있다.

### □ 민+관 협력 사업

‘민+관 협력’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민, 관의 장단점을 적절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형태이다. 생활권단위에 대한 수요를 잘 알고 있는 개인이나 사업에 대한 기획능력 및 관련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시민단체가 사업을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기획내용에 대해서 관은 예산과 부지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관에서도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관 주도, 민간 주도 사업이 각각 일방적인 공급, 예산부족으로 인한 실행부문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상호 보완할 수 있다.

### □ 민간 주도 사업

‘민간 주도’사업은 건축물 조성과정에서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개공지와 카페 등의 상업시설을 통하여 특색있는 가로와 공공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업들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민간 주도 사업은 초기사업 시작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추구를 위한 것 보다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협력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3) 공공공간 조성 추진방식별 특성

### □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신도시 조성이나 대규모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비용이 마련된 경우에는 공공공간 조성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기존 시가지에서는 부지확보 및 사업비 문제로 인하여 조성에 한계가 있다. 최근 이에 대한 보완으로 개인 및 시민단체 등이 부지를 제공하거나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안산시 석수골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의 경우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다가구 건축물 사이의 사잇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공개공지도 민간이 직접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업 추진시 관에서는 전문조직을 활용한 조성방안을 위한 전문가 및 행정적 지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참여는 관 주도 사업의 한계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라 할 수 있 있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한 제도로 ‘녹지활용계약’, ‘경관협정’ 등 협정형식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지자체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많다. 한편 도시의 공공공간 조성에 대해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자 중앙정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사업방식별 특징

공공공간이 조성되는 주요 사업방식들을 살펴보면 주로 중앙정부 중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권 단위에서 생활권 주변 공간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되는 것과 중앙정부의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지자체 장의 의지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의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 행정안전부의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의 특징은 사업방식에 있어서 단순한 예산지원에서 벗어나 시범사업을 통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은 지역에 종합적인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예산 및 전문인력(총괄계획가, 디자인검토전문위원)을 지원하고, 년차별로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은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공공미술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과 지역기반의 예술가들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지원 사업의 유형을 마을전체 대상, 기존시범사업 대상, 소규모 대상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공공디자인 모델 정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공공공간 유형별 조성주체, 사업방식, 관련 제도와의 관계도

대구분	구 분		공공공간 유형별 사례																								
			도시기반시설								개별건축물관련			기타도시 유휴공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소공원		근린	공공 공지	하천 주변	공공 시설 주변	녹지	SOC	사잇 공간	공개공지	텃밭	유휴공간 (보호수, 동네숲, 성당)			골목길		기타								
																		보도	교통섬	사유지 녹지							
공공공간 조성주체	관	관 주도사업	●		●	●	●		●	●												●					
	관+민	관 : 예산, 시공지원 민 : 부지제공										●	●														
		관 : 예산지원 민 : 전문조직 지원									●																
		프로그램 운영											●				●										
	시민단체	설계 및 시공, 지역주민의견수렴		●				●	●						●	●											
	민간	건축주, 개인									●	●	●	●	●			●									
상인회																				●							
사업방식 및 기타제도	사업방식	중앙	국토해양부					●		●	●																
			문화체육 관광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	●									●			
			자체일반사업	●		●	●	●		●	●			●	●							●					
		민간	예산지원		●				●			●	(인센티브)				●	●	●	●	●						
			인력지원		●							●					●	●	●		●						
			기타 인센티브									●								●	●	●		●			
	기타제도	경관협정																									
		녹지활용계약제도																●									
		공개공지											●	●													
		토지임대(일본)																							●	●	●
1) [소공원] 영주시 철탄이파트 뒤 소공원 2) [소공원] 삼육어린이 공원 3) [근린공원] 포아동 근린공원 4) [공공공지] 판교 공공공지 5) [하천주변] 판교 저류지 6) [공공시설 주변공간] 안산시 석수초등학교 담장가꾸기 7) 북한산 둘레길 8) [사회기반시설] 인천 동구 배다리 교량하부공간 개선사업 9) [다세대 건축물 사잇공간] 안산시 석수골 마을정원 만들기 10) [공개공지] 강남 11) [공개공지] 종로 12) [텃밭] 강동구 텃밭사업 13) [텃밭] 시애틀 P-patch 지역사회 텃밭가꾸기 프로그램 14) [도시자투리 유휴공간] 아름지기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15) [도시자투리 유휴공간] 우리동네숲 16) [도시자투리 유휴공간] 천호동 성당 17) [골목길] 울산 남구 옥동 그린파킹 18) [골목길] 이문동 고치며 살자 프로젝트 19) [골목길] 보정동 카페거리 20) [기타] 경인교대길 젊음의 거리 특화가로 조성사업 21) [기타] 밴쿠버 Green Street Program 22) [기타] 미츠도시의 시민농원 23) [기타] NPO가 운영, 관리하는 시민녹지 24) [기타] 카시와시 임대정원 제도																											





## 제5장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1.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2. 다양한 사업방식과 제도의 활용
3. 여러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4.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5.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디자인전략 수립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현재 예산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장기 미집행시설이 많아 향후에도 결정된 공원의 집행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도시에 필요한 공공공간을 공공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활권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에 의한 공공공간의 양적 확보나 질적 향상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의 사업방식, 그리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나누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접근방식과 조성전략에 관한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에 제시하는 조성방안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과 방향, 그리고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이 갖추어야 할 공간적 특성과 관련된 사항이 될 것이다.

## 1.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 1) 기존 공공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대상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대지를 새로 조성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기존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동단위의 대상지 찾아야 한다. 특히 기존의 공간들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4장 국내외 조성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이 지역에서 필요한 공간은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판교신도시처럼 지역여건 및 현황에 적합하도록 공공공지를 활용하거나 하천 주변의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학교 담장을 허물어 경계부분을 활용하거나 기존 녹지와 연계하여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 □ 도시기반시설 관련 공공공간 적극 활용

대부분의 도시기반시설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지역의 생활권 단위에서 실제 수요를 파악하여 공급하기 어려우며, 설치기준 또한 도시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지역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에 역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도시기반시설은 어느 도시에나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가능성 또한 크다. 도시기반시설로서 생활권공원, 공공공지나 녹지(특히 경관녹지와 연결녹지), 방재시설인 하천 주변공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기반시설들은 그 기본적인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단위에서 중요한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생활권공원 이외에 공공공지나 녹지, 하천 등의 공간들을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공공에서 공급하는 양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일생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용도를 확정하지 않고 향후에 지역상황에 따라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공지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다. 공공공지는 법규상으로 조성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조성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판교에서는 공공공간을 기획단계

에 반영하여 사업실행단계에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판교 택지개발사업 공공공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조성 이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자체(성남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 수요에 맞게 기존 공간의 리모델링 및 용도 변경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지역의 여건 및 수요에 따라 리모델링하거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앞의 조성사례 분석에서도 나타났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이러한 접근방식이 대부분이다. 다세대 밀집지역의 사잇공간을 공공공간으로 조성(안산시 석수골 마을정원 만들기)하거나 기존의 공공공간을 연계하여 새로운 선형의 공공공간 조성(북한산 둘레길 조성사업), 학교시설의 담장을 허물어 새로운 공공공간 조성(안산시 석수초교 담장가꾸기 사업), 교통 목적으로 설치된 철도교량 하부공간에 버려졌던 공간을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인천 동구 배다리 교량하부공간 개선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2) 도심 내 다양한 유휴공간 발굴

공공공간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공간 활용과 함께 숨은 도시 내 다양한 유휴 공간을 발굴하여 공공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도시 내에는 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들이 의외로 많다.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하긴 하지만 의외로 생활 속에서 중요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사회기반시설, 특히 교량의 하부공간을 활용한 사례는 이제 많이 보편화되었으며,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 주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또한 가로나 도로의 유휴공간들, 특히 교통섬이나 코너 부분을 활용하여 녹지를 조성하거나 벤치를 설치하는 사례도 많다.

이외에도 아름지기의 보호수 주변 가꾸기 사업처럼 우리나라의 마을 대부분에 있는 보호수 주변을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사유지이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한시적으로 공공공간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적 확대 요구

도심 내 다양한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적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공공공간의 개념은 1차적으로는 공원 및 녹지에 한정되어 있으

며, 좀 더 범위를 확장하면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가 포함된다. 그리고 공공이 소유한 부지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공간은 소유보다는 공공이 이용한다는 이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공공공간의 개념을 도시에서 존재하는 애매한 공간들, 즉 경계의 공간들까지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기반시설 하부 및 인접공간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로 결정되어 있으나 도로하부에 유희공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은 대부분 주차장 및 불법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다. 이들 공간은 도시 내 새로운 공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건에 따라 좋은 공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 □ 사유지를 활용한 공공공간 조성

공공공간은 국공유지에만 조성되기 보다는 점점 사유지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직접적인 사유지의 공공공간 조성은 건축법에 의해서 조성되는 공개공지가 대표적이지만, 최근에는 주거밀집지역 내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하여 골목 주차와 함께 사유지를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 밀집지역 내에서는 건물과 건물 사이공간 등도 활용가능한 부지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유주와 주민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이다.

대표적인 민간 소유의 공공공간으로 개별건축물 앞에 조성되는 공개공지나 공동주택 단지 내 조성되는 조경시설 등은 공공성을 가진 공간이므로 도시의 중요한 공공공간이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다. 이는 공간의 소유주(건축주 또는 공동주택 주민)와 공간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2. 다양화 사업방식과 제도의 활용

4장에서 살펴본 다양한 공간들은 실제 지역단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공간의 소유와 관리 주체 등 그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공간 유형이 같더라도 지역별로, 또는 주변 맥락에 따라 그 특성은 또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일반적인 제도적인 틀 안에서 조성되고 유지·관리되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은데, 이러한 공간은 현실적으로 공공의 사업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공공공간을 모두 제도적인 틀 안에서 다루는 것은 현행 법규나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불필요하다. 따라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양한 조성방식들 가운데 주변 여건과 상황에 적합한 것을 찾아 선택하고, 그것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서 적용하는 유연함일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공공에서 추진하는 정형화된 사업방식보다는 번거롭겠지만 의외로 공공공간을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과 제도들은 다양하다.

중앙정부에서는 공공공간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대부분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보다는 규모가 훨씬 큰 마을 단위나 동 단위의 접근이지만 이 안에서 공공공간을 중요한 개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주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기획한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공공공간과 관련된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경관개선사업, 녹지조성사업, 공공디자인사업 등을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시 활용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공공공간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로는 경관법에 의한 ‘경관협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활용계약’이 있다. 국내에서 개별건축물과 관련해서 공개공지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공공공간이 부족한 도심가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1) 다양한 관련사업의 활용<sup>31)</sup>

### □ 국토해양부 :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디자인 정착’을 위해 건축디자인기준 등 건축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신규 정책기법 및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혀 관련 정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도시·국토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시·국토환경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09년부터 진행되었던 시범사업은 2011년부터는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각 지역별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연계를 위하여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에 대한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의 성격으로 진행되었다. 작년까지 16개 사업에 계획수립비 등 총 35억의 재정지원과 민간전문가(총괄계획가, 디자인검토전문위원)를 지원하였다. 사업지원은 신규 사업은 계획비용을 지원하고, 계속 지원사업은 기존에 선정되었던 사업 중 계획수립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 문화체육관광부 :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마을미술프로젝트)

마을미술프로젝트의 목적은 지리·역사·생태·문화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는 마을과 거점시설을 공공미술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공미술을 통해 일상공간을 특색있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사업으로 ‘행복 프로젝트’, ‘기쁨두배 프로젝트’, ‘테마이야기’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 □ 행정안전부 :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10개 중소도시를 선정·육성함으로써 지자체 공공디자인 모델의 선진화 및 확산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사업대상 지역을 문학, 공예, 음악, 음식, 영화, 미디어아트 등 주요테마별로 유형화하여 지역특색 및 자연과 전통을 반영한 공간환경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이다. 사업방식은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공공디자인 전문가 그룹인 지역공공디자인 포럼 위원의 중간 점검 및 자문을 통하여 사업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

31)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제2장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관련 추진사업 및 기타제도 참고.

□ 지자체 : 강동구 텃밭사업(강동 친환경 도시농업 2020프로젝트)

강동구 구청장의 지속가능 생태도시 공약의 일환으로, 강동구 내의 친환경 자연자원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강동구 내에 무단 점유된 국공유지를 개간해서 사용하였다. 현재 도시텃밭이 조성된 강일동의 경우 사업 시행 이전에만 해도 컨테이너 무단 적치, 경작, 방치된 쓰레기로 인해 주민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주는 대표적인 유휴지였다고 한다.

주요 참여주체는 주민과 강동구청으로, 강동구청은 지역경제과 밑에 친환경도시농업팀을 신설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강동구는 조성 단계에서 지역 내 유휴지를 전수 조사하여 무단 경작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시키며 사업을 준비하였다.

지난 2010년 8월 도시텃밭 가을 농장을 개장한 이후, 2010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면서 연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 지자체 : 시애틀 P-patch 지역사회 텃밭가꾸기 프로그램

P-patch는 1974년 시작된 커뮤니티 가든(도시공동체 텃밭)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 정원 만들기를 통해 녹색의 오픈 스페이스를 넓혀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한다. 여기서 P-Patch는 일반적으로 식물과 야채를 재배하기 위한 개인의 소규모 임대 플롯이나 가드닝(gardening allotments)을 할 수 있는 도시 공동 공개 사이트(urban communal public site)를 말한다.

시애틀에는 현재 75개의 P-patch가 존재하는데, 다른 도시의 커뮤니티 가든과는 달리 시애틀에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지역의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 저소득층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활용 목적에 따라 커뮤니티 가든 외에도 식량 안전을 위한 가든(community food security), 청소년 가든(youth gardening), 마켓 가든(market gardening) 등이 운영되고 있다.

□ 지자체 : 밴쿠버의 Green Street Program

캐나다 밴쿠버 시의 Green Streets Program은 시민들이 교통섬(traffic circles)과 코

너(corner bulges)를 이용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그들의 지역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다. 1994년 Vancouver's Mount Pleasant Neighbourhood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다른 지역사회에서도 Green Streets Program이 진행되기 시작했고,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2020년 녹색수도를 만들기 위해 밴쿠버에서 진행되는 Greenest City 2020 Draft Action Plan(City of Vancouver)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1994년부터 시작된 Green Programs은 One Day Program과 Green Street Program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환경정비 및 개선의 효과도 더욱 상승시키고 있다.

## 2)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sup>32)</sup>

### □ 경관법에 의한 경관협정 : 신월동 경관협정사업

경관협정 시범사업은 2007년 경관법 제정으로 도입된 주민참여형 경관관리제도인 경관협정제도에 의한 시범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스스로 자기지역의 경관을 가꾸고 관리해 나가고 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월동 경관협정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 완공예정인 사업으로, 서울시, 양천구, 신월2동 주민가 참여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은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후도가 떨어져 당분간 대규모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을 곳으로 판단되고, 주민의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경관협정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주민발의가 아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 팀(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총괄계획가 신중진 교수 및 연구원)이 우선적으로 대상지를 파악하고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일정을 조정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물리적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참여의지와 예산 편성에서의 우선적 배정 사업 등에 대해 결정하였다.

신월동 경관협정사업은 '이웃과 함께 걷고 싶은 마을만들기'를 모토로, 아름다운 보기 좋은 마을만들기(임면), 푸른마을 조성(녹화), 걷기쉽고 안전한 길 조성, 깨끗한 거리 조성을 주요 협정내용으로 한다.

---

32)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제2장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관련 추진사업 및 기타제도 참고.

#### □ 녹지활용계약 제도 : 천호동 성당

녹지활용계약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시민이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 확충을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시민에게 제공하고, 시는 해당 토지의 유지와 활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천호동 성당은 2011년 국내 최초로 조성된 사례로, 오랫동안 별도의 녹지공간이 마련되지 않았던 지역에 천호동 성당의 토지를 활용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였다. 서울시는 성당 측과 5년 계약을 맺었으며, 이 기간에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가 면제된다.

녹지활용계약에 따라 시는 토지보상비 100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으며, 대신 정자, 산책로 및 배수로를 설치·정비하고, 수목 등을 식재하여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 □ 일본의 다양한 관련 제도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해서 공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방식도 부지특성이나 활용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마츠도시의 시민농원은 농가가 주도로 개설하는 농지이용방식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국가가 만들어 주었다. 시민녹지제도는 NPO가 운영, 관리하는 시민녹지이다. 또한 사유지를 임대하여 정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카시와시 임대정원은 공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모두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제까지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국내외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은 공간 유형만큼이나 다양하며, 같은 유형이더라도 주변 맥락에 따라 매번 달라질 수 있다.<sup>33)</sup> 따라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지의 여건과 주변 상황에 적합한 사업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법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사업방식을 고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할 사람, 즉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을 만드는 주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

---

33) 여기서 살펴본 사례 외에도 다양한 사업방식과 제도들에 대한 내용을 부록에서 정리하였다.

### 3. 여러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1) 다양한 주체참여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공급하기 보다는 지역 단위에서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상향식 접근이 적합하여 필연적으로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관이 주도하고 관련 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사례, 민간이 부지를 제공하고 관에서 주도한 사례, 구청에서는 예산과 시공을 지원해주고 시민단체와 주민이 추진한 사례, 관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비영리 조직이 지원한 사례, 민(부지)+시청(법률검토)+사회단체(주민참여유도)+학교(디자인, 종합계획) 등과 같이 복잡한 추진체계를 구축한 사례 등 사례별로 모두 각기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추진체계는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추진체계가 대상지와 사업추진방식에 더 적합한지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대략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관주도’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같이 법·제도적인 틀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지자체의 공공공간에 대한 사업목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사업방식은 아직까지 최소한의 공급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획일화된 사업위주로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으나 지자체 자체사업과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비해 ‘민+관 협력’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민, 관의 장단점을 적절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형태로, 주로 민간부분에서 제안되는 기획을 검토하여 관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민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관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주도’ 사업은 공개공지와 같이 건축물 조성과정에서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거나 카페 등 상업시설에 의해 특화된 가로의 공공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민간주도의 사업은 개인의 이익추구 보다는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2) 교육과 홍보를 통한 관련 주체의 인식 개선<sup>34)</sup>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전반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지자체, 지역단체, 토지소유자,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역할들이 각 주체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뛰어난 인력(공무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시민)단체, 토지소유자, 주민과 잘 소통해야 하며, 토지소유자 및 주민과 신뢰감을 구축하고 각 주체들의 요구에 대해서 적절히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홍보 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공간 조성과 관련된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갑자기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사람들이 먼저 달라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공간의 수준이 높은 영국이나 미국은 CAFE나 PPS에서 꾸준히 조성주체별 인식개선을 위한 매뉴얼, 공공공간 가치제고를 위한 매뉴얼 등을 제작해서 보급했으며, 현재도 이와 같은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을 만들어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줌으로써 공공공간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주민 또는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과제를 명확히 파악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제도 및 사업을 구상해 낼 수 있도록 사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과 같이 좋은 공공공간을 발굴하거나 동네조경가를 찾습니다 아이디어공모전과 같이 작은 공간들에 대한 공공공간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시상제도가 있다. 해외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공간과 관련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파킹데이(Parking Day),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도시 내 공공공간을 개선하려는 영국의 Forgotten Space와 같은 이벤트들이 있다.

---

34) 다음에 제시되는 사례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제3장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관련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참조.

## □ 시상제도

### ① 좋은 공공공간 사례 발굴 :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_더 좋은 장소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은 지역사회 중심의 공간문화 창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과 지속적인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국제적 도시 경쟁력을 갖춘 시민공간과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고자 전국의 좋은 공간을 위해 애쓴 시민과 그 공간에 대하여 시상하는 제도이다.

추천대상은 지자체, 법인, 개인, 시민단체 등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기초 행정 단위(읍, 면, 동)나 그 보다 더 작은 마을, 거리 규모의 장소 등이 가능하며, 시상대상은 주민의 삶, 시민의 공간, 지역문화의 확립에 기여한 구체적인 물리적 장소와 공간환경의 창조, 그리고 이의 실현화를 위한 마을, 도시, 지역 내 주민, 민간,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개별적 혹은 공동 계획 활동과 실현화의 노력 과정 등에 대해서이다.

각각의 주제에 부합하게 ‘두레나눔상’, ‘거리마당상’, ‘누리쉼터상’, ‘우리사랑상’의 4개 부문을 시상하는데, ‘두레나눔’ 분야는 지역의 공간문화를 만드는데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사례를 대상으로, ‘거리마당’ 분야는 거리, 광장 등 지역사회의 도시공간을 창의적 아이디어로 개성 있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개선한 사례를 대상으로, ‘누리쉼터’ 분야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지역사회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한 사례를 대상으로, ‘우리사랑’ 분야는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존, 활용하여 주민들의 공간환경을 개선한 사례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 ② 작은 공간들에 대한 아이디어발굴 : 동네조경가를 찾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이 공모전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개선해야 할 조경대상을 찾아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조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시민참여를 통해 조경의 대중화, 문화화를 목적으로 2009년 시작되었다. 공모대상은 일상생활 곳곳에 산재한 개선해야 할 조경의 현황 사진 및 개선 아이디어(그림, 설명 등 형식자유)이다.

## □ 공공공간 가치인식 이벤트

### ① 미국의 Parking Day

PARK(ing) Day는 매년 열리는 세계적인 이벤트로, 시민, 예술가, 활동가들이 일시

적으로 주차장(parking space)을 일시적 공원(PARK(ing) space)으로 바꾸는 프로젝트이다. 매년 9월 셋째 주 금요일에 개최되고 있는데, 2005년 샌프란시스코 Rebar라는 Art&Design 스튜디오에 의해 시작되어 단체, 개인 등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PARK(ing) Day의 목적은 보다 많은 도시의 오픈스페이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그에 대한 비평적 토론을 생성시켜 도시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2010년에는 30개국, 183개 도시, 800여 곳에서 진행되어 활발하게 행사가 진행되었다.

2005년 Rebar의 오리지널 PARK(ing) 프로젝트는 도심 공공공간이 부족한 샌프란시스코의 주차공간 하나를 임시적 공공공간으로 바꿨는데, 이후 이 프로젝트의 사진이 인터넷 공간에 퍼지면서 다른 도시에서도 이와 같은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였다. 이후 행사의 지속성을 위하여 각종 정보공개에 의한 다양한 전개가 이루어졌다. Rebar는 초창기의 프로젝트를 되풀이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정보를 오픈하고 어떻게 작업하면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이 매뉴얼을 웹사이트에서 9.99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PARK(ing) Day는 주차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공공간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이벤트이며, 동시에 도시의 공공공간이 가지는 풍부한 문화적 경험과 놀이를 통한 사회화 과정 등에 대해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 ② 영국의 Forgotten space

영국왕립건축가협회(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이하 RIBA)에서 주관하고 Design for London과 Qatari Diar 등에서 협찬을 받은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런던에서 버려지거나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공간을 건축가나 아티스트가 직접 찾아내어 규정하고 새로운 사용방안을 제안하는 설계공모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2010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2011년 두번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sup>35)</sup>

2008년 이후 영국에 불어 닥친 불황으로 건축계가 위축되자 RIBA London는 건축가들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젝트 기회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건축가 본인들이 직접 각종

35) Forgotten Spaces 2011 홈페이지

<http://www.architecture.com/RegionsAndInternational/UKNationsAndRegions/England/RIBALondon/EventsAndProjects/ForgottenSpaces2011>

버려진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프로모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개발업자들과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개발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관과 시민들에게는 버려져 있는 공간들에 대한 시야와 관심을 열어주어 같이 이 공간들의 개선작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Forgotten space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아이디어 설계공모전과 달리 이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RIBA London에서는 최대한 많은 개발업자와 투자자, 각 구청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수상식과 각종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전시회에서 작업들과 아이디어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여 땅 주인들과 해당 지역관청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에 다양한 토론을 불러일으키도록 유도하였다.

#### □ 다양한 매뉴얼의 제작

##### ① 영국의 CABE에서 제작한 매뉴얼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 Build Environment)에서는 공공공간과 관련한 기준, 매뉴얼 등을 제작하고 있다. 특히 공공공간의 디자인에 관한 자문기관인 CABE SPACE(2003년 설립)는 공공공간 관련 특화 연구와 주민 참여형 공공공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공공공간 관련 정책 및 구체적 실천 방안 수립, 공공공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교육 및 홍보, 공공공간 만들기 프로젝트 가이드 작성을 통한 시민참여 유도 등이다.

CABE에서 제공되는 공공공간 관련 매뉴얼(2010~현재)은 다음과 같다.

- *Creating successful masterplans: a guide for clients*
- *Managing green spaces: seven ingredients for success*
- *Community-led spaces: a guide for local authorities and community groups*
- *Sight Line: designing better streets for people with low vision*
- *Community green: using local spaces to tackle inequality and improve health*
- *Decent homes need decent spaces: an action plan to improve open spaces in social housing areas*

- *Urban green nation: building the evidence base*
- *Green space skills 2009: national employer survey findings*

이러한 매뉴얼에는 여러 경험과 실천사례를 토대로 공공공간 구성에 있어서 지방정부, 전문가(계획가, 설계가, 관리자 등), 참여자(지역주민)의 각각 역할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Manifesto for Better Public Spaces*(2004)는 좋은 공공공간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공공공간의 향상을 위해 시민(주민)들이 커뮤니티의 참여를 촉구하는 캠페인의 하나이다. 300개가 넘는 영국의 지역단체들이 이 캠페인을 지지하고 실행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이 우수한 공원, 가로 등의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가꾸는 일은 국가와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공공공간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좋은 디자인이 가지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디자이너, 계획가, 관리자 모두가 좋은 공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국가 및 지역의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② 미국의 PPS 프로그램

PPS(Project for Public Space)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공공공간의 생성과 유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975년 건립된 비영리단체로,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기술적 지원, 계획, 설계, 교육, 연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장소만들기(place making)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뉴욕을 중심으로 공원, 시장, 가로, 역사, 도서관 등 도시 속 공공공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미국의 50개주와 40개국, 2,500개의 공동체(커뮤니티)와 함께 협력하여 확장되고 있다.

PPS의 주요 활동은 도시공간을 좋은 장소로 변화시키기 위한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지역과 장소를 재생시키기 위한 장소만들기(place making)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기법과 실현 사례는 인터넷, 책 등의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홍보되어 지속적으로 도시 내에 좋은 장소를 만드는 활동을 촉진한다.

1975년에 시작된 PPS는 다양한 소규모의 도시공간을 다루고 있다. 50개주, 40개국, 3000개에 가까운 커뮤니티들은 도시 광장에서 대중교통시설, 공공 시장, 종교시설 등에

이르는 다양한 장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간의 특성에 따라 9개의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즉 PPS에서 다루는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9개의 프로그램(공원, 교통시설, 마켓, 중심가, 공공건축물, 복합시설, 캠퍼스, 광장, 수변공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또한 PPS는 매년 10,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교육(홈페이지의 여러 자료, 출판물, 도구 등을 통해)시켜서 장소만들기를 위해 활용한다.

[표 5-1] PPS Program 적용현황

프로그램	개수	사례
공원	27	Rethinking Grand Army Plaza(Brooklyn, NY, 2006–present)
교통시설	56	Developing Public Participation Tools in Transit Dependent Communities(Brooklyn, NY and Los Angeles, CA, 2008–2010)
마켓	37	The Main Street Farmers Market(Washington, PA, 2009–2010)
중심가	25	Rethinking Greater Kennedy Plaza(Providence, RI, 2008–Present)
공공건축물	18	Upper Kirby Civic Center Complex(Houston, TX, 2010)
다복합시설	12	Retrofitting Suburbia with Neighborhood Hubs(McKinney, TX, 2008–Present)
캠퍼스	10	Oklahoma State University Student Union Plaza(Stillwater, OK, 2009)
광장	21	Houston Market Square(Houston, TX, 2007)
수변시설	11	Rippowam Mill River Watershed Restoration(Stamford, CT, 2008–Present)
기타	Featured (22), International (16), Regional (32), Training (17)	

지금까지 공공공간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시상제도, 공공공간 가치인식을 위한 이벤트, 매뉴얼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시상제도의 경우, 공공공간 조성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치를 재인식시켜 준다. 가치인식 이벤트의 경우, 주변에 공공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공간들에 대해서 캠페인의 형태를 진행하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공간을 찾아서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공모전 등도 진행하고 있다. 매뉴얼은 영국 및 미국의 공공공간 관련단체가 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공공간에 대한 가치제고와 조성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별로 어떠한 공간이 좋은 공간인지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매뉴얼은 공공공간의 다양한 유형 및 상황에 맞추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 4.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이제까지 제시한 것처럼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공간 조성 부지 확보, 다양한 사업방식과 제도의 활용, 여러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등은 현 제도 안에서 관련된 주체들(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전문가, 주민, 관련전문가 등)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차원에서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1)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 수립

도시차원의 계획적인 접근으로는 지역단위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을 공급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현 제도에서도 대도시는 자치구 단위에서, 중소도시는 동단위에서 지역의 수요에 맞는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들은 지역단위 혹은 생활권 단위에서 개별적인 상황과 조건, 요구에 적합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도시에서는 도시적 차원에서의 공공공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소홀히 다루어졌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정책적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에 대한 기본 목표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이나 사업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 대부분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정책 방향과 전략이 분명하게 설정되면 이후 사업 추진은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 2)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관련 법규 및 구체적인 설치기준 마련

이 연구에서는 현 제도적인 틀 안에서 조성되고 유지·관리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유형도 연구의 범위 안에서 다루고 있으나 실제 지역단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들은 대상지의 특성상 소유와 관리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주변 맥락이 복잡하여 현 제도적 틀 안에서 다루기 애매한 것들이 훨씬 많다.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유형과 관련된 각 현행 법규 및 구체적인 설치기준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2]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관련 법규

구분				근거법 및 결정기준	조성 및 시설 설치기준
도시 기반 시설 관련	공간 시설	도시공원	생활권공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공공공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방재 시설	하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하천법 · 소하천정비법
건축물 관련		공개공지		· 건축법	· 지자체별 건축조례
기타 도시 유희공간		도시텃밭		—	· 지자체별 도시농업 관련 조례
		공동주택 조경시설 등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토해양부고시 조경기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공간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위의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모두 적합한 법규를 만들고 개정하기 어려우며 또 그럴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간혹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미흡해서 활용되지 못하는 공간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사례에서처럼 국가에서 만든 제도를 경우에 따라 각각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별 사례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츠도시는 독자적인 시민농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시와시는 카시니와 제도라는 것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제도가 각 도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융통성이 국내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 3) 전문인력 지원방안 마련

이제까지는 공공에서 예산 확보를 통해 공공공간을 더 공급해주는 방식을 주로 선택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접근보다는 공공공간의 조성 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예산의 활용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시설 확충에만 주목할 것이 아

나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의 인재양성에 주목하여 이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한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공간보다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공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주체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공간 조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4) 민간참여 방안 마련

현재 예산부족으로 장기 미집행시설이 많아 향후에도 현재 결정된 공원의 집행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열악한 상황이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예산확보를 위하여 공원의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조성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해외에는 민간 참여를 통한 공공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가 보편화되고 있다. 국내의 현실적인 여건도 이제는 민간의 참여를 기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신도시 조성이나 대규모 정비사업 등을 통해 사업비가 마련된 경우에는 공공공간 조성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기존 시가지에서는 부지확보 및 사업비 문제로 인하여 조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최근 개인 및 시민단체 등 민간부분 참여가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민간이 참여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 5.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디자인전략 수립<sup>36)</sup>

### 1)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실제 좋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방향 또는 원칙이 필요하다. 이것은 관련 주체는 모두에게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민외(2008)에서 제시한 좋은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9가지 실천방향, “(기획 및 구상단계)장소의 가치향상, 부분보다 전체, 발상의 전환, (실행단계)통합·총체적 접근, 적절한 전문가 활용, 적극적인 주민참여, 다양한 주체의 협력, 점진적 사업 추진, (유지관리단계)지속적 관심”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을 잘 만들기 위해 기억해야 할 10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디자인보다 장소만들기에 관심을 기울여라** ; 좋은 공공공간을 만드는 목적은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도 있다. 따라서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고민의 출발은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내용과 프로그램을 담을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2.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종종 우리의 공간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장 열악한 공간이 우리의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건 불가능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좋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3. 버려진 공간을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라** ; 과거에 조성된 공간은 도시 진화 과정에서 쓸모없는 공간으로 버려지기도 한다. 산업 구조가 바뀔에 따라 공장이나 창고가 더 이상 쓸모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운송 수단과 도시 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 철로나 항만 시설이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버려진 공간에 주목하여 그 공간이 가진 새로운 잠재력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4. 서두르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 계획이 너무 거대하고, 비용이 많이 들

---

36) 이제까지 제시한 5가지 조성방안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전략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을 만드는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 지나치게 장기적이면 실행가능성이 적어진다. 먼저 단기적 사업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6~12개월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 처음에 부정적이었거나 비판적이었던 반응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된다.

**5. 필요할 경우 여러 가지를 묶어서 생각하라** ;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환경을 영역의 구분 없이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데에 반해, 도시에서 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영역별로 독립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분리된 시스템으로는 현재의 커뮤니티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기능, 다양한 공간에 대해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6. 지역 주민이 전문가다** ; 어떤 공간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그 지역 주민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주민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들 삶의 터의 소소한 부분까지 알고 있으며, 이 살아있는 정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와 대안을 찾아가는 발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주민이 어떤 공간의 주인이자 관리자가 되게 하려면 그것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7. 여러 주체가 협력해야 한다** ; 대부분의 도시공간은 복잡한 문제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 대상은 공공/민간전문가, 지역소재의 대학, 민간기업이 될 수도 있고, 생활환경의 질이 좋아지면 이익을 보게 될 인근의 상인이나 주민이 될 수도 있다. 각 주체들은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단계와 역할이 각각 다르다.

**8.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라** ; 창조적 아이디어 도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 사업 기획,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문가 또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9. 좋은 공간환경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 좋은 공간환경 조성은 그것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계속되는가에 달려있다. 아무리 좋은 디자인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한 장소가 될 수 없다. 좋은 관리는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하며, 공간의 유형뿐만 아니라 공간이 조성되는 지역적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10. 상황에 적합한 접근방식과 지원제도를 찾아 적극 활용하라** :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유형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같은 유형이더라도 상황적인 조건이 각기 다르므로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다양한 사업방식과 제도 등을 검토하고 주어진 여건을 파악하여 지금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크지 않으므로 활용가능한 지원제도나 사업이 많다.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시한 10가지 원칙 이외에도 참고가 될 만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들이 있다. 먼저 차주영외(2009)가 제시한 “좋은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MANIFESTO 10”<sup>37)</sup>와 도시연대 커뮤니티디자인센터가 제시하고 있는 커뮤니티디자인의 원칙<sup>38)</sup>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시에도 해당되므로 관련자들이 기억해야 할 자세 또는 행동지침이 될 것이다. 특히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을 만드는 행위는 일종의 커뮤니티디자인이므로 커뮤니티디자인의 8가지 원칙도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다.

---

37) 좋은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MANIFESTO 10

1. 도시는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체이다. 통합적으로 사고한다.
2. 멀리 보고 점진적으로 조성한다.
3. 다채로운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4.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생활공간의 즐거움과 가치를 존중한다.
5. 여러 주체의 협력을 도모한다.
6. 지역주민이 주인이다. 주인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7. 더불어 사는 나눔의 사회를 위한 열린 공간을 추구한다.
8. 각각의 장소에 적합한 스케일을 추구한다.
9. 땅과 장소의 기억을 존중하고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10. 섬세하게 접근하되 지나친 디자인을 경계한다.

38) 도시연대 커뮤니티디자인센터가 제시하고 있는 커뮤니티디자인의 원칙

1. 커뮤니티 디자인은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public access)
2. 커뮤니티 디자인은 쉽게 사용 가능해야 한다.(public use)
3. 커뮤니티 디자인은 모두가 참여 가능해야 한다.(public participation)
4. 커뮤니티 디자인은 서로가 소통 가능해야 한다.(public communication)
5. 커뮤니티 디자인은 공공의 장소를 기반으로 한다.(public place)
6. 커뮤니티 디자인은 공공의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public support)
7. 커뮤니티 디자인은 쉽게 이해되는 디자인이어야 한다.(public design)
8. 커뮤니티 디자인은 쉽게 가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public maintenance)



## 2) 좋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설계기준 마련

이 연구의 제2장에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특성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이 다섯 가지 특성은 다음 표와 같이 다시 세부적인 속성들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조건은 좋은 공공공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자, 좋은 공공공간의 조성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공간의 평가기준이 될 수도 있다.

[표 5-3] 좋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조건 및 세부속성

조건	세부속성
열린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access & link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하기 쉬운 공간(readability)</li> <li>·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accessibility &amp; convenience)</li> <li>· 가까이에 있어 쉽게 접근가능한 공간(proximity)</li> <li>·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continuity &amp; connectedness)</li> </ul>
안전성과 편안함 (safe & comf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근한 공간(friendliness)</li> <li>·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sittability &amp; relaxation)</li> <li>· 걷고 싶고 걷기 편한 공간(walkability)</li> <li>· 장애인·노약자 등의 이용을 배려한 공간(universality)</li> </ul>
다양한 이용과 활동 (use & activ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여가활동의 무대가 되는 공간(urban recreation)</li> <li>· 흥미를 유발시키는 공간(attractiveness &amp; enjoyment)</li> <li>·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가능하며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diversity)</li> </ul>
정체성있는 이미지 (identity & 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history &amp; education)</li> <li>· 문화적 자산으로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pride)</li> <li>· 이야기 거리가 있는 공간(story telling)</li> <li>· 아름다운 외관으로 예술적 가치를 지닌 공간(beauty &amp; charm)</li> <li>· 품격높은 디자인으로 계획되고 시공된 공간(design &amp; detail)</li> </ul>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ownership &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성 및 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애착이 있는 공간(participation)</li> <li>· 경제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간(affordability &amp; maintenance)</li> <li>· 오래도록 지속가능한 공간(sustainability)</li> </ul>

공간을 만드는 주체들이 이러한 좋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기본적인 조건과 특성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만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여러 주체가 참여할수록 명확한 디자인 방향과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공공공간 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세부설계 지침을 만들 수 있는데, 행정담당자나 설계가, 주민 등은 이것을 각자의 역할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제6장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 개발

1. 매뉴얼의 목적과 활용방향
2.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안)

### 1. 매뉴얼의 목적과 활용방향

#### 1) 매뉴얼의 개념

매뉴얼(manual)이란 사전적으로는 설명서로 내용이나 이유, 사용법 따위를 설명한 글로서 ‘설명서’, ‘사용서’, ‘안내서’로 바꾸어 말할 수 있으며<sup>39)</sup>, 영어로 manual은 소책자, 취급 설명서, 편람, 안내서 등으로 번역된다.

국내에서 매뉴얼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핸드북, 가이드라인 등이 있는데, 핸드북(handbook)은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추려 엮은 작은 책자를 말하며, 특히 영어로는 직업 교육용 등의 안내서나 입문서 또는 특수 분야의 참고서, 편람, 교본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guideline)은 주로 정부가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제의 범위를 지칭한다.

이와 비슷하게 가이드(guide)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이것은 가이드라인보다 상위어로서 관광 따위를 안내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며 가이드북(guidebook)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은 핸드북에 가까우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느슨한 가이드라인의 성격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39) 네이버 국어사전, 국립국어원.

## 2) 매뉴얼의 목적과 활용방향

### □ 매뉴얼의 목적과 기본방향

이 연구는 지역에서 일상생활과 밀착된 공공공간을 조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고, 동시에 전문적인 설계자 확보도 어려운 지역에서 최소한의 공간환경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한다.

해외에서 발간된 매뉴얼들은 어떻게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 등과 같이 과정에 대한 매뉴얼은 물론이고, 도로시설, 가로시설물 등에 대해 디자인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매뉴얼까지 형식과 내용이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 매뉴얼이라 하면 마치 획일화된 디자인을 생산하는 도구로, 일종의 레시피 같이 인식되어 설계의 창의성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매뉴얼은 해외에서처럼 매뉴얼의 활용목적과 활용단계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며, 설사 디자인 매뉴얼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디자인 유형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은, 장소만들기 매뉴얼<sup>40)</sup>과 디자인 매뉴얼의 성격을 보완하여 지역에서 일상생활과 밀착된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검토사항 및 주안점을 조성과정에 따라 제시하는 동시에, 다양한 관련 사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공간 유형별로 적절한 디자인을 결정하고 발전시키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 □ 매뉴얼의 활용주체 및 활용방안

매뉴얼의 활용주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을 조성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공무원, 설계자, 지역 주민 등이다. 특히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은 사업대상지나 사업 자체의 특성상 공무원, 주민, 제3섹터(시민단체, 설계자) 등 각기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주체로서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주체 참여의 성공여부가 곧 좋은 공간 조성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각기 다른 주체들이 공공공간 조성이라는 동일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참고할

---

40) 장소만들기와 관련된 매뉴얼은 주로 장소가 가지는 다양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좋은 장소를 만드는 과정에 주목하여 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주요한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수의 공무원이나 전문설계자보다는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수 있는 공동의 핸드북 또는 지침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주체가 공동의 언어를 가지고 지향점을 찾을 수 있으며, 서로 이해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각 주체별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6-1] 활용주체별 활용방안

활용 주체	활용 방안
공무원	일상생활 속의 공공공간에 대한 이해와 가치 인식 공공공간 조성시 업무 처리지침 다양한 조성사례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 설정
설계자 또는 시민단체	일상생활 속의 공공공간에 대한 이해와 가치 인식 다양한 조성사례를 통한 아이디어 도출
주민	일상생활 속의 공공공간에 대한 이해와 가치 인식 일상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와 방법 습득 다양한 조성사례를 통한 공간 활용 및 유지관리 방향 설정

#### □ 매뉴얼의 구성 및 형식

매뉴얼 구성과 형식은 구체적인 디자인 어휘를 제시하기 보다는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와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좋은 디자인을 유도하고, 국내외 다양한 사례에 대해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사업을 추진시 실제 적용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앞의 2장부터 5장까지 진행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먼저 1장에서는 매뉴얼에 대한 이해(#1. 먼저 읽어보기!) 부분으로, 매뉴얼의 필요성, 활용주체와 활용방안, 매뉴얼의 구성 등에 대해 정리하며, 주로 이 연구의 6장 1절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다.

2장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2.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만들기!)에 관한 부분으로, 이 연구의 2장에서 살펴본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유형과 특성 등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10가지 원칙과 조성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사례와 연결하여 제시하는데, 주로 이 연구의 4장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마지막 3장은 관련 사례모음(#3. 국내외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엿보기!) 부분으로, 매뉴얼을 참고하는 사람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1~3장에서 언급된 내용들과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 2.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안)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안)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1. 먼저 읽어보기!

- 매뉴얼은 왜 필요한가?
- 매뉴얼은 누가,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가?
- 매뉴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2.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만들기!

-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이란 무엇인가?
-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특성은 무엇인가?
-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만들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조성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3. 국내외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알아보기!

- 관련 사례모음



## 제7장 연구요약 및 제언

이 연구는 도시의 부족한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공공공간의 공급에서 소외된 지역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담당공무원이나 주민, 실무자 등 관련 주체들이 실제 사업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여기서 매뉴얼은 예산, 인력 등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디자인 품질을 확보하여 장소적 맥락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을 조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에 조성된 관련 사례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개념을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이 위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정의하였다. 특히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좀 더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활밀착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유형을 도시기반시설 관련한 공공공간(생활권공원, 공공공지, 하천 주변공간, 녹지, 공공시설 주변공간, 사회기반시설 하부공간), 개별건축물 관련한 공공공간(공개공지 등), 기타 도시 유희공간(도시 자투리 유희공간, 도시텃밭, 골목길, 공공주택 조경시설 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도시의 일상적 생활공간으로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유형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국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유형별 조성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도시(서울, 성남, 영주)를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실태를 조사하고 현실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도출을 위해 유형별로 국내외 관련 조성사례를 선정, 각각의 사례에 대해 조성방식과 조성체계, 공간적 특성 등을 조사,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을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사업방식, 그리고 다양한 주체 참여,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디자인 전략 수립 등 다섯 가지로 제안하였다.

먼저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공공공간의 적극적인 활용과 도심 내 다양한 유휴공간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기반시설 관련 공간의 활용, 기존 공간의 리모델링 및 용도 변경,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 확대, 사유지의 공공공간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양화 사업방식과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 국내외 다양한 사업과 제도를 검토하였는데, 국내외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은 공간 유형만큼이나 다양하며, 같은 유형이라도 주변 맥락에 따라 매번 다르므로 결국 적합한 사업방식을 고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조성주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공공공간 조성 과정에서 여러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관련 주체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제까지 제시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공간 조성 부지 확보, 다양한 사업방식과 제도의 활용, 여러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등 외에 현 제도 안에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도적 차원에서 기반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과 전략 수립, 관련 법규 및 구체적인 설치기준 마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적극적인 민간참여 등이 요구된다.

다섯번째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디자인전략 수립을 제안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4가지의 조성방안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었다면, 이것은 공공공간을 만드는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시 지켜야할 10가지 실천방향과 좋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조건을 제

시하였다. 이것은 좋은 공공공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자, 좋은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공공공간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을 바탕으로 조성의 기본방향과 원칙, 조성과정별 주안점, 그리고 국내외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하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안)”을 작성하였다.

이처럼 도시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제시하는 매뉴얼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공간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시 관련 주체들이 참고자료로서 활용가능하며,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주민, 관련 실무자,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제도적 틀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애매한 도시 공간의 공공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정책 수립이나 제도 개선시 유익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일상적 생활공간으로서 도시 공공공간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좋은 공공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담당 실무자나 공무원, 주민 등 관련 주체들이 쉽게 이해하여 사업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된 이 연구는 향후 여러 가지 과제를 남기고 있다.

먼저 앞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조성방안을 구체화하여 좀 더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개선해야 할 법규와 설치기준, 그리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결과의 일부로 개발된 매뉴얼은 실제 사업에 적용하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 좀 더 구체화시켜나가야 하며, 향후에는 조성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체크리스트나 업무지침, 유라·관리를 위한 매뉴얼 등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사업단(2010), 「한국의 녹색도시마을 만들기」, 국토연구원.
- 국토해양부(2008),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디자인기준」, 국토해양부.
- 김광중(1997), 「유희도로 공간을 활용한 녹지확충방안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원주(2007),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닉 웨이츠(2008), 「커뮤니티 플래닝 핸드북」, 미세움.
- 문화관광부(2006), 「주민과 함께 도시경관 만들기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규제에서 참여로 그리고 문화로」, 문화관광부.
- 박문호 외(1996), 「도시 소공원의 확보 및 조성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수정, 고은정(2008), 「공공공간을 매개로 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서울그린트러스트(2007) 「2007 우리동네숲 리포트」, 서울그린트러스트.
- 서울특별시 디자인총괄본부(2008),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2010), 「서울휴먼타운 선유골 제1종지구단위계획디자인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2011),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설계 길라잡이」, 서울특별시.
- 얀겔(2003), 「삶이 있는 도시 디자인」, 푸른솔.
- 양한나(2010), 「녹색지붕 조성사업 매뉴얼 작성 및 도심 녹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환경부.
- 양한나(2010), 「도시녹지네트워크를 위한 녹색길 조성사업 가이드라인 작성 연구」, 환경부.
- 유병림(1996), 「도시소공원의 개념 및 정리」, 「도시문제」, 10월호, pp.9-25.
- 이상민, 고은정, 임유경(2008), 「공간환경디자인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상민, 차주영, 임유경(2007),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차주영, 임유경, 김영현(2008) 「도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임유경, 고은정(2009), 「기성시가지 공공공간 현황진단모형 개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차주영(2009), 「2009 AURI 건축도시포럼 : 우리의 좋은 공간환경 찾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차주영, 임현성, 이상민(2009), 「중소도시의 도심활성화 전략으로써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커뮤니티 디자인센터(2009),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다」, 커뮤니티 디자인센터.

한국도시설계학회(2006) 「기업과 함께하는 가로경관과 도시문화 향상을 위한 건물전면 공간활용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2009), 「Better Spaces, Beautiful Life: 죽구 고품격 도시문화명소 창조」,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생활권 공공공간에서의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조경학회, 국토연구원(2010), 「도시공원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Landscape Ideas on Urban Parks」,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 국토연구원(2011),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전략 정책연구」,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2010), 「공원녹지 설계환류 사례집」,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안전부(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공공디자인 매뉴얼 개발」, 행정안전부.

## 외국문헌

Bath&North East Somerset, *Streetscape Manual*.

CABE Space(2005), *Start with the park: Creating sustainable urban green spaces in areas of housing growth and renewal*, CABE.

CABE Space(2006), *Green Space Strategies: a good practice guide(Second edition)*, CABE.

CABE Space(2007), *Spaceshaper*, CABE.

CABE Space(2007), *Living with risk Promoting better public space design*, CABE.

CABE Space(2007), *It's our space: a guide for community groups working to improve public space*, CABE.

CABE Space(2009), *Making the invisible visible: the real value of park assets*, CABE.

CABE Space(2009), *Open space strategies: Best practice guidance*, CABE.

City of New York(2010), *Active Design Guidelines : Promoting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 in Design*, City of New York.
- City of New York, Department of Design and Construction(2003), *Design Consultant Guide*, City of New York, Department of Design and Construction.
-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2000), *Urban Projects Manual(Second revised edition)*, Liverpool University Press for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Department of Transport(2007), *Manual for Streets*.
- Design Trust for Public Space, City of NewYork,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2010), *High Performance Landscape Guidelines*, Design Trust for Public Space, City of NewYork,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 English Partnerships(2007), *Urban Design Compendium(Second edition)*.
- English Partnerships(2007), *Urban Design Compendium2: Delivering Quality Places Design*, Llewelyn-Davies.
- Jay Walljasper, Project for Public Spaces(2007), *The Great Neighborhood Book: A Do-It-Yourself Guide to Placemaking*, New Society Publishers.
- London borough of Richmond upon Thames(2006), *Public Space Design Guide*.
- Project for Public Spaces(2005), *How to Turn a Place Around: A handbook for Creating Successful Public Spaces(Fourth Edition)*, Project for Public Spaces.
- Project for Public Spaces(2002), *Public Parks, Private Partners(Second Edition)*, Project for Public Spaces.
- The Better Street Plan(2008), *San Fransisco Better Streets Plan: Policies and Guidelines for the Pedestran Realm*.
- U.S. General Servies Administration, *Achieving Treat Federal Public Spaces*.
- William H. Whyte(2004),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Third edition)*, Project for Public Spaces, City of New York.



## A Handbook for Urban Public Spaces in Daily Life

Lee, Sang-Min  
Um, Woon-Jin

The research aims to preserve existing public spaces, secure public spaces in those areas where there is lack of provision and systematic support, and ultimately develop a project implementation handbook for administrators, practitioners and the wider member of the public. The handbook provides practical methods to overcome constraints such as insufficient funding, human resources etc whilst maintaining high design quality, and includes comprehensive case studies of the design process of successful projects.

Within this research the notion of public space has been identified as being the space which is readily accessible and inclusive for everyone within a community. The research placed particular emphasis on this inherent attribute of the public space being the realm of active everyday engagement and interaction, and classified such spaces into three different categories; infrastructure related public spaces(neighbourhood parks, areas surrounding rivers and streams, areas around public buildings, areas around infrastructures etc), individual public sites(open spaces etc), small scale individual public plots(derelict sites, alleyways, public housing landscape areas etc).

The main body of the research is divided into four parts in which the first part discusses the notion and value of public space in light of being the active space of everyday engagement.

Second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public spaces, the research investigated in detail the problems, qualities and the potential of public spaces within Seoul, Seongnam and Yeongju.

Thirdly, the research analyzed in depth, case studies from Korea and abroad,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design methods and processes, specific spatial qualities etc. Based on such analysis, the research proposed five essential aspects in creating successful public spaces; securing appropriate sites, implementing proper project planning, involving diverse community members, establishing systematic support, and putting in place a public space design strategy.

In order to secure appropriate sites for public spaces it is important to make effective use of existing public sites and also identify derelict sites with potential as great public spaces. The research suggested utilizing areas around infrastructures, restructuring and appropriating uses of existing public spaces, expanding our understanding and concept of public space, and considering the use of privately-owned areas.

Additionally, based on the analysis of various public space projects and planning systems within Korea and abroad, the research identifi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reating successful public spaces depended on the ability of the public organization to think creatively within the physical context and appropriate an implementation plan according to the specific needs of the project.

The research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pursuing an operational model which fosters active engagement from all relative parties including the community, and emphasized promoting design issues through various methods.

Apart from the above mentioned aspects, in order to achieve revitalization of public spaces, the existing planning system needs to be modified.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the planning direction and strategy for public spaces on a national level, and create a detailed implementation standard, whilst providing proper support and training for experts, and inducing active engagement from the private sector.

Lastly the research proposed to establish a design strategy for creating an accessible and actively used public space. Whilst the previous aspects articulated the basic framework of creating successful public spaces, the fifth aspect is presented in relation to the actual design and implementation process. Ten principles of practical methods and requirements are introduced within this context, and can be further applied as a design standard and an assessment criteria for public spaces.

In the final part of the research, based on the basic direction and principles of high quality public spaces compounded by the implications of various case studies, a "Handbook for Urban Public Spaces in Daily Life" was prepared.

The handbook includes content on the practicalities of creating successful public spaces used in our daily lives which can be primarily utiliz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bodies involved in new public projects or policy making, and also be used as a publicity material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such processes including public members, practitioners, and officers. It can be particularly useful to apply to those sites which are, for various reasons, being neglected by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so that the potential of these derelict blind spots within the urban area can be transformed into successful public spaces. The research believes that the handbook will provide the necessary groundwork to generate further improvements to the current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of public spaces.

In conclusion it is anticipated that through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handbook there will be a heightened awareness of the design values of good public spaces, and an established foundation for ensuring successful public spaces which acts as the active realm of engagement in our daily lives.

**Keyword : public spaces, daily lives, handbook**